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 1910년대 아동문학 연구

- 아동 매체를 중심으로 -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혜원

# 1910년대 아동문학 연구

- 아동 매체를 중심으로 -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혜원

# 인 준 서

정혜원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1910년대는 일제의 무단정치가 시작되는 시기로 강압적으로 출판, 계몽운동, 결사, 집회 등을 전면 금지한 시기였다. 우리 민족에게는 억압과 착취로 얼룩진 민족적 아픔이 시작된 역사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이다. 한편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일제가 강점하기 시작한 시기는 서구적 충격 속에 다양한 담론들이 경쟁하듯 쏟아져 들어왔다. 때로는 새롭고, 때로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식민지 시대의 우리의 당면과제는 민족의 독립과 계몽이었다. 이를 위해 신진 지식층은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족운동을 펼쳤고 아동문학도 그 역사적 현장에 존재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10년대 아동 매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대 초기 아동문학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근대와 함께 태어난 ‘아동’과 ‘아동문학’이 1910년대 아동 매체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조명하여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근대 초기에 발행된 종합잡지인 『소년』과 최초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신문인 『붉은 저고리』, 아동잡지인 『아이들보이』와 『새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아동문학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동 매체를 지엽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특히 『소년』과 1920년대 『어린이』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년』은 종합잡지로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것이고, 작품과 전달방법을 통해 아동문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붉은 저고리』야말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아동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보이』와 『새별』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이다. 1세기 전의 매체다보니 자료수집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 초기 아동문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1910년대 아동 매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진실을 왜곡되지 않게 밝

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910년대 아동 매체도 민족주의나 자주독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족의 사안이 결린 대명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을 적극적으로 계몽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애국계몽운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특히 자라나는 세대인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아동 집중 현상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았다.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근대라는 시대적 특징과 많은 연관성이 있었다. 즉 근대성과 계몽주의, 민족주의 또 근대 교육의 등장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아동문학의 배경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운동과 아동문단을 형성한 최남선과 이광수가 아동문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 매체의 구성 원리와 특성에서는 아동 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동 매체는 문학장르와 더불어 아동 특성에 부합된 화보와 삽화, 놀이코너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시대적 특징을 독자들에게 계몽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민족의식과 과학주의, 세계주의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아동 매체 속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문학을 통해 장르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화장르는 이솝 우화와 번안동화를, 동요장르는 동화요와 창가, 아동문학비평에는 칼럼을 통해 현재와 같은 장르를 인식하게 되었다.

초기 아동 매체가 다분히 계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의 특성을 살린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일제의 무단정치로 인한 아동 매체의 검열과 압박이 심해지긴 했으나 아동을 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의 눈을 피해 시대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매체 속에 배치할 수 있었다. 시대적 상황이 극에 달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

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와 신문이 발간된 것은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사실상 일제 때문에 대중을 대상으로 한 애국 계몽을 펼치기 힘들었는데, 대상을 아동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된 것은 식민지 상황 때문이었지만 그 때문에 한국 아동문학이 빨리 태동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적 요구와 신진 지식층이 지향하는 바를 아동 매체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와 함께 태동한 ‘아동’이란 독자를 외면하지 않고 아동 매체의 독자로 확정지었다는 데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아동 매체의 탄생은 곧 아동문학의 초기 모습, 즉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 매체는 매체의 특성상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와 코너들을 구성되어 있다. 아동 매체를 통해서 독자와 편집자, 집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생기게 되었다. 1910년대는 짧은 기간 동안 아동 매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아동문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초기 아동문학의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분화된 장르나 그 밖의 미숙함이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당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	3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3
2) 연구방법 .....	12
II. 1910년대 사회와 아동 매체의 등장 .....	15
1. 사회·문화적 배경 .....	16
1) 근대로의 진입과 근대성 .....	17
2) 민족의 자각과 민족주의 .....	21
3) 근대 교육의 등장과 아동 .....	27
2. 아동문학의 배경 .....	35
1) 아동운동의 고양 .....	35
2) 아동문단의 형성 .....	44
(1) 최남선: 신문관 창설과 아동물 출판 .....	45
(2) 이광수: 아동문학 소개와 창작 활동 .....	56
III. 아동 매체의 구성 원리와 특성 .....	64
1. 아동 매체의 편집과 구성 .....	67
1) 순국문체의 수용과 보급 .....	75
2) 장르의 수용과 소개 .....	82

3) 화보와 삽화 .....	108
4) 놀이란 .....	114
2. 아동 매체의 이념과 지향 .....	122
1) 민족의식의 고취 .....	122
2) 과학주의의 고양 .....	141
3) 세계주의의 선양 .....	152
<b>IV. 1910년대 아동문학과 장르 인식 .....</b>	<b>161</b>
1. 동화 장르 인식 .....	162
1) 이솝 우화의 번역과 수용 .....	163
2) 변안동화의 수용과 적용 .....	173
2. 동요 장르 인식 .....	183
1) 동화요의 창작과 수용 .....	184
2) 창가의 창작과 유포 .....	189
3. 아동문학비평 장르 인식 .....	195
<b>V. 1910년대 아동 매체와 아동문학의 의미 .....</b>	<b>203</b>
<b>VI. 결론 .....</b>	<b>217</b>
<b>참 고 문 헌 .....</b>	<b>222</b>
<b>ABSTRACT .....</b>	<b>230</b>

## 표 및 그림 목차

<표1> 한국 소년운동사 시대구분 .....	38
<표2> 『아이들보이』에 수록된 설화 .....	104
<표3> 『소년』의 국내외 위인 목록 .....	126
<표4> 『붉은 저고리』의 국내외 위인 목록 .....	131
<표5> 독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목록 .....	136
<그림1> 바둑이 .....	110
<그림2> 라마교 밋논이의 서울 .....	111
<그림3> 다음 엇지 .....	112
<그림4> 상급잇는 그림글 넓기 .....	121

# I. 서론

## 1. 연구 목적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폭되면서 최근 아동문학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동문학은 일반문학처럼 문학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채 아동들의 독서물로 취급되어 왔다. 이를 틈타서 들어온 것이 바로 아동물 출판시장의 상업주의이다. 거대 자본 논리에 포섭되어 아동문학이 문학으로서 자리 잡기보다 상업주의에 이용당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문학을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와 아동문학을 제대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제 아동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 하겠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프랑스의 아날학과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es)는 그의 저서 『아동의 탄생』<sup>1)</sup>에서 아동의 독자성에 대한 관념이 15, 16, 17세기를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급변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동은 중세사회까지만 해도 단지 축소된 어른으로만 인식될 뿐이었다. 아동으로서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른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에 의해 아동들은 여러 형태로 구속과 학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일반화되었다. 이제 아동이 가족생활의 중심에 떠올랐고 그들을 위한 의상, 놀이, 교육적 실천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아동을 새롭게 보는 시각 ‘아동의 재발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1)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동’은 근대에 들어와서야 발견된 존재이며 한국 아동문학 역시 역사 속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견된 아동을 전제로 한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다. 아동문학은 특수문학으로 문학(성인문학)의 대타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근대문학이 ‘자율성’, ‘순수성’을 강조할 때 대타 개념으로 삼는 ‘교육성’과 ‘계몽성’을 아동문학에서는 초창기 별다른 고민없이 받아들였다. 아동을 일차 독자로서 삼는 아동문학의 입장에서 교육과 계몽담론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문학은 일반문학의 평가기준에서 미숙하고 불완전한 문학으로서 평가받아야만 했고, 굴욕스러운 열등감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문학을 굳이 ‘근대’라고 한정 짓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체가 근대의 산물인 것이다. 즉 근대적 기획<sup>2)</sup>의 소산으로 아동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우리 역사에 있어 1910년대는 매우 침울한 시기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합병으로 민족의 수난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도 서구의 근대문물과 근대지식이 유입되어 근대로 진입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시대적 고통 속에 새롭게 아동의 개념이 부상되고 그 아동 계몽을 위한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되었다. 민족의 수난과 암흑의 시대 속에서 아동 매체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한국 아동문학사에 있어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아동 매체는 단순히 매체의 출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초기 한국 아동문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근대 초기 실증적 자료인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초기 한국 아동문학의 형태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2)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터, 1989, 114-120쪽.

하버마스는 계몽적 이성의 근대사회의 과학이나 예술, 도덕 영역이 재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18세기에 공식화했던 모더니티의 기획은 각각의 내부적 논리에 따라 객관적 과학, 보편적 도덕과 법률, 그리고 자율적 예술을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었다.(중략) 예술의 수용은 그것의 양상 가운데 적어도 세 가지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기획은 현대 문화를 활기 있는 유산들에 아직은 의존하고 있으나 단순한 전통주의를 통해서 빈곤하게 될 일상생활의 실천에 미분화된 상태로 재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한국 아동문학이 본격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고 문학사 기술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70년대에 들어서 일이다. 이 시기에 축적된 연구는 이후 아동문학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논리의 틀, 아동문학사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근간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sup>3)</sup>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아동매체에 대한 연구도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을 일정부분 근거로 삼고 있다. 여기서 아동매체라고 하는 것은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을 지칭한다. 동시에 이 시기의 논문에 반론을 제기하고 또 다른 시각과 잣대로 자신의 논의를 펴고 있는 연구물들의 주류를 살펴볼 것이다.

아동 매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아동문학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잡지를 다룬 연구이다. 이것은 한국 아동문학사를 주로 시대별로 나누어 논의를 전제하고 있는데 처음 기점을 논할 때 잡지발행을 놓고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잡지를 인용하고 있다. 둘째는 아동문학형성과정을 밝히는 방법으로 잡지연구를 한 것이다. 한국 아동문학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인데 그 과정에서 초기 잡지가 인용되어 있다. 셋째는 잡지 하나를 지정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문학사와 관련된 연구이다. 주로 아동문학의 효시를 『소년』, 『붉은 저고리』, 『어린이』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다. 『소년』을 아동문학

3) 최지훈, 「한국 아동문학 연구의 발자취」,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284-304쪽.  
최지훈은 60년대 들어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가 진전될 수 있었던 계기를 잡지 『아동문학』 (1962-1969:강소천, 김동리, 박목월, 조지훈, 최태호 등이 편집 동인이 된 아동문학 이론과 비평 전문지)이 발간됨으로써 아동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확산시켰다는 점, 1960년대 초 초등학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설립되면서 교육과정에 아동문학 과목이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학문적 체계를 갖춘 아동문학 입문서, 개론서가 요구된 점 등에서 찾았다.

의 효시로 보는 연구자로는 구인환, 조명렬, 이재철, 유창근, 박상재, 정선희 등을 들 수 있다. 구인환은 아동매체의 초기 집필자인 육당과 춘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육당은 傳來童話 및 童謠的 體詩 그리고 翻譯, 翻案童話를 발표하고, 춘원은 『새별』 잡지에 외배라는 이름으로 동화를 썼으나 그의 초기작품 「어린 犧牲」, 「소년의 悲哀」 등이 다 소년소설의 성격으로 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아동문학의 효시는 『少年』 지라는 점”<sup>4)</sup>을 분명히 하였다. 조명렬도 아동문학은 일제하 민족의 청소년을 계몽한 소년운동에서 태동하였으며 그것은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었고 그러한 발표무대의 효시는 1908년 창간된 『少年』 이라고<sup>5)</sup> 주장한다. 이 논문은 주로 시대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 면밀한 주장이나 새로운 것은 찾지 못했다. 한국 아동문학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이재철에 와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철은 아동문학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아하고 형성된 자아의 각성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평등적·창조적 개화계몽사상 속에서 성숙해 나온 산물<sup>6)</sup>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아동문학이 근대적 인식과 깊은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의 저서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연구」<sup>7)</sup>는 체계적으로 아동문학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국 아동문학사를 크게 ‘아동문화운동시대’(1908-1945)와 ‘아동문학운동시대’(1945- )로 나누었다. 세부적으로 ‘아동문화 운동시대’를 태동 초창기(1908-1923), 발흥 성장기(1923-1940), 암흑 수난기(1940-1945)로 나누었다. ‘아동문학 운동시대’를 광복 혼미기(1945-1950), 통속 팽창기(1950-1960), 정리 형성기(1960- )로 구분하였다. 태동 초창기란 구분은 다름 아닌 『소년』이 창간된 1908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문학사를 연대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물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기타의

4) 구인환 외, 『아동문학』, 한국방송통신대학, 1973, 147쪽.

5) 조명렬, 「한국 아동문학의 특성」,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5쪽.

6) 이재철, 「아동문학의 형성」, 『한국문학 입문』, 지식산업사, 1988, 573쪽.

7) 이재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78.

연구들이 지엽적이고 단순한 일면에 매달린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정치·사회·문화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유창근은 아동문학사를 크게 아동문학 발아시대(1908-1945)와 아동문학 성장시대(1945- )의 두 갈래로 나누어<sup>8)</sup> 살피고 있다. 이러한 광의적인 분류는 자칫 당대의 시대적 사건과 배경을 놓칠 위험이 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나 미래를 중요시 하는데 가치를 둔 분류이지만 과거 역시 우리 아동문학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므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1908년은 중요하게 부각된다. 역시 『소년』이 창간된 시기를 기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맥락에서 아동문학사를 짚어 나가다보니 세세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박상재는 한국 아동문학사를 태동초창기(1908-1922), 발흥형성기(1923-1940), 수난혼미기(1941-1950), 통속팽창기(1950-1960), 정리형성기(1961-1975)<sup>9)</sup>로 나누었다. 이재철의 분류를 대체로 따르고 있으나 이재철이 아동문학을 문화와 문학으로 나누어 기술한 반면, 그는 운동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시기를 구분한 것이 다른 점이다. 역시 1908년을 근대 아동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중요한 연대로 삼고 있다. 정선혜는 고대 아동문학사와 근대 아동문학사로 크게 나누었다. 고대 아동문학사(전통적 서사시대)를 4기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다. 모체기는 고대설화시대로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이고, 태동기는 한글발생기인 조선전기에, 발흥기는 조선중기, 근대서사문학기는 조선후기에 해당한다. 근대 아동문학사는 7기로 나누고 있다. 태동초창기(1908-1922)는 육당의 공적에 해당하는 시기, 발흥성장기는 소파의 활동시기, 암흑수난기(1940-1945)는 임인수의 『아이생활』시기와 일제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암흑기, 광복혼란기(1945-1950)는 좌우익대립시대와 아동문학잡지시대이고, 통속팽창기(1950-1960)는 동란 이후 순정, 모험, 명랑, 탐정소

8) 유창근, 『현대 아동문학의 이해』, 동문사, 1997.

9) 박상재, 『아동문학창작론』, 학연사, 1999, 45-64쪽.

설 등이 확산되던 시기, 본격문학기(1961-1976)는 4·19혁명과 5·16정변으로 격동의 시기, 성숙발전기(1976-현재)이다.<sup>10)</sup> 고대 아동문학사를 제외한 근대 아동문학사의 태동을 1908년 『소년』이 창간된 시기로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아동문학사를 근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기술한 다른 연구에 비해 나름대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보다 폭 넓게 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소년』이 창간된 1908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잣대로 보면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도 아동의 특성과 수준에 완전히 접근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당시의 최초 근대 종합잡지로서 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또 그 안에 아동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들이 『소년』을 아동문학의 효시로 결론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 저고리』를 아동문학의 효시로 보는 연구자는 유일하게 윤석중이다. 그는 『한국아동문학소사』<sup>11)</sup>에서 아동잡지의 출현 순서대로 아동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육당의 『少年』을 서두에 언급하지만 여기서 독자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소년’은 아동이 아니라 어른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동문학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대신 1913년 발행된 『붉은저고리』를 아동문학의 효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아동신문은 아동 독자에게 적합한 내용과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데서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 그의 주장이 한국 아동문학에 받아들여지려면 뒷받침할 이론이나 실증적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더 타당성 있고 검증된 자료나 이론이 입증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10) 정선혜, 『한국 아동문학을 위한 탐색』, 청동거울, 2000, 96-102쪽.

11) 윤석중, 『한국아동문학소사』, 『아동문학의 지도와 감상』, 대한교육연합회, 1962, 9-10쪽.

『어린이』를 아동문학의 효시로 보는 연구자는 박춘식, 이원수, 이상현, 석용원을 들 수 있다. 박춘식 역시 사회적 사건이나 문예사조를 중심으로 아동문학사를 아동문학 운동시기(1894-1923), 아동문학의 형성 및 성장시기(1923-1950), 아동문학의 팽창 및 발전시기(1950- )<sup>12)</sup>로 나누었다. 이 분류는 시대적 사건이나 문예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어린이』 지를 아동문학의 출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증 없이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나누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할 자료나 이론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수는 1908년부터 1923년을 아동문학의 태동기로 명명하면서 육당의 『少年』을 아동문학 형성의 계기로 보고, 『어린이』를 본격적으로 아동문학이 성장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아동문학이 동심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학예술이라고 주장하고 육당의 『少年』이 민족 계몽에 주력하긴 했지만 진정한 아동성의 발견 혹은 아동 인격해방이라는 측면에서 근대의식과 거리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아동문학의 진정한 출발을 방정환의 『어린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를 상정하는 기준과 아동성에 포착하여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역시 더 세밀한 검토와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현은 1920년대를 근대 아동문학이 출발한 시기<sup>13)</sup>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분류 역시 1923년 『어린이』가 창간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석용원 역시 『少年』을 아동문학 형성의 계기로, 『어린이』를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출발점<sup>14)</sup>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이원수의 분류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 아동문학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 시작을

12) 박춘식,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87.

13)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14) 석용원, 『아동문학원론』, 학연사, 1992.

어디로 잡느냐, 즉 시기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소년』을 기점으로 삼는 연구로는 구인환, 조명렬, 이재철, 박상재, 정선희, 유창근, 『어린이』를 기점으로 삼는 연구로는 이원수, 박춘식, 이상현, 석용원이고, 그 밖에 『붉은 저고리』를 기점으로 삼은 연구는 윤석중이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볼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1908년 아동잡지인 『소년』과 1923년 『어린이』 지로 모아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10년대 걸쳐 있는 『소년』이 초창기 아동잡지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 1920년대 『어린이』 지 또한 아동문학이 본격화를 이루게 한 대표적 아동잡지이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아동잡지나 아동신문이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실증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작업이다. 실제 이들 연구 중 일부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선대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를 별 고민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심화시키려면 그에 적합한 실증적 자료나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미비한 것이 하나의 미흡한 점으로 남는다.

둘째는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역시 기본 텍스트를 1910년대 『소년』과 1920년대 『어린이』 지를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는 권복연과 김화선이 있다. 권복연은 1910년대 『소년』과 1920년대 『어린이』를 선정하여 각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비교 분석해서 근대 아동문학의 성립과정<sup>15)</sup>을 살피고 있다. 1910년대 문학은 아동문학이 아니라 신문학이라고 간주하고 방정환에서 아동문학이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또

15) 권복연, 「근대아동문학 형성과정 연구: 1910-1920년대 초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920년대는 아동문학 개념의 형성과 기틀이 잡힌 시기로 보았다. 근대아동문학의 발생기인 1910-1920년대는 전대 문학과 일종의 단절을 이루며 새로운 문학개념을 적용하고 확립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논문들이 시기별 특성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것에 비해 아동문학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10년대에 아동 매체로 『소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아동문학의 특성을 드러낸 다른 잡지와 신문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표적인 매체로 한정하여 살피는 것은 이 연구에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920년대도 마찬가지다. 연구자가 어떤 텍스트를 선정할 때는 그 대표성 못지않게 기반 사항이나 배경, 이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잡지로 그 시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화선은 한국 아동문학의 출발을 1920년대로 보는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관의 근대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00년대로 앞당겨 보아야 한다고<sup>16)</sup> 주장한다.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더 폭넓게 시기를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근대적 인식과 아동문학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잡지 『소년』, 『어린이』란 두 잡지를 대표적 잡지로 선정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권복연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연대별 대표성을 제시하며 두 잡지를 선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같은 시기라도 잡지들의 성격과 의미, 역할에 있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시기 아동 매체의 특징이다. 같은 시기에 발행된 다른 잡지들도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살펴보지 않은 것이 그의 논문을 심화시키는데 문제로 남는다.

그 밖에 1920년대 방정환의 공적에서 아동문학의 출발점<sup>17)</sup>을 찾는 박숙

16)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17) 박숙경, 「한국 근대 창작동화 형성 과정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경의 연구가 있다. 그는 더 구체적인 장르인 창작동화의 형성과정을 1890년부터 1920년대에의 상황, 즉 학교교육의 보급, 아동잡지의 발간, 근대적 문체의 성립, 소년 운동의 전개 등을 통해 논증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근대적인 ‘아동의 발견’을 천도교의 아동애호사상에서 찾았고 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방정환을 부각시키고 있다. 충분한 자료적 분석이나 시대적 배경이 심화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조은숙은 한국 사회에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출현하고 아동문학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아동문학의 역사적 형성과정<sup>18)</sup>을 살피고 있다. 한국의 근대적 지형에서 아동문학의 정체성은 어떠한 논리와 현실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는지 논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놓친 부분, 즉 미성년에 대한 기획과 위상, 아동문학을 이루는 개념 구성과 ‘동심’의 의미, 아동문학 매체의 환경과 양식적 성격에 대해 천착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세 번째는 한 가지 잡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다. 이들은 근대사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소박하나마 근대의 잡지를 선정하여 잡지의 구성과 내용에 천착하고 있는 석사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10년대 잡지인 『소년』을 연구한 홍성우<sup>19)</sup>와 임원재<sup>20)</sup>가 있다. 한 가지 잡지를 선정하여 나름대로의 잣대와 이론을 적용해서 그 잡지에 대해 충분히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데 불필요한 개념이나 상황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나 지나치게 일차적인 자료 분류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1920년대 잡지인 『어린이』를 연구한 이정석<sup>21)</sup>은 자료분석에 면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 잡지에 게재된 아동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학사적 의의를 추출해냈다. 동요, 동시, 창작동화, 소

18)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19) 홍성우, 「최남선 ‘소년’지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20) 임원재, 「육당의 ‘소년’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21) 이정석, 「‘어린이’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양상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년소설, 동극에까지 망라하는 많은 양을 빼놓지 않고 분석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좁은 시각의 잡지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구체적이고 참신한 잡지연구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sup>22)</sup> 1910년과 1920년 이후의 잡지의 연구도 찾을 수 있는데 본 연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사를 살펴보았는데 아동 매체 중 아동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주로 『소년』과 『어린이』란 아동잡지를 통해서 한국 아동문학사 연구와 한국 아동문학 형성과정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연구사에서 보듯이 잡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고 그 연구물도 많지 않다. 그 시대에 다른 잡지나 아동신문도 있는데 유독 이 두 잡지로 한정된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일 세기 전의 자료라서 많은 잡지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등한시 한 점도 한계이다. 아동잡지가 귀중한 자료로 보관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또 그로 인해 개인 연구자들이 자료 구하는 것에 큰 애로점이 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1960,70년대의 선구적인 작업이 후대 연구에 있어 중요한 틀로 작용하거나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이 그 연구들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하고 그에 따른 반론을 제기하며 또 다른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한국 아동문학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고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잡지에 대한 논문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산발적으로 어느 잡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 아동문학사를 기술하는 과정이나 아동문학 형성과정을 위해 한 예로 잡지를 선정하는

---

22) 김효진, 「소학생지 연구-동화 및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잡지의 성격과 그 잡지가 가지고 있는 아동문학사적 가치를 논하고 있다. 특히 동화와 아동소설의 유형을 각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황혜순, 「『소년세계』지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952년에 창간된 이 잡지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봄과 동시에 효용론적 관점에서 잡지를 개괄하고 있다. 동서양의 효용론을 적용해서 잡지 속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로 아동문학의 효용적인 측면을 분석한 논문이다.

정도의 논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가 일반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나 양에 있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문학 연구자들의 의무가 막중하다 할 것이다. 때문에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동 매체 연구에 천착하였다. 근대 초기 아동 매체 속에 나타난 아동문학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아동문학적 의미를 추출해내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1910년대를 전후로 창간된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이 시기별로 한 잡지에만 매달렸을 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지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1910년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잡지와 신문(『소년』,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을 모두 검토하였다. 이것이 다른 논문들과 차별화 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매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발행되었고, 또 어떤 이념을 가지고 편집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려 한다.

##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되기 위하여 근대 초기<sup>23)</sup>인 1910년대 아동 매체로 한정되었다. 정치·경제·역사·천문·지리·문학·미술·음악·기술·풍속·인물·시사·종교 등을 아우르고 있는 종합잡지인 『소년』과 유일한 아동신문인 『붉은 저고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잡지인 『아이들보이』와 『새별』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새별』은 자료 입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입수한 다른 자료에 비해 그 양이 적지만 1910년대를 아우르는 의

23) 1890-1910년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개화기, 개항기, 대한제국기, 개화계몽기, 애국계몽기, 근대계몽기, 계몽기, 근대전환기 등 여러 가지 개념을 도입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용어가 쓰일 때는 그에 따른 적합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무엇이라 명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이러한 개념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근대 초기'라 쓰기로 하겠다.

미에서 포함시켰다. 이 연구가 온전히 1910년대 아동 매체를 통해서 초기 아동문학의 모습을 살피고 의미를 추출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 천착하기 위해서 ‘근대의 기점문제’ 나 ‘최남선과 이광수의 친일문제’는 배제시킬 것이다. 이미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시기적으로 최남선과 이광수가 친일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기 아동 매체를 분석하여 의미를 추출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범위를 정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1910년대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모든 분야가 당대 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것과 떨어질 수 없듯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 초기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근대성, 민족주의, 근대 교육제도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기반 위에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된 아동문학의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동문학의 배경으로는 아동을 위한 아동운동과 아동문단에 대해 조명해 볼 것이다. 아직 아동문단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서 문단의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당대 아동문단을 주름잡았던 최남선과 이광수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초기 모습을 살필 것이다.

III장에서는 아동 매체의 구성 원리와 특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매체가 다분히 대중성을 내재하고 있듯이 아동 매체도 마찬가지다. 아동 매체 속에는 문학 장르(변안동화, 이솝우화, 동요, 동시, 고전소설, 설화, 칼럼, 창가) 뿐만 아니라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코너(게임, 퀴즈)나 삽화와 화보 같은 것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이 어떤 의도로 아동매체 속에 편집되어 있는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또 아동 매체 속에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천착할 것이다.

IV장에서는 1910년대 아동문학과 장르인식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당시 아동 매체 속에 배치되어 있는 문학 장르는 현재의 잣대로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 대부분 짧은 산문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장르와 상관없이 ‘이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학 장르 분류로 보면 나름대로 장르를 구분할 수 있다. 작품이나 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장르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장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화, 동요, 아동문학비평으로 나누어 그 장르 인식의 문제를 조명할 것이다. 먼저 동화는 이솝 우화와 번안동화를, 동요는 동화요와 창가를, 아동문학비평은 칼럼을 통해서 어떻게 장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살필 것이다.

V장에서는 1910년대 아동 매체와 아동문학의 의미를 추출해 낼 것이다. 아동 매체 속에 구현된 아동문학의 의미를 밝혀내는 장으로 지금까지 아동 잡지와 아동신문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근대 초기의 아동 매체 속에 어떤 모습으로 아동문학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 아동문학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때문에 초기 아동 매체가 당대 사회와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아동문학의 모습이 어떻게 부각되어 있는지 조명할 것이다.

## II. 1910년대 아동 매체의 출현 배경

1910년대 아동 매체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문화적 배경과 아동문학적 배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당대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근대 문명과 근대 지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왕조가 지키고 있던 역사와 정치적 이데올로기, 유교적 사관, 문화 등은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고 새로운 근대 문명이 큰 힘을 얻게 된다. 민중들의 삶 속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다시 절충되기도 하며, 전혀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도 한다. 근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당대와 민중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진통을 겪으면서 근대로 돌진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계몽의 시대에 신진 지식층은 민중들을 향한 계몽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운동을 전개한다. 그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출판운동이 무척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된다. 왜냐하면 일제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야 하고 무지(無知)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동들은 계몽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의 대상이었다. 성장과정 속에 있는 아동들은 어떤 대상보다 빨리 모든 것을 흡입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 또한 근대와 탄생한 개념이고 근대가 되면서 아동에 대한 존중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졌고 그런 연유로 아동 매체를 통한 아동을 계몽하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서도 일제 강점이라는 특수 상황이었기에 민족에 대한 자각이 남달랐고 민족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각종 매체를 비롯한 아동 매체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근대적 교육의 등장은 민족의 계몽을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동문학 쪽에서 보면 아동에 대한 인식 문제가 가장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하고 있으나 늘 유행처럼 취급했던 아동을 근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변화에 그치지 않고 아동운동으로 발전해나간다. 또 초기에는 아동문단이라고 하기도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의지만은 초라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최남선은 그 시대의 사상과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1908년 『소년』을 비롯한 아동신문과 아동잡지를 발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가 설립한 신문관이란 출판사를 통해서 수많은 단행본을 출간하여 아동 계몽에 앞장선다. 후에 이광수는 아동잡지에 직접 집필하기도 하고 외국 번역물을 소개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편집까지 맡아서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활발한 아동운동과 아동문단은 아동 매체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아동문학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사회·문화적 배경

조선왕조의 종식은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또 다른 출발을 예견하게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국가의 출범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국가 속에는 이 전의 형태와 전혀 새로운 형태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이처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던 근대 초기란 공간은 새로운 계획들이 기획되고 실천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들은 늘 긍정적으로만 발현된 것도 아니고 예측 불허의 부정만이 도사리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다채로운 역동적인 힘과 새로움을 번식하고자 하는 잠재된 공간이었다. 1910년대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서구의 충격’ 속에서 신·구의 대립과 충돌을 통해 민중들의 삶도 새로운 모습으로 적응하고 구조로 변화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근대로의 진입과 근대성

근대는 서양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시대 구분의 개념으로 근대 이전인 중세의 봉건 사회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서양에서의 근대성(Western Modernity) 이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지금 현재’를 뜻하며 현실적으로 쓰일 때는 그 뜻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대와 중세, 즉 과거와는 다르다는 첨예한 역사의식을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서양의 근대 문화가 15-18세기 동안 형성되었다고 보며 문예 부흥, 종교 개혁, 활자의 발명, 프랑스 혁명, 산업 혁명, 과학의 진보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준거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 근대성의 기본 이념과 그 참신성은 무엇보다도 18세기에 발생한 계몽주의 운동에 의해 압축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된다. 그런 뜻에서 15-17세기는 계몽사상의 정립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근대성의 기본 이념을 축약해서 드러내고 있는 계몽사상의 특징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8세기를 흔히 이성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서도 드러나듯이, 이성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계몽사상을 특징짓고 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모든 사람은 이성적 능력을 구유하며 그 능력을 바로 쓰면 스스로와 세계에 대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 능력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둘째, 자연관의 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현상학자 후설은 이러한 자연관의 변화를 한마디로 ‘자연의 수학화’라는 말로 적절히 개념화

24)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2002, 25-26쪽.

하고 있다. 자연현상 자체가 계산과 계측으로 대표되는 수학적 방법론의 지도 아래 이념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몽 시대의 서양인들이 생각한 자연법칙은 수학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가운데서도 양적이며 계측될 수 있는 것만이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진보의 교의도 이성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진보의 교의는 서양 근대성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학 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진보의 교의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로부터 뉴턴에 이르는 과학적 작업이 전 세대 과학자들의 성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과학적 진보와 함께 산업화가 가져다 준 미증유의 생산력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도 진보의 교의가 근대의 서양인들에게 일반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진보의 교의는, 사람이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욱 행복해지고 품성도 향상된다는 도덕론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근대성의 개념이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것이었다. 근대적이라는 말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며, 사회적 종교적 권위라는 미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상징했다. 근대적이라는 형용사는 무엇보다도 인간 이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더불어 삶이 전반적으로 합리화되어 간다는 것을 뜻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근대화와 합리화는 사상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sup>25)</sup>

지금까지 언급한 근대의 특징은 근대성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에 거대한 돌풍을 일으킨 점이고, 무엇보다 산업혁명과 계몽주의혁명, 과학·기술주의를 탄생시킨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근대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과거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을 매개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서구화의 과정이라

---

25)윤평중, 앞의 책, 27-31쪽.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근대 사회의 이전인 전근대사회와 비교, 현대 또는 당대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근대의 개념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근대 시점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갑오경장설, 3·1운동설, 18세기 자본주의 발생설에 이른 자본주의 맹아설, 19세기 중후반(1886)설, 애국계몽기설 등이다. 이 기점론에는 한국의 근대 사회 또는 근대화의 특성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공통적인 것은 한국의 근대화가 반봉건뿐만 아니라 반외세(반제, 애국)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양 근대화를 추종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양 근대화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sup>26)</sup>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근대는 매우 낯선 것, 아니 그 이상의 충격이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변화된 지식의 형태를 대변하는 계층이 ‘독립된 자유 지식인’이다. 즉 근대를 이끌 개명한 유학파인 신진 지식층을 뜻한다. 이들은 계몽의 사명을 지닌 자들이며 근대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학문적 작업을 전개한다. 지식인은 근대라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독립적이며 계몽의 원리에 따라 시대를 재단하는 사명감에 넘친 선각자적 계층이다. 이들은 낯선 근대적 사고와 지식을 민중들이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나라를 강탈당하고 일제가 무단정치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대화의 진행은 계속 가속도가 붙었다. 당시 반외세의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고 봉건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교육을 통한 의식의 계몽과 산업화의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용한 근대는 서구 역사에서 발전한 근대가 아니다. 기껏해야 신분질서의 해체 정도가 근대의 원리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

---

26) 윤여탁, 「한국의 근대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117호, 2005.6.30, 2쪽.

한 동아시아의 국가 개념은 민족공동체 또는 언어공동체의 집단 자의식이  
 지, 근대국가에서 보듯이 근대적 시대원리에 따라 성립된 시민국가는 아니  
 다. 강제로 유입된 서구의 근대정신은 문제성을 띠게 마련이다. 우리가 지  
 닌 전근대적 요소들은 서구의 근대가 이룩한 체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그  
 내적 원리와 맞닥뜨리면 역기능만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는 서구적 계약 개  
 념과는 거리가 먼 인간관계를 지니고 있다.<sup>27)</sup> 근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  
 던 전통이나 의식을 서구의 잣대로 재단해서 이 모두를 전근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다. 서구의 근대가 유입됨으로써 비롯된 근대화과정에서 우리  
 는 역사적, 정신사적 맥락과 내적 규범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단지 그  
 부정적 요인들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빚어진 뒤범벅이 된 현상이 우리의  
 근대이며 현재의 사회모습이다. 때문에 서구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 신분  
 제도의 붕괴, 자본주의, 인권, 과학기술주의 등이 일어났고 내적으로 근대성  
 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제와 서구에 의해 유입된 모순덩어리를 안은 셈이  
 다. 그런 연유로 우리의 근대는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아동의 삶 역시 근대사회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었다. 아동이 성인에 비  
 해 항상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인 존재로 인식되던 시기에서 아동도 그 사회  
 를 구성하는 당당한 일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아동’도 근대에 태어난  
 다른 개념들처럼 근대와 더불어 일깨워진 존재이다. 아동은 더 이상 유행과  
 같은 그 시대의 타자도 아니고 아동을 둘러싼 시대와 사건들과 무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1910년대로 접어들면서 ‘아동’은 그 의미가 새롭게 부  
 각되었고 아동을 둘러싼 문학과 교육, 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  
 다. 근대사회가 갖는 근대성도 아동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융해되기에 이르  
 렸다. 침잠되어 있던 아동을 불러내고 그들을 통해 계몽의 기획을 시도하려  
 고 하였다. 아직 아동을 한 인격체로서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민족적인 차원

27)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지식산업사, 2003, 141-142쪽.

에서 그들의 목적에 적합하게 성장시키고 계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더라도 항상 성인 뒤에 가려진 채 인정하지 않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아동이 민족의 독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계층으로 부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예우이다.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을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스스로 선택한 근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족사적으로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근대사회로 진입했고 그에 따른 많은 변화를 겪어내야 했다. 특히 근대성의 고양으로 아동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아동의 계몽을 위해 아동 매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2) 민족의 자각과 민족주의

한국 근대 형성의 과정에서 ‘애국’, ‘계몽’, ‘민족’ 개념이 두드러져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 중 ‘민족’만큼 흔하게 논의되는 개념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민족’이란 개념은 각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1910년대 민중들이 ‘민족’에 대해 어떻게 자각하고 민족주의를 실현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의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과 ‘민족’에 대해 간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나 민족 모두 ‘nation’의 번역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과 민족이란 단어는 전근대시기에 없던 개념으로 근대 자본주의와 국가간 체계 속에 편입되면서 사용된 것이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식민지, 그 중에서도 철저한 동화를 꿈꾸던 일본 식민주의를 경험하면서 국민과 민족에 대해서 유럽이나 이를 반복한 비서구의 일본경우와 다르게 그것을 상상하게 되었다는 사실”<sup>28)</sup>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족’과 ‘국민’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상정하고 사용하는 것과 달리 근대 초기에는 이를 구분하였다. 『대한매일신보』 국문 전용판에 실린 「민족과 국민의 구별」이란 논설은 이러한 지적 분위기를 정확히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이라는 명목은 민족 두 글자와는 구별이 있거늘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혼합하여 말하니 이는 옳지 아니함이 심하다. 고로 이제 이것을 약간 변론하노라. 민족이란 것은 다만 같은 조상의 자손에 매인 자이며 같은 지방에 사는 자이며 같은 역사를 가진 자이며 같은 말을 쓰는 자 곧 민족이라 칭하는 바이어니와 국민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해석하면 불가한지라. (중략) 국민이란 자는 조상과 역사와 거지와 종교와 언어가 같은 외에도 반드시 같은 정신을 가지며 같은 이해를 취하며 같은 행동을 지어서 그 내부에 조직됨이 한 몸에 근골과 같으며 밖에 대한 정신은 한 영문에 군대 같이 하여야 이것을 국민이라 하나니라.<sup>28)</sup>

근대로 돌입하면서 ‘국민’과 ‘민족’이라는 개념이 부상되면서 구분하고자 하는 신진 지식층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은 에스닉(ethnic), 국민은 네이션(nation)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근대 시기의 조공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국가간 체제라는 낯선 세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조건에서 국민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민을 민족과 다른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은 전근대시기에 존재했던 공동체로 보는 반면, 국민은 전적으로 근대시기에 이르러 이루어진 낯선 새로운 공동체로 보고 있는 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28)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한국문학의 근대와 근대성』, 소명출판, 2006, 149-150쪽.

29) 『대한매일신보』, 1908.7.30.

전근대 시기의 관성 속에서 민족과 국민을 혼용하는 이들에 대하여 일침을 놓고 있는 이 글은 당시 국민에 대한 이해 중에서 매우 구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필자는 국민이 갖고 있는 근본적 취약성도 아울러 보여 주고 있다. 국민국가의 국민은 내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의 차이를 부정하고 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를 배척하는 배외주의에 그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고 억압적이라는 점을 이 글의 마지막 대목 “내부에 조직됨이 한 몸에 근골과 같으면 밖에 대한 정신은 한 영문에 군대 같이 하여야”한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사실상 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과 민족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과 민족을 구분하는 쪽과 그렇지 않는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인식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고 당시 현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신채호를 들 수 있는데 그 역시 처음부터 이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초기 글에서는 두 용어가 별 차이 없이 사용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제국주의로 인해 발생된 식민지 상황과 연관될 때는 민족이란 말을 사용하였고, 점차 식민지 상황과 무관하게 근대 국가의 주권재민의 성격을 말할 때는 국민이라 하였다.

단재는 1907년 이후 그의 여러 글에서 ‘국민’을 강조한다. 1908년 『대한협회월보』에 발표한 「대한의 희망」을 보면 그가 국민이란 말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다. 이 무렵에는 아직 국민과 민족 자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의식되지 않은 시절이라 민족을 의식하면서 국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의 위기의식과 이를 통한 민족 문제의 인식이 무르익기 시작한 1909년 이후에 민족이란 개념을 국민과 다르게 사용하였고 더불어 국민이란 개념도 민족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

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에 발표한 「20세기 신국민」은 이러한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모 학자가 망국의 이유를 설명하여 왈 1, 국토가 협(狹)하고 국민이 소(少)한국은 필망하고 2, 국민적 국가가 아닌 국(입헌국이 아니오 일 이 인이 전제하는 국)과 세계 대세를 역하는 국은 필망한다 한지라. 금차(今次) 한국은 삼천리 산하가 유(有)하니 기국토가 대(大)하며 이천만 민족이 유하니 기 국민이 중(衆)한지라. 연즉(然則) 국민 동초가 단지 20세기 신국민의 이상기력을 분흥(奮興)하여 국민적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여 실력을 장하며, 세계대세의 풍조를 선응(善應)하여 문명을 확(擴)하면 가히 동아 일방에 흘립(屹立)하여 강국의 기(基)를 과할지며 가히 세계무대에 약등(躍登)하여 문명의 기를 양(揚)할지니 오호라 동포여, 어찌 분려(奮勵)치 아니하리오<sup>30)</sup>

‘국민적 국가’란 소수 사람만의 나라가 아니라 일반 민중이 국가의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근대처럼 왕이 주권을 쥐고 있던 것과 달리 백성이 주권을 쥐고 있는 상태의 국가를 ‘국민적 국가’라고 주장한다. 단재는 ‘국민’이란 단어를 ‘신민’과 분명히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존립근거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른바 인종(혈통)과 언어일 것이다. 이것들은 가장 직접적인 소여라고 여겨지는 만큼 ‘민족의 자연성’을 입증하는 선행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정하게 제한된 지역에서 고유한 ‘언어’와 ‘피’를 이어왔다는 우리의 경우, 혈통과 언어는 민족의 ‘순결성’을 입증하는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순결성’이란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가시적이고 자명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오히려 내

30) 단재 신채호전집간행위원회, 『단재 신채호 전집』 별책, 형설출판사, 1977, 229쪽.

적인 지배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즉 혈통과 언어의 동일성은 공동체 내부의 실제적인 구별과 차이-예컨대 계급, 사회적 성차 등-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31)</sup> 혈통과 언어의 동일성에도 역사성이 개입되어 있다. 민족이란 어떤 확고부동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서 다시 규정될 수 있다. 때문에 극단적인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근본 동력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은 “스스로 민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sup>32)</sup>이다. 민족이 되려는 의식 뒤에는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외적 자극과 내부에서 차이를 보일 때 의식이 생성되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나름대로 ‘민족’이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개화한 자는 천만 가지 사물을 연구하고 경영하여,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약한다.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진취적인 기상이 웅장하여 사소한 게으름도 없고 또 사람을 접대할 때에도 말을 공손히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능한 자를 본받고 능치 못한 자를 불쌍하게 여긴다. 그러면서도 깔보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야비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지위의 귀천이라든가 형세의 강약에 의해 인품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국민이 그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여러 가지의 개화를 함께 힘쓰는 자들이다.”<sup>33)</sup>

그는 개화한 자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 민중들에게 도덕적 단련을 촉구하는 자세, 더 나아가 기독교와의 접촉을 통해 육망의 거세 작업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러나 근대에서 말하는 자유, 개인의 존엄성은 묵인된 채 대

31) 한국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민족주의』, 국학자료원, 251-252쪽.

32) 丸山眞男, 김석근 옮김,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1995, 456쪽.

33) 유길준, 허경진 역, 『서유견문』, 한양출판, 1995, 326쪽.

아직 애국을 위해 민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개인의 차이를 억압하고 어떤 이념적 기표 밑으로 그들을 불러모음으로써 개인을 ‘민족적 인간’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4)</sup> 이 민족적 인간들은 신성한 이념적 기표를 내면화함으로써 민족 주체로 호명된다. 민족이라는 기표 아래 개인들을 불러 모은 주체화 방식은 매우 억압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배후에 민족을 어떤 특정한 성격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체는 이데올로기적 주체이며 ‘종속’을 내면화시킨 주체이다. 한국의 불운했던 역사, 즉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식 내에 또 다른 종속적 식민성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근대로 돌입하면서 당대의 선각자적인 많은 인물들을 통해 민중들을 계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민중들은 ‘민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고 점차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길로 들어섰다. 민족의 중심에는 ‘국수(國粹)’라든지 ‘민족정기’라는 관념적 실체가 공통적으로 자리 잡기 마련이다. 이러한 구심력은 하나의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민족국가로 존립하게 하려면 그 ‘의식’이 정치적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언어(모국어), 문화(민족문화), 역사, 교육 등에서 반드시 어떤 정신적 본질이 관통해야만 한다. 1910년대 민족주의는 식민지라는 특수상황에서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했고 이것을 통해 민중들을 한데 통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일제와 구별하려는 과정에서 독립·발전을 지향하였다. 이 결과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측면이 많았다. 즉 공동체적 명분으로 당시 식자층은 근대적인 제도와 규율로 집약시킬 수 있었다. 대다수의 민중을 민족으로, 합법적으로 합류시키기 위해서 제일 빠르게 할 수

34) 今村仁司, 이수정 옮김,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9, 181-182쪽.

있는 방법이 언론매체에 의한 활동이다. 신문, 잡지, 문학작품 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한데 모을 수 있는 응집력이 생겼다. 이러한 언론매체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 수 있는 장인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테두리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는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이었고 이 거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란 개념이 꼭 필요했다. 민족이란 거대개념에는 대다수의 민중들을 한데 집약시키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각 개인들의 자유나 평등은 억압받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개인적인 측면보다 민족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선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상황은 역사와 민족 앞에 치욕적인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은 꼭 이루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위해 민족주의를 수반하는 것은 그 당대 민중들에게는 당연하게 수용되었다. 민족주의는 동시대의 지향점인 근대적 의미의 '아동'과 '아동 매체'를 출현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 상황이 필연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근대 민족국가를 위해 새로운 축으로 아동을 배치하고 이 '아동'이라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희망이라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대표되는 아동을 위한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아동매체도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매체와 마찬가지로 '민족'이란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개념을 기반으로 민족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계몽적 작업을 통해 민족주의를 실현하도록 도왔다.

### 3) 근대 교육의 등장과 아동

식민지 체제에서 근대적 규율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과거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이행하는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학교가 가정과 사회를 잇는 사회화의 핵심 주체로 바뀐다는 점이다. 특히 근대학교는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사회에 필요한 인간형을 만들어낸다. 교과과정을 통해 근대적 지식을 교육하고 동시에 각종 형태의 규율을 통해 근대적 태도를 배양한다. 학교교육은 예전과 달리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달리한 근대식 학교교육이다. 모든 관심이 학교로 쏠리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담당했던 많은 부분들을 학교가 전적으로 맡게 되었다. 이로써 학교교육<sup>35)</sup>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아동이 계몽의 시선 속에 새로운 근대적 지식과 문물을 수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곧 교육받는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아동’이다.

아동은 근대에 이르러 탄생한 개념이다. 이미 아리에스가 말한 것처럼 서양에 있어서도 ‘아동’은 근대적 개념에 속한다.

서양도 초기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어린 아동들을 성인들의 틈에 끼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다. 16-17세기에 이르러 서양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아동은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더러운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부터 집이란 공간에서 아동을 재우고 놀고 공부하는 방이 따로 생겨났다. 이것은 공간에서도 분화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재편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을 체계적으로 훈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가 제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17세기 초 영국의 교육서인 『영국의 학교교사』에서는 작업장, 학교, 상점학교란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

35) 식민지 시기 교육을 보는 여러 시각의 논문(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학과학사, 2003, 112쪽.) 발췌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1979.  
 \_\_\_\_\_, 「일제시기의 문맹을 추이」, 『국사관논총』 제15집, 1994.  
 오천석,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 국제문화공회, 1946.  
 이만규, 『조선교육사』, 을유문화사, 1949.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 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현상석, 「교육현장의 일제잔재들」, 『일제 황민화교육과 초등학교』, 한울, 1995.

로 79페이지에 걸쳐 쓰인 교사용 지침서로서 교육전문가들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알파벳과 철자 기술에 39페이지, 교리, 기도문, 시편에 18페이지, 연대기에 5페이지, 쓰기 예문에 2페이지, 산술에 2페이지,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과 속어들의 설명에 20여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독학자들이 “알아듣거나 읽기 어려운 영어 단어들을 쉽게 이해하고 이 단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쓰인 것이다. 게다가 이 책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직업인들을 위한 책이었다.<sup>36)</sup> 이것은 근대 평등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또 17세기 후반에 오늘날의 초등교육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소학교들’이 도처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틴어와 전례 기도를 통해 라틴어 읽기와 철자법을 배웠다. 보통 읽기, 쓰기 교본과 예절 안내서를 교육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아동을 가족과 어른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엄격한 규율체제에 따라 교육하였다. 동양도 서양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아동’은 근대를 대표할 만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근대와 함께 탄생한 아동은 근대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공교육 제도의 실현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이들은 개화사상가들이었다.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했던 박영효는 1888년 국정개혁에 관한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 중 제 6조에 해당하는 「六曰『教民才德文藝以治本』」은 근대적 교육개혁에 관한 구체적 제안들이다.<sup>37)</sup> 박영효의 개혁안은 남녀평등과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를 전제로 하여 근대적 학교제도의 창설, 의무교육의 실시, 근대학문의 도입, 국사 국문의 중시 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같은 시기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제시했다. 책 중 제9편에서는

36)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출판사, 2003, 479쪽 참조.

37) 박영효, 「근대 한국 명연설집」, 『신동아』 1966.1 부록, 20-22쪽.

학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각국 학교의 교과목과 제도, 취학연령, 진급, 진학, 교사양성, 교육비, 부양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대교육의 개요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소개였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교육, 국사 국문 교육의 실시, 여자교육, 아동교육, 가정교육의 구별, 지덕체 균형의 필요성, 신문, 박물관, 식물원, 도서관 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sup>38)</sup> 개화파들은 근대 공교육제도를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능력이나 식민지 체제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1910년까지 관이 주도하는 소학교로 서울과 지방을 합쳐서 모두 60곳 정도에 불과하였다.

1910년 일제는 무력으로 한국을 완전히 강점하고 나서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 구 왕조체제를 해체시키고 식민지체제로 재편성하게 되었다. 그해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조선'으로 개칭되는 동시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일제는 종래의 경제적 지배계급인 지주층과 정치적 지배계급인 관료층, 그리고 매국에 앞장섰던 자들을 포섭하여 일제의 한국지배와 이해를 같이하는 세력으로 편제하였다.<sup>39)</sup>

'조선교육령'<sup>40)</sup>과 '사립학교규칙'<sup>41)</sup> 그리고 '서당규칙'<sup>42)</sup> 등을 제정하여

38) 박숙경, 「한국 근대 창작동화 형성 과정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8-9쪽.

3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7, 탐구당문화사, 2001, 103-105쪽.

40)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교육정책은 네 차례 개정된 '조선교육령' 시행기에 맞추어 구분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1.8.22~1922.2.4,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22.2.4~1938.3.3,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38.3.3~1943.4.1, 제4차 '조선교육령'은 1943.4.1~1945.8.15에 시행되었다. 일제가 식민지교육의 기본정책을 각 시기의 특성에 맞추어 '조선교육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정재철, 「일본식민지주의교육에 관한 사회사상사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81, 227쪽.)

41) 김남선, 「일제의 대한 식민지교육정책-무단통치기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38-39쪽.

1911년에 발표된 사립학교령을 고쳐 1915년 적극적인 통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정 사립학교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의 일본어 통달의 의무화, 사립학교의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바꾸고, 반일 독립사상을 고무하는 교원을 교단에서 추방·체포하였으며 사립학교는 당국의 인가 없이는 설립하지 못하고 교과과정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교과서는 총독부가 편찬하거나 검정을 맡은 것 이외는 쓸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목적과 일본어 보급을 통한 제국신민의 양성을 사립학교에서도 강제로 시켰다.

42) 김남선, 위의 논문, 42쪽.

학교의 설치와 교육내용을 총독부가 통제하였다. 또한 일반관리나 교원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고 다니게 함으로 한국인들을 억압해 나갔다. 민족교육이 급속히 약화되고, 식민지 노예교육이 시작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 있어서 교육정책의 기본방침은 시세(時勢)와 민도(民度)<sup>43)</sup>에 적합한 ‘충량한 일본 제국신민’을 육성하는데 있었다. 모국어 대신 일본어를 가르치고 보급하려는 것은 황국신민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을 뜻하며 고급교육보다는 실업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순종적인 피식민지인을 양성하려 한 것이다.

일제는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보통교육은 지능의 계발을 도모하는 것보다, 제국신민으로서의 국민성의 함양과 일본어의 보급을 성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였다.<sup>44)</sup> 이들 모두 기초적이고 실업에 관련된 교육을 양성하는 곳이었지 전문지식을 높이는 교육기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일본어가 공식적인 표준어가 되었고 한국어와 한자는 한 과목으로 통합되었고 일본어 시간이 한국어 교육시간보다 많았다. 그리고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학습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그들의 언어를 주입시킴과 함께 우리의 언어와 역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거나 폐지해버렸다.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였고 수업연한은 5·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

---

서당규칙을 공포하여 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민족 교육을 탄압하였다. 서당의 생도수와 교과서를 제한함으로써 지금까지 사립학교규칙을 모면하면서 실제 학교를 운영하던 서당을 그 생도수를 30명으로 제한하여 내용상, 사립학교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한국 역사가 수록되어 있는 ‘동문선습’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서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43) 시세란, 일제의 한반도 수탈체제 유지와 강화를 위해 그들의 명령체계에 순종하는 충량한 신민과 제국주의 경제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간의 육성을 뜻한다. 또 민도란, 제국주의 경제편입 결과 빈궁한 경제생활이 비위생 무교육 등이 민도가 낮은 이유임을 알고 있었으나 일제는 한국인은 고등교육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유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워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보통교육, 실업교육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44) 김재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45쪽.

었고, 지방에 따라 1년을 더 감축하도록 하였고 입학연령을 8살 이상으로 하였다. 중학교가 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된 것은 고등보통학교를 한국인의 최종교육기관으로 삼으려는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시기 학교 제도의 특징은 교육수준을 낮추고 교육연한이 짧으며 대학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불가능하게 한 점이다.<sup>45)</sup>

조선교육령의 공포에 이어 그 해에 소위 조선총독부령으로 보통학교규칙이 공포되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이과, 창가, 체조, 도화 수공, 재봉 및 수예, 농업초보, 상업초보를 수의과목으로 하여 지방의 사정에 따라 과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교과목 중 국어(일본어)는 매주 10시간이 배당되고 조선어라 하는 우리의 말은 한문과 합쳐서 매주 6시간이 배당되었다. 교과목명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지만 모국어보다 외국어인 일본어를 두 배 이상 배우게 한 것은 국권을 잃은 설움을 실감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교수용어는 조선어 및 한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역시 당대 민중들의 숨통을 조이는 일제의 제도적 간섭이라 할 것이다.

일제는 당대에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그들의 일본을 문명개화한 나라로 가르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신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문명개화’란 바로 서구 열강의 논리와 가치관에 입각해 자기를 철저히 개변하려고 하는 자기 식민지화인 것이다. 일본의 자기 식민지화는 ‘부국강병’을 하고 생산력 경제력 군사력을 서구 열강 못지않게 하여 외교적으로 대등하게 되면서, 바로 아시아의 주변 지역을 침략하여 제국주의적 식민주의를 전개한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sup>46)</sup> 이러한 모습은 한국을 철저히 식민화 하려는 그들의 숨겨진 야욕을

---

45)김명진, 「조선교육령을 통해 본 일제 식민지교육정책」, 건국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5, 9-10쪽.

46)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70쪽.

감지할 수 있다. 백척간두에 선 민중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또 한국은 일본에 의해 비교되며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었다. 또 일제에 의해 조정되는 교육기관도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

한일합방 후의 보통학교 교육에 한국인의 태도는 한말 애국계몽기의 실력양성운동과 향학열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한일합방으로 인한 충격과 저항은 일제가 주도하는 공교육체계에 대한 태도로 표명되었다. 1910년대의 경우 보통학교에 대한 기피, 일제의 학생 강제모집, 이를 담당한 '순사'에 대한 기피 현상과 함께 서당 증가로 특징 지워진다. 3.1운동 이후 초등교육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보통학교 지향적이 되었다. 1918년 이른바 '삼면 일교제'정책이 시작되고 3.1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한국 민중의 긍정적 관점이 형성되면서 1920년대 초반 보통학교가 급속한 팽창을 보이면 1923년부터 보통학교 학생이 서당의 학생 수보다 많아진다.<sup>47)</sup> 이 시기부터 보통학교 중심체제가 확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제하의 교육을 문맹률과 취학률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다. 1910년대의 보통학교 취학률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다.<sup>48)</sup> 이것은 초기 학교 교육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취학률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취학률은 성별 차이, 지방별 차이, 도농별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지방별로는 경기도와 평안남도, 함경북도 등에서 지역별로 도시가 취학률이 높았다. 이러한 문맹률과 취학률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한다. 전근대사회에서 교육과 문자해득은 소수 특권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다. 이제 대다수 민중들이 문자해득과 취학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지적능력 획득은

---

47) 김진균·정근식 편저, 앞의 책, 81쪽.

48) 1920년대 초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24년 보통학교 취학률 14.7%, 이후 정체하여 1932년 17.8%, 1938년 33.2%, 1942년 47.7%, 1945년 해방되는 시점에서 취학률이 50% 전후였다.

물론이거니와 평등한 사회로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대적 학교의 초기모습은 그 자체가 카오스의 세계처럼 혼란스러웠다.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식 속에서 민중들은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제는 총량한 제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라는 제도 아래 학생들에게 ‘근대적 생활과 가치, 문물의 발달과 용법을 설명하면서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생활 전반을 개선하고자 했고 궁극적으로 제국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고자’<sup>49)</sup>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은 근대적 학교교육을 받아들였고, 일제는 황국신민화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을 사용되었다. 역으로 제도화된 학교교육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에 굴하지 않고 일어서려는 민족교육열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일어났다. 학교라는 제도화된 교육제도와 기관을 서구와 일제에 의해 받아들였지만 대세적으로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역사의 장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 해외유학을 하고 돌아온 신진 지식층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교육을 통해 애국계몽과 실력향상을 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신진 지식층은 민중들을 이끌 매체가 필요했다. 주지하다시피 잡지나 신문과 같은 매체는 대중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신진 지식층이 민중들에게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상을 제대로 꿰뚫을 수 있도록 돕는 세상보기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제도화 된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그 제도에 길들여지는 민중들은 또 다른 지식의 갈급함이 있었고, 이를 위해 대중매체인 신문과 잡지의 탄생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신문과 잡지에는 학교의 교과서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도 수록되었지만 무엇보다 매체를 통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었던 더 다양한 근대적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일제의 검열을 피해 우회적으로 소개된 서구의 인물이나 역사, 정치, 경제 등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급선무였던

49) 강진호, 「근대 교육의 정착과 피식민지 주체」, 『식민지 근대의 내면과 매체표상』, 깊은샘, 2006, 170쪽.

민족계몽과 민족의식 함양, 실력양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매체 역시 이러한 민족의 거시적인 목적을 거스르지 않았고 신진 지식층에 의해 적극 활용되었다. 학교 교육제도의 성립은 아동 매체의 필요를 부추기게 되었다. 제도권 교육에서 할 수 없었던 민족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바로 아동매체의 또 다른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 매체가 아동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아동을 위한 독서물과 다양한 코너로 편집되어 있지만 역시 당대가 당면한 자주독립과 민족계몽에 주력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아동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므로 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을 계몽할 근대 교육이 등장하고 또 교과서 이외의 계몽 내용을 담은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 아동문학의 배경

지금까지 언급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아동 매체가 출현하게 된 배경도 무척 중요하다. 아동 매체의 출현은 곧 초기 한국 아동문학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아동문학도 당대의 현실과 궤를 같이한다. 이 역시 신진 지식층에 의해 기획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족의 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상정된 대상인 아동을 위해 전력질주를 감행했다. 아동과 아동문학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1) 아동운동의 고양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자 국내·외 정세도 복잡하게 되었다. 일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무단통치 시대에서 서서히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언론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소년(아동)운동, 여성운동, 종교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이 나타났다. 그 중 소년(아동)운동<sup>50)</sup>은 소년을 대상으로 벌이는 활동으로, 그 당시 다른 운동의 성격과 비슷하게 민족적 측면과 애국적 측면, 계몽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운동은 이 모든 성격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의 성격을 가진 운동이었다. 무엇보다 유교적 의식에 젖어 폄하되었던 계층인 소년(아동)을 그 대상으로 전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년』지는 그 대상을 ‘소년’에 치중하였고,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에서는 본격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실상 아동보다는 소년의 개념이 더 모호하게 쓰이고 있었다.

조선사회는 독특하고 복잡한 연령발달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사람 또는 젊은 사람들은 ‘幼, 童, 兒, 童蒙, 兒孩, 少年, 少’등으로 표기되었으며, ‘아동’이나 ‘청년’이라는 말은 간헐적인 사용 예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근대기에 들어서이다. 연령계급은 크게 ‘노소(老少)’로 구분되었다. 생물학적 나이로서는 15세가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연령이었지만, 관례, 혼례, 입학 등의 통과례에 따라 성인으로 인정받는 연령은 개인에 따라 달랐다. 관례를 치렀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성인의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관례는 점차 혼인에 앞서 거행되어 실제로는 혼인연령이 중요했는데, 국초로부터 법률상 기혼연령은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였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고 조혼이 성행하였다. 결국 관례와 혼례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전에 행해졌다. 8세부터는 「소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입학’ 연령부터의 어린 사람을 가리켜 특별히 ‘동몽’이라고 불렀다. 관례를

50)일반적으로 소년운동의 대상은 지금의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과 청년층에 이르는 개념이다. 때문에 아동운동도 소년운동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치렀다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대우를 받았지만 학문상으로는 아직 ‘동몽’이며, 13세가 되어 ‘성동(成童)’되더라도 학문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였다. 또한 형사법상에 있어서는 15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보았으며 이들에 대한 형사상의 보호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형사법상 미성년자 보호개념은 국초로부터 조선후기까지 이어졌다.<sup>51)</sup> 이렇게 조선사회는 ‘아동’과 ‘청년’이란 개념이 모호하고 복잡하게 사용되었다.

‘소년’이란 용어는 조선시대부터 성인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소년’은 애국계몽기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주체성보다는 계몽성을 강조한 개념이었다. ‘소년’이 일제의 개념 범주를 복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강탈당한 식민지적 조건에서는 적합성을 획득하기 어려웠다. ‘소년’의 사용자들은 주장하는 바의 효과와 시대적 상황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의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었지만 계몽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시급성 때문에 내용의 전달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를 담보하는 존재로 설정된 ‘소년’은 논리상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새로운 용어의 출현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sup>52)</sup> 일본에서 청년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출된 것”<sup>53)</sup>이라 한다. 청년은 구시대를 대표하던 ‘장사’의 대립항으로 설정된 개념이며 그들의 핵심은 교육이었다. 그에 따라 ‘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연회의 개최와 잡지 발간이 잇따랐고, 이러한 움직임은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애국계몽기에는 ‘소년’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소년’은 소년 외에 청소년층과 청년층을 포괄한 광의의 개념이었다.<sup>54)</sup> 그 당시 소년은 지금의 소년의 범위와는 간극을 보인다. 초등학교 연령부터 중·고등학교(만 20세까지)까지의 연령층을 소년이라 이르는 것에 비하면 그 당시의 ‘소년’

51)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32-33쪽.

52) 최명표, 『아동문학의 옛길과 새길 사이에서』, 청동거울, 2007, 17쪽.

53)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 48쪽.

54) 최명표, 위의 책, 16쪽.

은 청·장년층까지를 포함한 개념이었다. 오히려 오늘날보다 교화시킬 소년의 대상 폭을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5)</sup> 이렇게 ‘소년’의 개념이 근대화 과정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탓이 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진 지식층은 교화의 대상인 소년들에게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근대사상은 물론이거니와 신문화 전달을 하려고 노력했다.

김정희는 그의 논문에서 한국소년운동사의 시대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1〉한국소년운동사 시대구분

시 기	기 간
제1기: 소년인식계몽기	1860.4-1905.11
제2기: 소년운동역량축적기	1905.11-1919.3
제3기: 근대소년운동발생기	1919.3-1923.4
제4기: 근대소년운동전성기	1923.5-1930.5
제5기: 근대소년운동수난기	1930.5-1937.9
제6기: 지하소년운동기	1937.9-1945.8

즉 1860년 4월 소년애호사상이 함축된 최제우의 <동학>에서부터 1905년 11월 주권이 사실상 상실된 을사조약체결까지를 제1기, 1905년 11월부터 1919년 민족의 합성이 천지를 진동한 3·1운동까지를 제2기, 1919년 3월부터 <조선운동협회>가 조직될 때까지의 근대소년운동발생기를 제3기, 제1회 어린이날 연합기념행사에서부터 좌우분리통합을 거듭하며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전개된 1930년 8회 어린이날까지를 제4기, 제5기는 좌익 반대와 일제의 강압 속에 어린이날기념행사가 명맥만 유지되다가 마침내 소년단체가 해산된 1937년 9월까지로, 이하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전시체제 속에서

55)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까지 아동이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13세 미만을 어린이, 소년법에는 20세 미만을 소년, 청소년기본법에는 9-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다. 여하튼 21세기 초반 지금도 20세 전후 시기를 소년이라고 하고 있다. 각 입장과 법에 따라 다소 연령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문학에서 말하는 ‘소년’은 초등학교까지의 아동을 말하고 중학교부터 20세 미만까지는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광복 때까지의 암흑기를 제 6기로 분류하였다.<sup>56)</sup> 본 논의의 시기는 1910년 대인 제2기에 해당된다.

김정의의 시대구분만 보더라도 19세기 말부터 소년운동이 태동,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 화두가 된 계층은 ‘소년’이었다. 그래서 소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고 그 대상으로 삼은 소년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발동했던 것이다. 즉 근대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성장하는 소년이야말로 적절한 대상이라 인식했고, 민족을 위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부푼 기대와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소년을 존중해야 한다는 ‘소년 존중사상’으로 이어졌다. 『소년』지만 보면 소년운동으로 국한시킬 수 있으나 1910년대에 출현한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을 보면 소년보다는 연령층이 낮은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지 소년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많은 논문들이 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은 객관적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교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아동매체이다. 소년이나 아동은 근대와 함께 탄생한 개념이고 이들도 내용의 난이도나 수준 등은 달랐지만 민족계몽과 민족의식을 고취한다는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근본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년과 아동운동을 함께 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동(소년)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소년)존중운동이다. 아동(소년) 존중사상은 일찍이 천도교의 기본사상과 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제우는 1859년 경주 용담정에서 수도, 그리스도교적 영향과 유불선의 장점을 융합하여 ‘시천주(侍天主)’의 사상을 핵심으로 한 인내천의 교리를

---

56)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221-222쪽.

완성,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의 교리는 3단계의 발전과정을 겪었다. 교주인 최제우 단계에서는 ‘시천주’사상, 2대 교주인 최시형 단계에서는 ‘사인여천(事人如天)’, 그리고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한 천도교 단계에서는 ‘인내천(人乃天)’사상으로 변화되었다. ‘인내천’으로 대표되는 동학의 인간관 안에서는 “인심은 곧 천심이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는 인내천 사상은 철저한 사·농·공·상의 사민평등(四民平等)의 사상이었다. 바로 이러한 인내천의 평등주의 사상으로부터 근대적 아동관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sup>57)</sup>

천도교는 내세에서가 아니라 현세에서의 지상천국 건설을 최고 이상으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관적으로는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여 정신개벽을 이루고 객관적으로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 인간성 본연의 윤리적 사회를 이룩하여 세계의 신앙을 통일, 세계를 하나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대명제로 삼고 있다. 내세가 아닌 현세를 위한 종교라는 것은 그 당시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려는 목적과 잘 부합된다. 또 인간의 귀천이나 계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사상은 아동(소년) 존중과도 맞닿아 있다.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은 『내수도문』을 공포하는데 그 중 제4항 “일절 모든 사람을 한울로 인정하라. 손이 오거든 한울님이 오셨다 하고 어린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울님을 치는 것이니라”는 동학의 아동존중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58)</sup> 그 동안 아동(소년)에 대해 무관심하고 학대하는 성인들의 자세에서 벗어나 존중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천도교의 사상을 더욱 심화시켜서 아동문화운동을 벌인 1920년대 방정환에 가면 그 확실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1910년대에도 이미 그러한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변화는 근대적 의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유와 평화, 존중을 지향

57) 김현철, 앞의 논문, 18쪽.

58) 김현철, 위의 논문, 19쪽.

하는 민주주의와 상통하기도 한다. 이후 근대사회가 자유와 평등, 인간존중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볼 때 소년의 존중사상은 이러한 밑거름이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소년)존중관은 아동(소년)을 존중하는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소년)을 주축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변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렇게 인간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아동(소년)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천도교의 아동존중 운동은 근대 아동문학의 출현에 적잖은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소년)교도 운동을 들 수 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밖으로는 외세의 충격에, 안으로는 체제개혁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외세에 대한 투쟁과 새로운 근대문화의 수립이 이 시기에 주요 사안이었던 만큼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이루려는 애국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필연적으로 근대적 지식과 문물을 무한히 수용할 수 있다고 설정된 아동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제도권 속으로 들어온 아동을 대상으로 시대적 부름을 받은 당대의 매체들은 아동(소년)을 교도하기 시작했다. 신진 지식층은 아동(소년)들을 신문과 잡지의 특징을 살린 계몽적인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도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소년 교도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신진 지식층이 되는 길은 신식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권력 지배층과 명문 출신들도 근대적 지식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어 양반, 관료의 자제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초기 유학생은 신분 배경이 대단히 낮았지만 말기에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대략 양반, 중인, 상민출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sup>59)</sup> 이러한 선진 문물을 먼저 접한 신진 지식층에 의해 신문과 잡지들이

59)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26-28쪽.

재일 유학생 중 그들의 출신지가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의 43.6%로서 가장 많고 그 밖에는 평안도가 전체의 43.6%로서 다른 도에 비해 월등히 많다. 나머지 경상도는 8.3%, 충청도는 6.9%, 황해도는 5.2%, 함경도는 3.7%, 강원도는 1.0%의 순서로 되어 있다. 평안도와 경기도 출신이 근대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말의 새로운 관료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종래에 관료 세력의 중심적 총원 지방이었던 영남과 충청 지방은 점차 퇴조되고

발행되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주도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다른 잡지나 신문들은 아동과 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신진 지식층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던 내외정세에 직접 가담해서 자유와 민권옹호를 주창하는 근대적 계몽성과 민족자주를 위한 국권신장에 앞장섰다. 1910년대 한일합방이란 민족의 치욕 앞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1910년대 대표적 종합잡지라고 할 수 있는 『소년』의 내용만 보더라도 교화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大韓으로 하야곰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라 하면 能히 이 責任을 勘當하도록 그를 敎導하여라.<sup>60)</sup>

잡지에서 밝힌 간행취지를 보면 소년의 교화에 있다는 것에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잡지의 실질적인 발행인이며 편집자였던 최남선도 신진 지식층의 선두에 선 사람이었고, 소년에 의해 조국이 우뚝 서기를 바라는 거대한 포부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매호마다 이러한 간행취지문을 계속 게재했다는 것은 편집인과 독자 모두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잡지 구성과 내용 곳곳에 편집인의 의도가 숨어있고 오히려 오늘의 잣대로 보면 지나칠 만큼 철저히 교화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지역적이거나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독자참여란도 있으나 그 양을 대조해보면 교화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합잡지인 『소년』을 통해 소년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

한국 지식인들은 신분제 붕괴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관료와 정치 지배층, 대자본가의 경우 신분제의 붕괴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형편이었다. 고급 관료는 물론 대부분 문벌 집안에서 나왔고 권력 지배층 또한 대부분 근대화된 성향을 지녔으면서도 출신 배경은 문벌 집안이었다. 경찰과 학교의 직원 및 학생, 신문사, 은행 직원 등 어느 신분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직업에도 양반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60) 발행취지문, 『소년』, (제1년제1권), 1908.11.1, 3쪽.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선두로 그 뒤를 이은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이란 1910년대의 잡지들도 선대 잡지의 후광을 입고 잡지의 성격에 따라 아동을 교화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운동은 민족운동인 3·1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동(소년)을 교화할 더 많은 잡지가 필요했기에 더 많은 잡지가 간행되었고 후에 더 심화된 아동(소년)운동으로 이어져갔다.

어떤 새로운 것이 탄생할 때는 그 이전에 분명한 이유와 요인이 있기 마련이다.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근대 초기에 민중들의 의식이 변화되었다. 우리 스스로 맞이하게 된 근대화가 아니었고, 외세에 의해 열린 근대와 일제 침탈이라는 거대한 해파(海波)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묻혀있던 ‘아동과 소년’을 불러냈고, 이들에게 중요한 목적을 부여했다. 그 결과 유교적 세계관에 가려져 있던 아동과 소년을 존중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빠진 민족을 구해내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이야 말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한 신진 지식층들은 이들을 교화하려는 의욕을 강하게 발현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교화할 대상을 폭넓게 수용하고 교화할 내용을 찾아 전할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즉 아동(소년)을 존중하고 아동(소년)을 교도하려는 운동이 아동 매체를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독자와 지식층이 소통할 수 있는 잡지나 신문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신진 지식층은 독자와 밀착해서 잡지 속에 근대적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었고, 독자들은 그것을 수용하므로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애국애족의 정신을 각인시키게 되었다. 아동운동은 아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아동 매체를 통해서 당대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다.

## 2) 아동문단의 형성-최남선과 이광수

한국의 근대 초기는 '아동문단'이란 말을 꺼내기 힘들 정도로 그 상황이 열악했다. 카오스의 세계처럼 혼돈과 무질서가 계속 되는 당시의 상황처럼 아동문단 역시 초라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재철은 안국선의 신소설인 『금수회의록』을 한국 최초의 만화체 아동소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수회의소에 모인 길짐승·날짐승·벌레·물고기·풀·나무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대부분의 신소설이 권선징악만을 정공법으로 그린데 반하여, 『이솝우화』처럼 짐승세계를 통해 인간을 풍자한 것으로 발표 당시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금서소동까지 빚어낸 점, 한국판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처럼 동화나 아동소설로 개작될 수 있는 신소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학의 근대적 전개에서 볼 수 있는 창가와 신소설의 흐름은 그대로 육당의 신체시(정형동시)와 춘원의 초기소설(아동소설)을 낳는 단단한 과도기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sup>61)</sup>고 주장한다. 안국선의 작품은 이솝우화와 견줄 수 있고 동화나 아동소설로 개작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안국선이 쓴 이 작품 말고는 더 이상 아동문학에 가까운 것도 없었고 아동잡지에 발표된 것도 없다. 그의 작품이 아동문학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볼 수 있었지만 일회적으로 끝났고 아동문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한국 아동문단을 형성하는 작가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초기 아동문단에는 최남선을 중심축으로 이광수, 홍명희, 김여제가 미흡하나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중 한국 아동문단을 이끌던 핵심 인물로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다.<sup>62)</sup> 아동문학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문단이나 전문적

61)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96(1983초판), 49쪽.

62) 최남선과 이광수를 말할 때 친일문제가 걸린다. 그러나 친일을 문제 삼아서 두 사람을 제외시킨다

인 작가군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다. 1910년대 한국문단에 ‘2인 문단시대’를 주도하던 최남선과 이광수가 아동문단 역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남선은 잡지 발행뿐만 아니라 잡지에 게재된 거의 전 장르에 걸쳐 집필했고 이광수도 아동에 대한 앞선 의식을 가지고 시와 소설 등의 장르를 집필했으므로 아동문단의 작가로 지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최남선의 활약상이 훨씬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광수를 빼놓고 1910년대 아동문단과 아동문학을 논하기는 어렵다. 근대 초기 최남선과 이광수가 아동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문단을 위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망해보도록 하겠다.

#### (1) 최남선: 신문관 창설과 아동물 출판

최남선<sup>63)</sup>이 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관을 창설하기까지는 그에게 영향을 준 사건들이 있었다. 신문관의 창설은 단순히 하나의 출판사 창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아동문학 산실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첫째, 최남선은 두 번째 유학 때 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편집실무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15세 나이로 일본유학을 떠난 것이 노·일전쟁이 일어난 갑신년이었다. 이때 벌써 「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미일신문」 등에 의분의 글을 투고할 정도였다. 개화논설과 구국에 불타는 시가를 통해서 스스로 애국심을 배양함으로써 강력한 민족주의자요, 사회계몽운동

---

면 근대 초기 아동문학이나 아동문단의 모습을 고찰하기 어렵다. 어떤 역사든 후대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친일 문제에 천착하게 되면 논문이 의도한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아동잡지에 집중했던 1910년대의 정황과 그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기로 하겠다.

63) 최남선의 아명은 창흥(昌興)이고 자는 공육, 호는 육당, 세례명은 베드로이다. 그는 이름이 많은 문인 중 한 사람이었는데 육당학인, 공육자, 한샘, 남약주인, 대몽생, 대몽최, 인경도인, 축이생, 축한생, 백운향도, 일현각 주인 등의 필명 또는 익명이 있었다. 그가 18개나 되는 이러한 이름을 사용한 배경은 육당 자신이 만든 잡지에 자신이 쓴 여러 글을 실어야 했으므로 자연 익명을 사용했던 이유가 컸다.

가로 성장한 것이다.<sup>64)</sup> 최남선은 두 차례 일본유학을 통하여 근대의 실상을 목격하고 귀국했다. 첫 번째 유학은 동료 유학생들의 평판 나쁜 행동거지에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자책하고 3개월 만에 귀국하고 말았으나 1907년 3월 역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뜻을 다시 세우고 두 번째 유학을 결행하였다.<sup>65)</sup> 또 그는 와세다 대학 고사부 지리역사과 재학 시절 유학생회보인 <대한유학생회학보>(1907.3-5)의 편집원이 되면서부터였다. 이 회보의 관련란에 ‘편집인 최남선’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최남선이 편집을 전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남선이 『소년』지 발간 이전에 편집의 지식과 기술적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 및 축적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 잡지에 실린 글을 보면 자연과학분야와 시론 등을 썼고 Ns生, 崔生이라 밝힌 글도 최남선이 썼으리라 짐작되는데 기고내용 및 편집내용으로 보아 『소년』지의 박물학적 성격이 여러 모로 예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보는 1907년 3, 4, 5월 총 3회에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는 6월 와세다생 주최 학생모의국회 논제가 ‘조선병탄(朝鮮併呑)’에 관한 ‘朝鮮王 來朝に關する件’으로 이는 독립국 한국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 하여 육당을 주동으로 한 在 와세다대 유학생 70여 명이 맹휴(盟休), 총 자퇴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영향력이 있는 지인을 만난 일이다. 일본체류기간 동안 최남선은 벽초 홍명희와 춘원 이광수를 만나게 되었다. 특히 최남선에게 있어 안창호를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큰 인물이었다. 그가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와 그 대응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하던 중 안창호가 주장하는 국권회복정신을 이어 받게 되었다. 그는 안창호의 계몽사상을 출판문화운동으로 진일보하기에 이른다.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해 그의 애국심을 더욱 심화시키고 아울러 그 일환으로 출판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64) 김노연, 「최남선의 사회교육 사상과 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5쪽.

65) 조용만, 「육당 최남선」, 정음사, 1975, 54-64쪽.

구체화되었다.

셋째는 유학시절 일본의 출판상황을 직접 보고 느낀 바가 컸다. 당시 일본에는 대교신태랑(大橋新太郎)이 출판사 박문관을 경영하면서 일본출판물의 대부분을 독점 출판하였다. 『태양』 지를 비롯한 여러 잡지를 발행하여 일본신문화운동을 일으켰고 대교도서관까지 설립하였다. 최남선은 이 도서관을 다니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최남선이 유학할 당시 일본의 출판문화는 명치시대<sup>66)</sup> 중기로서 저자를 중심으로 한 계몽시대를 벗어나 출판기업으로서의 확립기와 대형서점이 급증하던 시대가 전개된 즈음이었다.

출판계의 동향은 첫째, 잡지의 전성시대를 구가하여 잡지의 대량생산시대의 조짐을 보일 만큼 잡지 출판이 성행하였다. 명치 10년대 후반기 즉 1880년대 중반 무렵 전문 잡지가 속속 출현함으로써 잡지부흥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청·일, 러·일 양 전쟁을 치른 이후 명치 말기에는 잡지출판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둘째, 개화기의 선구적 저서나 계몽적 번역서 시대를 벗어나 보다 진보된 학술 전문서적 및 시대를 반영하는 출판물로 발전하였다. 박문관, 민우사 등을 비롯한 출판사에서는 양서 출판에 주력하였다. 셋째, 실록 등의 출판, 신체시의 등장, 번역문학의 전기를 맞는 등 신구시대의 문예물 위주 출판으로부터 본격 문예물 출판 시대가 전개되어 신체시 및 시가집, 미문집, 그리고 번역문학이 성하였다. 당시 일본 청년독자층은 자국의 문학보다 외국문학에 더 관심을 가져 외국작품의 번역물이 성행하였다. 이 가운데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톨스토이의 번역작품이었다.<sup>67)</sup> 넷째, 명치시대 전기 즉 개화기에 성했던 사전류 출판은 이 무렵의 특성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66) 명치시대(明治時代)는 1868년 9월 8일의 명치개원부터 1912년 7월 30일, 명치천황의 죽음으로 황태자(뒤에 대정천황이 될 사람)가 천왕 직을 물려받고 大正이라고 개원한 때까지를 가리킨다.

67) 조용만, 「우리나라 신문학의 초창기에 있어서 일본 및 서구문학의 영향」, 『아세아연구』 제46호, 1972.6. 130-131쪽.

이러한 일본 출판계의 동향은 명치시대 전기의 특성과 우리나라 근대 초기의 출판상황이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귀국 후 최남선에 의해 설립된 신문관을 중심으로 계몽서적이거나 번역문학, 신체시, 또 톨스토이의 문학을 소개하고 간행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일본에서의 경험과 일본 출판문화가 그대로 유입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명치시대 중기의 특성이 최남선의 귀국 이후의 출판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설명해주는 자료이다.

특히 최남선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문관이란 출판사에 대하여 언급해보면, 잡지전성시대가 도래한 명치 20년대에 처녀출판으로 『일본대가논집』(1887.6.창간)를 내놓아 1887-1889년 동안 배출된 200종 이상의 정치잡지 가운데 단연 최고봉을 차지함으로써 잡지출판의 성공으로부터 출판사로서의 물질 토대를 완전히 이뤄 장차 일본 출판계를 장악한 출판사였다.

한편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적 증대에 따라 출판기업도 활기를 띠고 출판물의 대량생산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무렵 광범한 독자층을 예상한 것이 부인 대상 잡지 및 소·청년 대상 잡지였다. 1906년을 전후하여 발행한 박문관의 『유년화보』와 『소년세계』, 『소녀세계』 그리고 실업지 일보사의 『일본소년』(1906)과 『소녀지우』(1908)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으며 근 20-30년간 속간되었다.<sup>68)</sup>

유학시절 일본의 출판상황을 보고 들은 경험을 가지고 그가 직접적으로 출판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위의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남선이 일본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귀국하자 출판사를 만들고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잡지들을 중심으로 저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얻어 동경에서 가장 큰 인쇄시설을 갖춘 수영사에서 활판인쇄기와 철조기, 자모기 등 인쇄시설을 구입하는 한편 일본인 인쇄

68)김정숙, 「출판인 최남선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33-34쪽.

기술자까지 데리고 1907년 겨울 귀국하였다.<sup>69)</sup> 상리동 본가의 건너편 아버지의 한약방 자리에 사무실과 편집실을 갖추고 결재에 공장을 설비하기 위해 개축하여 1908년 여름에 신문관이라 명명하였다.

당시 신문관의 대표 겸 편집인, 인쇄인 등 대외책임자는 모두 최남선의 형인 최창선으로 되어 있고, 최남선은 편집인이라는 편의상의 직함만으로 제작출판을 도맡았다. 최남선은 단행본 및 잡지 편집뿐 아니라 인쇄에 쓸 용지, 잉크, 그 밖의 여러 물품을 사들여오는 일부터 책이 나오면 책사에 넘겨주는 일까지 도맡아 출판사의 사장에서부터 편집자, 집필가, 인쇄감독, 광고담당, 영업서기, 사환에 이르기까지의 일인 다역을 해냈다. 그가 사원을 고용한 것은 4년 후인 1912년 이광수의 제자인 김여제를 추천받아 『붉은 겨고리』 지를 낼 때였는데 이듬해 이 잡지의 폐간과 더불어 김여제를 일본 유학시킴으로써<sup>70)</sup> 사원고용 기록으로는 유일하였다. 이광수가 원고를 약간 거들었고 교정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렸을 뿐 편집, 체제, 광고문 등 대부분의 실무를 혼자서 해냄으로써 일인체제로 출판사를 운영하였다. 단 최남선이 유학시절 동경에서 가장 큰 인쇄소인 수영사에서 견습했던 경험을 토대로 인쇄공들을 가르쳤으며 바쁠 때면 식자, 조판, 주자에 이르기까지 직접 나섰다는 기록과 1919년 최남선이 작성한 삼일독립선언문의 조판을 담당한 김여제가 신문관에 조판과장이라는 기록에 따라 인쇄기술자는 처음부터 고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실제로 육당의 차남인 용헌 최한웅의 회고록 『용헌잡기』(1986)에 의하면 신문관에 유창현, 김형설을 비롯한 문선·식자·기계·제책기술자들이 있었다고 한다.<sup>71)</sup> 신문관의 출판물은 활자들의 각 호수를 고루 갖추었으며 타출판물에 비해 인쇄효과가 높은 편이었으므로 우리의 근대인쇄기술은 배재학당 인쇄소와 함께 신문관의 활약이 대단했던

---

69) 조용만, 앞의 책, 63쪽.

70) 조용만, '30년대의 문화계', 『중앙일보』, 1984.11.24.

71) 최한웅, 『용헌잡기』, 동명사, 1986, 59쪽.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최남선은 신문관을 창설하고 그곳을 통해 민족을 위한 많은 기획들을 펼쳐나갔다. 신문관의 설립취지 역시 그 시대의 대명제인 민족정신 고취와 계몽에 있었다.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무지몽매한 아동(소년)들을 계몽하려면 무엇보다 일정 부분 지식수준을 향상시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민족의 위기를 맞아 사상의 빈곤에 허덕이는 민중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운동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이렇게 신문관은 출판문화를 주름잡는 한국 신문화운동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의 저술과 출판활동은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민족의 독립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선정한 대상인 아동에 대한 저술과 출판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는 단행본과 잡지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치중하였는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출판열의가 대단하였는데 그가 창간 잡지 7종 가운데 5종이 신문관 발간본이었으며 자신의 저서 7종을 포함한 단행본 총 56종 가운데 53종이 신문관시절에 출판되었다. 조선광문회 활동을 병행하였던 시기였음을 감안해볼 때 그의 출판활동이 얼마만큼 왕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sup>72)</sup>

그의 저술활동 역시 시대적인 사건이나 배경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근대적 정치개혁을 의도하였던 갑신정변이나 갑오경장도 내실에는 정치적 파당과 청일의 미묘한 배경이 작용하여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는가하면, 청·일전쟁(1894)과 노·일전쟁(1904)에서 승리한 일본의 일방적 강요로 인하여 성립된 한일협상조약(1905), 정미칠조약(1907), 을유각서(1909), 한일합방조약(1910) 등이 차례로 체결됨으로써 국권이 상실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시대적 배경은 그의 사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곧 그의 저술활동과 직결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

72) 김정숙, 앞의 논문, 38쪽.

초에 서학사상<sup>73)</sup>, 동학사상, 개화교육사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그가 살았던 사회적 배경과 이미 주류를 이루었던 사상들과 무관하지 않았고 그런 풍토 위에 그의 가치관과 사상을 정립하고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최남선은 일찍이 박학다식한 인물로 다 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중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을 저술하는데 그의 네 가지 사상을 집약시켰다.

첫째, 문화주의 사상에 입각한 저술활동이다. 그는 “인생의 본의를 바로 깨달아 문화전승의 천직을 수행하면 이는 의의와 가치 있는 생활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공연히 살다가 공연히 없어지는 보람 없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74)</sup> 라고 확고히 밝히고 있다. 그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곧 학문이며, 또다시 학문은 문자를 배우거나 서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문화를 고차원화 하여 후인에게 전수하여 가르치는 것이라 했다<sup>75)</sup>. 이러한 주장은 문화주의가 국가와 민족을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학문이 바르면 문화가 일어나서 그러한 국가와 사회는 역사상에 빛나며 그렇지 못한 나라와 백성은 존재의 의의를 잃는 것이다.”<sup>76)</sup> 라고 하는 주장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문화가 한 나라와 민족을 좌지우지할 만큼 막중한 책임과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학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의미를 갖는 학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는 발전

---

73) 서학은 천주교를 포함한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학적용어로 규정한다. 서학이 끼친 영향이 지대한데, 기독교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표방하고 현실사회에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박애와 평등의 평화 세계를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주교와 서양의 과학사상은 종교와 과학은 이질적이지만 당시 학자들은 종교마저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74) 최남선, 「권학문:학문의 근본정신」, 『최남선 전집 10』, 현암사, 1972, 254쪽.

75) 김노연, 앞의 논문, 24쪽.

76) 최남선, 앞의 책, 255쪽.

시킬 수 있으나 여기서 그는 올바르게 학문하는 길만이 최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정신 계발에 합당한 학문 또는 교육 풍토가 조성될 때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잡지 『소년』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칼럼들에서 발견된다.

둘째, 민족주의 사상에 입각한 저술활동이다. 민족이 함께 겪는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남선은 남다르게 민족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유학생활동을 하였고 그 기간 중에 보고 느낀 신학과 신문명을 몸소 체험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애국심과 발현하여 조국의 운명을 바로잡을 새 사상과 새 인간상의 필요를 자각하게 된다. 한마디로 집약하면 ‘개화한 문명 인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을 향한 강력한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배양시켜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약관이 못된 나이에 신문관을 창설해서 그 기관을 통해 지식의 보급과 문화운동을 일으켰다. 또 조선광문회를 창설해서 민족정신 배양에 유익한 민족적 고전을 간행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선양 보급하는 것은 자주독립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 춘원 이광수가 “육당의 사명은 조선주의를 부르짖고 조선 정신을 부활시키는데 있었고, 장래에도 그곳에 그의 사명이 있을 것이다”<sup>77)</sup>라고 지적한 것처럼 최남선은 오직 민족정신 계발을 개화의 중요한 목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최남선은 한국의 개화기 교육 사상가로 인정받고 있는 서재필, 박은식, 안창호, 이승훈, 남궁억 등과는 거의 20년 가까운 연령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화 신문이나 개화단체, 개화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전개한 구국적 민족 교육 정신을 조선 정신으로 구체화하여 논설, 논문, 창가, 신체

---

77)이광수, 「육당 최남선」, 『조선문단』, 1925, 214쪽.

시, 시조, 역사, 지리 등의 연구물 속에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sup>78)</sup> 특히 민족주의 사상과 관련된 저술활동은 남다르다. 아동잡지에 집필한 세계 각국의 역사와 위인담 등을 통해서도 민족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의 잡지에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소년』 지 같은 경우는 잡지 전체가 민족주의와 계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셋째, 세계주의 사상에 입각한 저술활동이다. 그가 주장한 민족주의 사상만큼이나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세계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정신을 지키되 넓은 세계를 향한 포부와 또 그를 위해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근대정신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大局은 眼前에 개전 하얏도다.(중략) 此等事는 다 우리로 하여곰 世界的 智識의 收得을 시급히 催促하는 者라. 어평 세계적 智識이 업시는 新聞一片을 분명히 閱讀 할 수 없이 된 吾人이 어찌 이를 收得하기에 毫末이라도 等閑이 하리요.<sup>79)</sup>

위의 인용문은 세계 지식의 필요성을 언급한 글이다. 서구의 문물과 지식이 한국 사회에 전파되어 깊이 영향을 주었다.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를 일으킨 서구의 문명과 지식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주독립을 앞당기는 길이라 여겼다. 단순히 세계의 문물과 지식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세계 속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 즉 세계 속의 우리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머물지 말고 무지몽매한 상황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주안점이다. 세계

78) 김노연, 앞의 논문, 26-27쪽.

79) 최남선, 『소년』 (제2년제5권), 1909.5.1, 4쪽.

를 보는 정확한 잣대와 기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세계 속의 우리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석과 실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강국으로 올라 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발간한 『소년』을 통해 세계주의에 부합된 작품이나 논설,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세계 곳곳의 화보와 세계적 위인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아 게재했던 것은 세계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한 예로 「소년시언」이란 코너에서 〈여러분은 뜻을 엮더케 세우시려오〉를 보면 나폴레옹, 프랑스, 유럽과, 아메리카, 뿌릿텐, 스페인, 한니썰, 로오마의 역사와 정신이 게재되어 있다. 이것은 소년들에게 세계를 향한 큰 뜻을 세우기 바라는 의도일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작품 곳곳에 그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문학으로 대표되는 번역·번안동화, 우화는 1910년대 그가 발간한 아동잡지와 아동신문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아동들에게 좌정관천(坐井觀天)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세계를 향한 큰 포부를 가지라는 의도에서 세계주의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실용주의 사상에 입각한 저술활동이다. 일상생활이나 교육에서 실용적인 실업교육을 중요시 했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상이라 할 것이다. 최남선이 활동하던 시대의 개화 사상가들 역시 실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박은식 선생은 실업교육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실업학자만이 민족을 살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간의 경쟁에서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교육에 기초한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업 교육이 필요하다”<sup>80)</sup> 고 강조하고 있다. 또 “누가 능히 우리나라를 구하며, 누가 능히 우리 민족을 살릴 者인가 그는 實業學者가 그로다.”<sup>81)</sup> 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국가간의 경제력을 생각해 볼 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80) 『박은식전서』 하권, 서북학회월보(제1권 제7호), 1908, 35쪽.

81) 위의 책, 35쪽.

한 실업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권 회복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실업학자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서 실용주의나 과학기술에 대한 언급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최남선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체화되어 실용적인 실업교육에 앞장서게 되었다. 최남선의 그의 잡지를 통해 그가 강조하려는 바를 널리 알리고자 했다. 한 예로 「소년독본」이란 코너에서 근대 문화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近世의 文化는 實로 工藝가 爲主니 그런故로 이 世上을 工藝進歩時節 이라 함도 可하오. 그러나 우리가 近世의 文化를 생각할때에 아울러 생각티아니티 못할것이 잇스니 그것은 곧 近世文化的 原動力인 石炭과 鐵이오.”<sup>82)</sup>

근세의 문화를 공예가 좌우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 산업개발에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석탄과 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려면 기계 기술의 발달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아동매체 전체를 통해 서구의 근대 과학과 실업교육에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므로 해서 지속적인 실천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저술과 출판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는 역동적인 인물이었다. 굳이 출판활동은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저술활동에서 보여준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이다. 왜냐하면 신문관을 통해 출간된 잡지나 단행본이 그것을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문학과 관련된 번역문학인 『자랑의 단추』, 『허풍선이모험기답』, 『불쌍한 동무』, 『검둥의 설음』이란 작품은 신문관에서 발행하였는데, 발행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잡지를 대대적으로 광고까

82) 최남선, 『소년』(제1권제1권), 1908.11.1, 48쪽.

지 하고 있다.

그가 창설한 신문관은 근대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문단과 아동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근대 초기 아동 매체는 편안한 시대 아동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볼거리가 아니었다. 우리 민족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안을 걸고 독자와 소통하려는 중요한 통로였던 것이다. 대명제인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을 계몽하려는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사실상 『소년』 지에 제일 강하게 드러난다. 이후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에서는 일제의 검열 때문에 좀 약화되고 우회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또 최남선은 선대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그 사상을 수용하고 내면화 시켰다. 이렇게 다져진 사상을 기반으로 아동 매체의 저술활동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그는 그의 잡지를 통해서 소개된 작품과 기사로 하여금 아동 독자들의 의식을 새롭게 바꾸고 독자 스스로 민족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 (2) 이광수: 아동문학 소개와 창작활동

최남선이 먼저 민족 계몽의 의지를 가지고 아동 매체를 발간하여 활동을 개진하였다. 이광수는 아동 매체에 집필과 편집, 기획에 차차 관여하면서 나름대로 일조하였다.

춘원은 아동 매체에 외국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직접 창작까지 하여 발표하였다. 그가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데는 아동에 대한 남다른 선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부장적인 유교제도와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에 대해 통쾌히 반기를 들고 나선다.<sup>83)</sup> 이것은 단순히 유교

83) 그는 아동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유교제도 전반의 문제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그의 논설인 「조혼의 악습」(1916), 「혼인에 대한 관견」(1917), 「혼인론」(1917), 「소아를 어찌 대접할까」(1918)를 통해서도 결혼의 문제점, 새로운 결혼관, 여성존중 사상, 아동존중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으로 볼 때, 춘원이 어느 대상만을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를 상대로 그 동안

제도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개진하려 한 것이다. 제도권 속에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받지 못하고 상하 관계에 있는 것과 부조(父祖) 중심의 가족관계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춘원은 가부장적 전통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녀 중심의 새 시대 윤리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부부관계, 남녀관계에서 조성되는 남존여비의 관념을 비판하고 여성 해방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춘원이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이미 수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父母가 生存하는 동안에는 子女에게는 아무런 自由가 없고 마치 全權軍主의 國民과 같이 父母의 任意대로 처리할 奴隸나 加축과 다름이 없었다.<sup>84)</sup>

인간의 권리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한 자녀들의 권리나 권한은 늘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을 존중하는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육당도 서학과 동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인본적 평등주의를 수용하였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더 천착한 나머지 그의 사상이나 의식이 그 속에 잠식되어 버린 결과를 낳았다. 이와는 달리 춘원은 먼저 가부장제도의 모순과 횡포를 고발하고 자녀, 즉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진 의식을 가지고 그의 사상을 민중들에게 피력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財產(精神的이나 物質的)의 全部를 우리와 우리 子孫을 爲하

---

가지고 있던 의식과 가치관을 계몽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84) 이광수, 「자녀중심론」,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2, 491쪽.

여서만 使用하여야겠고, 必要하거든 祖先의 墳墓도 헐고 父母의 血肉도 우리의 糧食을 삼아야 겠다.<sup>85)</sup>

이 글은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극단적인 주장이었다. 유교의 효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서 아동을 존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까지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효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조부 중심에서 과감히 자녀 중심의 길로 돌아서자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종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나니 자녀를 나눌때에도 「내 종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양육할 때에도, 교육할 때에도, 그가 사회에 나설 때나, 성공할 때에도 「내 종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끈치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금일에는 족이라 하면 역사와 언어를 갖히 하는 전민족을 가르친다.<sup>86)</sup>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제 자식을 ‘내 종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라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식, 즉 아동을 한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자녀중심론」에서 ‘天下의 中心은 自己요’라고 하는 주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가 역설한 주장을 직설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억압적인 봉건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려던 자세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자유와 평등의식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특히 아동에 대한 그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

85)이광수, 위의 책, 46쪽.

86)이광수, 「자녀중심론」, 『청춘』, 1918, 14쪽.

춘원이 가지고 있던 근대의식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즉 해방을 뜻한다. 특히 아동의 해방에 대한 언급은 무척 선구적인 발상이다. 또 생물학까지 들춰가며 자녀는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하고 부조(父祖)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분신이나 소유로 생각해왔던 전통사회의 가족관과 봉건제도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또 부모는 ‘명령’의 방식으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또 자식들은 ‘복종’의 방식을 아무런 고민 없이 따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부모는 자식(아동)이 자발적으로 배움이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 한편으로 이광수의 이러한 주장들이 당대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측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악습에 시달려온 그 사회에서는 오히려 한 발 앞선 근대의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논설인 「자녀중심론」(1910)을 요약하면,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며 자유롭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춘원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히 아동에 대한 의식을 간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부모를 대상으로 계몽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아동들의 교육과 깊게 연관된 것이다. 그는 유교사회에서 벗어나 근대사회로 돌입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의식을 계몽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동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갔다. 『새별』잡지 이후 1918년 발표한 「소아를 어찌 대접할까」란 글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아동의 인격을 존중할 것과 성인이 아동들을 대할 때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우는 아이를 어를 때, “준다”라고

했다가 주지 않거나 “저기 범 온다”고 오지도 않는 범을 들먹인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아이의 상태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잘 살펴서 알아줘야 한다. 셋째,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넷째는 아이들과 겸상을 할 것이며, 다섯째로는 죽은 아이를 대충 누더기에 싸서 아무데나 파묻지 말아야 한다.<sup>87)</sup>

그는 ‘소아’ 즉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과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평등의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작성된 이 글은 아동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실천하려했던 방정환의 1920년대 글보다 앞선 것이다. 이광수나 방정환 역시 천도교의 ‘아이는 곧 하느님’이란 의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1910년대 잡지 이후에도 그가 남긴 작품과 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의식을 심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인 문단시대를 주도하던 1910년대 작가인 이광수<sup>88)</sup>가 최남선의 권유로 아동잡지에 글을 게재했다는 점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해서 최남선의 실적에 비하면 이광수의 실적은 다소 초라한 감이 있다. 그러나 아동문단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꺼이 참여하여 서구의 아동문학을 소개하고 직접 아동문학 작품을 남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당시 잡지의 필진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아동문학가도 부재했기 때문에 일반문학 작가들이 아동잡지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문학 작가들이 대거 아동문학의 필진으로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다. 잡지의 대부분이 최남선이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홍명희와 김여제 정도의 이름을 더 확인할 수 있다. “1908년에는 톨스토이 소설에 심취해 있었고 홍명희에게서 최남선을 소개받게 되었다. 1911년 오산학교 시절

87) 「소아를 어찌 대접할까」, 『여자계』 제3호, 1918.9.

88) 이광수의 호는 춘원(春園)·장백산인(長白山人)·고주(孤舟)·외배·올보리 등이었는데 아동매체에 글을 게재할 때 이 호를 가지고 필명으로 사용하였다.

방학 때 최남선의 집에 머물며 잡지 편집 일을 도왔다.”<sup>89)</sup>는 기록이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광수도 처음 시작은 주변 문인들의 권유와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관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잡지를 발간한 초반부에는 참여가 저조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역시 육당과 마찬가지로 1910년대 잡지에 그의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고, 외국 작품도 소개하였다. 『소년』에 시와 번역소설을, 『새별』에 시 ‘말 듣거라’와 그의 창작동화 「내소와 개」를 발표하였다. 또 같은 잡지에 안테르센의 동화인 「황제의 새옷」(원작: 별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처녀」(원작: 성냥팔이 소녀)를 소개하였다. 그 밖에 잡지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 신문관에서 1913년 스토우(Stowe, H. E. B.) 부인의 「검둥이의 설움」을 초역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미국의 노예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내용의 작품은 당시 신진 지식층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노예들과 동병상련의 길에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매우 동감되는 부분이었으므로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년』에 게재된 번역소설 「어린 희생」(제3년제2-5권)도 러시아 소수민족의 전쟁 이야기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내용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상흔에서 인간들은 과연 무엇을 얻을까? 라는 물음을 주는 소설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원죄를 느낀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가 번역한 소설이나 동화는 모두 우리 민족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작품을 선별하였다. 그가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항하고 비판했지만 그도 그 사회 속에 존재하므로 민족에 대한 애정은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사회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민족의 선구자로 선 사람이라면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춘원 역시 민족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민족의 교육적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설명하고 폭 넓은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

89) 이광수, 서영채 편집, 『무정』, 글누림, 2007, 486쪽.(이광수 작가연보)

나 그가 말하는 민족주의<sup>90)</sup>는 우리 민족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세계주의나 박애주의까지 손을 뻗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새별』에는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다. 그전까지 그림형제의 동화를 주로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안데르센의 동화가 다수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그가 서구의 동화와 작가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다양한 작가를 소개하므로 해서 독자들에게 문학의 즐거움과 세계주의 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또 그의 창작동화로 「내소와 개」란 작품은 오산학교 제자인 서춘군이 당한 실제의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이광수 씨와의 교담록」<sup>91)</sup>에서 밝히고 있다. 주인공의 소와 개가 목숨을 구해준다는 내용인데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동화의 환상적 요소로 재미를 창출하기보다는 사실성이 더 부각된 아동소설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아직 동화와 아동소설의 장르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채 산문 형태로 발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서사가 있는 동화를 창작했다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저술활동을 통해 분명한 것은 그가 아동문학가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아동문학 저술활동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구 못지않은 아동에 대한 선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춘원은 『소년』을 비롯한 아동잡지에 필명으로 시, 소설, 번역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창작과 외국 문학 소개에 힘쓰고 있었다. 특히 『새별』에 심혈을 기울여서 편집과 기획에까지 참여하였다. 1910년대 이후 잡지에서 이광수의 작품이 더 적극적으로 발표된 점으로 보아 일반문학 못지않게 아동문학에

90) 민족주의에 대한 춘원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류구제의 단위가 반드시 혈통적 민족은 아니더라도 지리적 단위로 해야 한다.

둘째, 세계주의나 박애주의를 칭찬하고 그 사상 감정이 더욱 짙어져야 하겠지만 그와 꼭 같이 각 민족의 문화의 다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류가 불안에 빠진다고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의 생활원리나 생활방식을 연구하고 제대로 실현해서 몸소 표본이 되는 것이 우리민족의 사명이다.

91) 『삼천리』, 1933.9.

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남선은 일제가 무단통치를 감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문관을 창설하였다는 것은 한국 아동 매체는 물론, 아동문학에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출판사를 통해서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단행본들이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아동 매체를 통해 아동문학을 발표하고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당대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계몽하는 통로로 활용하였다. 최남선은 초기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의 기획과 편집, 인쇄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을 주관하였다. 이광수도 지인의 소개로 아동 매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참여도가 낮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뿌리 깊은 유교적 사관에 반기를 들고 아동을 진정으로 존중할 것을 성인(부모)들에게 촉구하였다. 즉 부모, 자식 간의 상하관계였던 것을 평등하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감행했다. 이밖에도 아동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살피고 그 나름대로 새로운 아동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선진의식은 독자 계몽은 물론이고 그가 집필하고 기획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그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새별』에서 단적으로 보여준다. 군더더기 없는 구성과 천도교 정신, 민족의식, 민주주의, 세계주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 창작동화를 발표한 점과 안데르센 동화까지 손을 뻗친 점이 그러한 영향이다. 이광수도 최남선과 더불어 초기 아동문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며 그 나름대로 아동문학 창작과 기획에 일조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Ⅲ. 아동 매체의 구성 원리와 특성

1910년대는 모든 면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중 아동 매체도 마찬가지다. 먼저 초기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은 현재의 아동문학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당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들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미흡함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다.

1910년대 아동 매체는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붉은 저고리』<sup>92)</sup>만 제외하고는 모두 잡지이다. 이 시기를 대표할만한 아동 매체로는 1908년 11월부터 1911년 5월까지 발행된 『소년』지가 있었다. 최초의 한국 아동신문인 『붉은 저고리』는 191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행되었는데 총 18면 분량, 월 2회씩 발간되었다. 『붉은 저고리』가 폐간된 지 석 달 만에 1913년 9월부터 1914년 8월까지 발행된 『아이들 보이』는 12호까지, 『새별』은 1913년 9월부터 1915년 1월까지 16호를 발간했다.<sup>93)</sup> 대부분 일반 문예잡지, 학회나 단체의 기관지의 성격을 띤 잡지 중에 이 네 종류의 잡지와 신문은 아동문학의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sup>94)</sup>

일단 본격적인 1910년대 잡지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잡지에 대해 알아보

92) 1913년 1월 1일 창간하여 1913년 6월 1일까지 1일, 15일 월 두 차례 발간되었다. 지금까지 통설처럼 12호까지 발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호까지 발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아동신문이지만 거의 구성과 편집은 아동잡지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매일 매일 나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나 15일에 한 번 씩 발간된 것을 신문으로 보기에 현재의 잣대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발행자는 최창선, 편집자는 김여제(이광수의 제자), 인쇄 및 발행소는 신문관이었고 가격은 2전이였다.

93) 1910년대 대표 아동잡지에 관한 연구이므로 그 전과 그 후의 시기 잡지는 여기서 선정하지 않았다. 다만 1908년부터 1911년까지 발행되었던 『소년』은 1910년대에 걸쳐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이 잡지는 근대적 아동잡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잡지사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94) 『소년』은 사실상 잡지 내용을 놓고 볼 때 순수하게 전체를 아동문학 잡지라고는 할 수 없다. 소년과 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분히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 한편으로 이 잡지를 제외할 수 없는 원인으로 우화를 비롯한 몇 장르와 전달 방식에서 아동문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른 잡지들은 공통적으로 그 대상을 아동으로 잡고 있다.

고 그 당시 잡지가 대략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잡지란, “발행자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재료, 즉 논문, 기사, 사진, 회화 등을 구성하고 수집하고 배치 또는 배열하여 종합 표현하여 제책한 것을 동일한 제호아래 정기적으로 발행한 책”<sup>95)</sup>이라 한다.

1910년대 아동 매체 역시 다양한 문학 장르나 논문, 기사, 사진 등을 재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한 출판물이었다. 현재나 1910년대 잡지가 갖는 정의는 별다른 차이점 없이 출발하고 있다.

먼저 한국 잡지는 출발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국민의 개명진보를 위한 계몽적 성격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자주 독립을 수호하려는 민족주의 사상이었다. 아동잡지나 아동신문도 이와 똑같은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출발한다.

한국에서 잡지가 발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1883년을 정부기구 박문국이 일본에서 인쇄시설을 들여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sup>96)</sup> 박문국의 혁신적인 인쇄시설 도입은 한국으로 하여금 단행본 출판은 물론, 잡지 발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 이 두 신문은 계몽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화의 선두에서 외세와 맞서 부국강병을 내건 민족언론이었다. 초기 언론은 이러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일제치하에 들어서자 곧바로 일제의 탄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10년대 무단정치시기를 맞아 한국 잡지제도 암흑기를 맞는다. 근대적 성격을 띤 아동잡지는 19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1910년대 와서 최남선

95) 오춘근, 『한국출판사대요』, 청림출판사, 1987, 295쪽.

잡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개론-하』, 세영사, 1976, 246쪽.

미국 시리큐스대학교 신문학부 잡지과장인 윌스레이는 잡지란, 일반 독서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사, 소설, 시, 사진 등의 잡다한 내용이나 또는 특정한 취미, 관심이나 직업을 가진 집단 및 특정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특수내용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②고연기, 『잡지편집의 이론과 실제』, 보성사, 1984, 58쪽.

잡지란, 일정한 편집방침 아래 편집자가 여러 가지 원고를 수집, 정리, 편집하여 주이상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책자형태의 출판물을 말한다.

96)정보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2, 251쪽.

의 적극적인 잡지발행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언론매체인 잡지도 역시 정치적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고 아동잡지도 이러한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최봉희는 잡지의 시대구분을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이렇게 정리하였다. 개화기시대(1883-1910),암흑기시대(1910-1919),민족주의·사회주의 양립시대(1920-1930),제1차신문잡지시대(1931-1945),재건부흥시대(1946-1963), 제2차 신문잡지시대(1963-현재)로 나누었다.<sup>97)</sup> 논의에 대상인 1910년대 아동잡지가 발행된 시기는 우리 민족의 암흑기인 것이 분명하다. 최봉희가 구분한 시대도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구획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이 발행된 1908년은 개화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

97) 최봉희, 『개화기 잡지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7쪽.

잡지의 시대 구분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있다.

①이종수, 「조선잡지발달사」, 『신동아』 5월호, 1934, 60-64쪽. / 이종수, 「조선잡지발달사」, 『신동아』 6월호, 68-72쪽.

한국의 잡지 기점을 1896년의 『대조선독립협회 회보』로 잡고 있다. 1910년 이전에는 ①1896-1907년: 정치잡지 시대 ②1908-1910년: 계몽잡지 시대로, 1910년 이후에는 ①1910-1919년: 정치적 암흑기, 문예사조 변천사적으로 '제1기 인도주의시대, 낭만적 이상주의 시대, ②1919-1921년: 신경향파 대두 이전, ③1922-1925년: 방향전환 시대 이전, ④1926-1930년: 신간회 해소 이전, ⑤1931년 이후: 신간회 해소 이후로 나눈다. 1910년의 한일병합을 기점으로 나누고 대한제국의 말기에서부터 일제치하까지 정치적 변동과 사상의 변천을 중심으로 세분하였다.

②백정재, 『한국잡지발달사』, 『한국잡지총감』, 한국잡지협회, 1973, 44쪽.

1982년 『코리아 리포지토리』(The Korea Repository)로 잡고 있다. 제1기 한말 개화기(1892-1910), 제2기 무단정치 시대(1910-1919), 제3기 문화정치 시대(1919-1937), 제4기 암흑기 시대(1938-1945), 제5기 혼란과 범람기(1945-1951), 제6기 재건기(1951-1960), 제7기 난숙기 또는 기업으로서의 성장기(1961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③전영균, 『한국출판론』, 대광문화사, 1989, 86쪽.

개화기(1883-1909), 일제기(1910-1944), 광복기(1945-1949), 최근기(1950-1985)로 구분하고 있다.

④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6-8쪽.

구한말(1895.2-1910.8), 무단정치 시대(1910-1919), 문화정치 표방시대(1920-1936):전기(1920-1929), 후기(1930-1936), 신일언론 강요시대(1937-1945.8.15), 독립에의 안간힘시대(1945.8.15.-1950.6.25), 잡지계의 새출발시대(1950.6.25-1960.4)로 구분하였다.

⑤정보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2, 254쪽.

제1기 잡지 문화 이식기(1896년 이전), 제2기 계몽 정론지 시대(1896-1910), 제3기 계몽 종교지 시대(1910-1919), 제4기 민족주의 사회주의 양립시대(1920-1930), 제5기 제1차 신문잡지 시대(1931-1944), 제6기 좌우익 대립 시대(1945-1949), 제7기 재건부흥기(1950-1963), 제8기 제2차 신문잡지 시대(1964-)로 구분하였다.

다. 개화운동은 정치적 개화, 경제적 개화, 교육적 개화를 목적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이 당대의 가장 큰 민족적 과제였다. 즉 근대가 요구하는 신문명, 신지식을 획득하는데 전력 질주한 것이다.

어떤 사회건 간에 그 사회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나 행동방식,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사회와 영향관계 속에 있는 작가, 그것을 공유하고 변형시키는 참여적인 독자 속에서 하나의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 아동 매체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아동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동 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대 아동 매체가 어떻게 편집되어 있고 그 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동 매체의 편집과 구성

1910년대는 개화기부터 계속해서 계몽의 시대였고 실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행보는 궁극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계몽이 필요한 시기였다.

1910년대에도 사회진화론의 논리는 여전히 신지식층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우리 민족이 실력을 기른다면 언젠가는 독립이 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다. 이것은 국내에 남아있던 신지식층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설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실력양성론에 여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sup>98)</sup>

이와 같이 당시 사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 신진 지식층은 실력양성만이

---

98)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34쪽.

민족이 염원하는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야말로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며 독립의 통로가 될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신진 지식층들로 하여금 가능성이 열린 아동 독자층을 대상으로 계몽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동 매체의 구성에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실력을 양성을 위해 계몽적 측면과 흥미적 측면을 적용하였다.

매체가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 잡지나 신문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바에 따라 구성 원리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당시 다른 매체들도 계몽성과 흥미성이란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동 매체는 그것과는 차별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똑같은 주제라도 대상이나 매체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난이도가 생길 수 있고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삼으므로 해서 당대 일반 매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는 꽤를 같이 하지만 그 접근방법이나 내용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현재는 계몽하는 주체가 국가를 비롯한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교육기관 못지않게 초기 선각자들이 만든 언론매체에 의해 주관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동 매체는 교과서의 역할과 공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그들의 국민들에게 원하는 ‘국민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국가가 의도하는 바를 직·간접적으로 관철되기 마련이다. 그런 것처럼 근대 초기에 계몽은 잡지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가 시작하였고, 1911년 9월 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어 근대적 교육이 시작되었다. 일제가 황국신민화를 위해 계몽성을 계획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적용했다면, 아동 매체는 우리 스스로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교육하려는 일환으로 계몽성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같은 계몽이라도 사물의 안과 밖처럼 일제와 한국이 서로 다른 의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매체의 구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당시 매체들이 상정한 독자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소년』지는 표면상 소년을 대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년’의 범주는 지금의 소년과는 분명히 다르다. 지금의 소년은 대부분 아동을 칭하는 연령층을 의미하지만 당시는 그 한계가 사실상 애매모호하다. 근대 이전의 ‘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성가(成家)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한다. 즉 성인이 되기 직전의 단계를 뜻한다. 오늘의 ‘소년’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재철의 경우, 최남선의 ‘소년’이 어린이보다는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라고 본다. 원종찬은 최남선의 ‘소년’이 나이로 보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당시 신문화운동의 주동세력이 그만큼 적은 나이였다는 사실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소년』은 ‘아이·어른’의 문제가 아니라 ‘新·舊’대립의 양상을 반영하는 잡지이며 더욱이 일반 계몽잡지의 성격으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소년’은 ‘노년’과 대비되는 개념어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신문화운동의 담당층으로 상정된 것이라고 파악한다. 즉 당시의 근대운동을 추동한 ‘신’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신세대라는 뜻에 가장 가까운 말이 바로 ‘소년’이라고 주장한다.<sup>99)</sup>

만약 ‘아동’이 하나의 인식틀로서의 ‘풍경’이자 ‘발견대상’이라면 아동을 분석하여 인식하는 것이 청년기의 출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면<sup>100)</sup>, 결국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소년’이나 ‘청춘’은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는 실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시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 시선은 이미 근대적 의식에 의해 형성된 시각이며, 전근대적인 것과는 질적인 전도를 일으킨 시선이다. 따라서 ‘소년’이나 ‘청년’ 혹은 아동

99)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144쪽.

100)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68-170쪽.

모두 실재하는 존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나 ‘소년’에 대한 관념을 논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세를 전후한 ‘소년’은 억압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된 이념적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존재를 규정하는 시선은 근대의 계몽담론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sup>101)</sup>

조은숙은 미성년 관련 어휘들이 20세기 초반만 해도 생물학적 연령의 어느 시기와 정확하게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더욱이 미성년의 발달 단계를 순차적으로 정렬시키는 하나의 동일한 시간 축 위에 정연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소년’, ‘청년’, ‘어린이’ 등 미성년에 대한 대표적인 어휘들은 단순히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숙의 어느 한 단계를 지시하는 안정적인 용어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 미성년에 대한 어휘는 사회적 인식과 전략의 실천 단위로서 서로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했으며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sup>102)</sup>고 결론짓고 있다.

각각의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소년’은 전근대와 근대가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생물학적인 연령을 분할한 주장도 있고 아예 생물학적 연령에 국한시키지 않고 근대 계몽담론과 연관 지은 주장도 있었다. ‘소년’ 역시 근대와 함께 태동한 개념이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 ‘소년’은 현재의 생물학적 연령이나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연령과도 차이가 난다. 굳이 대상을 지금의 잣대로 보자면 『소년』의 ‘소년’은 미성년, 즉 청소년과 청년의 개념과 가깝다.

1900년대 ‘소년’을 일컬을 때 젊은 층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년’과 ‘청년’이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되고 다른 연령층과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이후에 가면 분리현상이 더욱 일반화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층 아래 ‘소년’, ‘아동’, ‘어린이’ 등의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되

101)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56-57쪽.

102)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28쪽.

게 되었다.

「대한매일신보」에도 ‘청년’과 ‘소년’이 구분 없이 쓰이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청년은 국가의 희망”<sup>103)</sup>이라던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교육 두 글자를 잊지 말아서 국민의 정신을 차리게 하며 청년의 지식을 발달케 함이 가”<sup>104)</sup>하다와 같은 기사에서 ‘청년’은 ‘소년’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된다. ‘소년’을 이상적인 존재로 설정해놓고 청년의 속성에 소년의 이미지도 함께 담고 있다. 소년을 교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했고 이와 대등하게 소년을 국권을 회복시켜줄 존재로 설정했기 때문에 작고 힘없는 아동의 이미지의 소년이 아닌, 패기 넘치는 청년의 이미지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과 청년의 이미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년』 지에 실린 대부분의 글을 보면 현재의 아동 연령층의 소년이라기보다는 그보다 연상인 청년층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天下에 至極히 어려운 일이 許多하다 그런데 青年다운青年되난것도 그 中의 한아이다. 웃더하면 名實이 具備한 青年이 될고? 우리가 이 問題에 對하여 여러 가지로 對答 할말이 잇스나 얼는 알어듯기쉬웁게 말하자면 일(工夫) 할 때에는 일을잘하고, 놀때에는 놀기잘하고, 먹기 잘하고, 사하기 잘하고, 前途의 希望만 洋洋히 바다갓코 向上의 誠心만 翼翼히 불갓하서 나는 한새라도 하난 것업시 지내지 아니할것이오. 한가지라도 義理에 버서나지 아니하난 것만 하갓다함은 青年의 資格中 가장 重要한 것일지오”<sup>105)</sup>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제 ‘소년’이란 호칭 대신 ‘청년’이란 호칭이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다. 참다운 청년은 나태하지도 말고 의리를 찾아 성심껏 행

103) 『대한매일신보』, 1909.6.29.

104) 『대한매일신보』, 1909.1.14.

105) 최남선, 『소년』(제2년제8권), 1909.9.1, 11쪽.

동하며 열심히 공부에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글이다. 타의에 의존하지 말고 무엇이든 자력으로 노력하라는 내용에서 육당의 근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잡지에 게재된 글 중들에게 이와 같이 ‘청년’이란 명칭을 사용해서 쓴 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 지에 「소년시언」, 「소년사전」, 「소년독본」의 내용을 보면 미래 소년상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장치들을 적용하고 있지만, 어린 소년을 위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어린 소년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고, 청소년이나 청년층은 직접 당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층 소년에 대한 현실 자각과 확대된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쾌소년세계주유시보」, 「해상대한사」, 「북극탐색사」는 아동을 위한 글이라기보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글에 가깝다. 「청년학우회보」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잡지를 통해서 전국의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자세한 소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성인에 준하는 청년의 활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리교실」, 「한문교실」, 「화학교실」과 같은 교과에 해당하는 코너는 어린 소년층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매우 전문적이어서 어린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년’과 ‘청년’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잡지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쪽이 더 가깝다. 이러한 혼돈된 용어의 사용은 그 당대의 모습, 즉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최남선이 그 뒤에 발행한 『청춘』을 보면 ‘청년’과 ‘청춘’에 대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준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소년’을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꼭 시간을 분할하는 발달단계 선상에 있는 생물학적 개념이라기보다 계몽담론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무단통치시대는 일제의 가혹한 검열로 많은 서적들이 소각되었고 신문과

서적도 대부분 반포 금지나 압수당하기가 일수였다. 최남선의 『소년』이 1911년 5월 통권 23호로 폐간되었고, 이후 1913년 가까스로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붉은 저고리』를 1월에 창간한다. 그러나 『붉은 저고리』에 오면 『소년』과 비교해서 독자 대상의 연령대가 매우 낮아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소년』과 『붉은 저고리』의 독자의 차이는 1900년대 후반 근대적 미성년 담론의 구심 역할을 하던 ‘소년’이 일제의 강점 이후에는 그 전략적 기능을 현저하게 상실한다는 사정과도 연관된다. 1910년대의 아동에 대한 계몽 활동은 전대의 소년에 대한 것과는 달리 ‘국가’를 매개로 한 열정이 노골화될 수 없었으며 강력한 선동의 힘을 상실한 채 근대 제도 속에 침잠되어 나타났다. 『붉은 저고리』가 기획될 수 있었던 것은, 아동용 정기간행물은 신문지법 등 각종 출판악법에 의해 제약받고 있었던 당시 상대적으로 감시와 탄압이 적었던 분야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다는 자명한 명분을 걸었으므로 아동용 간행물은 다른 출판물에 비해 비정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sup>106)</sup> 이러한 사회적인 제반 배경에 의해서 아동물에 관심을 돌렸다는 것이 요점이지만 이것이 아동문학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계몽과 흥미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초기 잡지인 『소년』은 대상의 폭이 매우 넓었다고 한다면, 『붉은 저고리』는 어린 연령층에 적절하게 적합한 내용으로 새롭게 재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로소 현재 만날 수 있는 아동의 연령까지 낮아진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유치원이나 저학년 연령의 독자가 읽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창간호에 이 아동신문의 내용과 편집원리를 통해서 대상이 달라졌음을

106) 조은숙, 「1910년대 아동신문 ‘붉은 저고리’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03.8, 109-111쪽 참조.

간파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즈미 잇고 교훈 되는 이약이’, ‘힝실 배흠에 유조흔 말슴’, ‘의사 늘고 소견 터질 작란감’, ‘동서양 유명한 사람의 힝적’, ‘맛 잇고 쫓 잇는 시와 노래’, ‘본보기 될만한 그림과 글’, ‘이 밧게 모든 공부와 힝실에 유조흔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달방식도 아동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쉬운 글로 쓰고 정흔 그림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7항목이 이미 이 아동신문의 내용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아동을 독자로 확정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 신문은 무슨 즈미가 잇는가

이 신문은 아희들 보이기 위햐야 내는것임으로 어른이 보시면 넘어 맛 업시 생각되실 것도 만홀지오. 또 어른이 보시기에 허탄하고 쓸디 업는것 갖치 생각 되실것도 업지 아니홀줄 아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의 즈미 잇고 업슴은 여러분이 어린 아희가 되어서 생각하실것이오 유조흔고 못흠은 보논 아희의 뒷일을 보아 말슴하실것이니 이 녁량을 하시고 평론하실것은 평론 하시고 닐너주실 것은 닐너 주옵소서<sup>107)</sup>

창간호에서 앞으로 신문에 볼 수 있는 재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소년』의 독자층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지가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겨냥했다면, 이 신문은 ‘아희들 보이기 위햐야 내는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에게는 재미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라는 점과 잡지를 보고 평가해달라는 점만 보더라도 아동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보이』와 『새별』도 『붉은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아동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성에 부

107) 『붉은 저고리』(제1년제1호), 1913.1.1.(창간호).

합된 다채로운 내용으로 엮고 있다. 『붉은 저고리』와 비교해도 그 대상 연령층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뿐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매체의 대상이 『소년』과 이후 잡지와 신문에서 상정한 대상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에 들어가려 한다. 이제 아동 매체 속에 아동문학과 관련된 것과 아동 매체의 특성을 살린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려한다. 또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고찰해 볼 것이다.

### 1) 순국문체의 수용과 보급

1910년대의 국문 표현의 문체는 주로 문자학습과 표기상의 편이성 문제였다. 무엇보다 문자 표현의 문체는 근본적인 사회·역사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말과 글이 다른 언문불일치를 경험하며 지냈지만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한문표기가 지식과 지배권력층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근대화를 통해서 한문과 기존의 지식들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치부됨에 따라 근대 지식과 문명을 소개할 수 있는 쉬운 문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배계층만 독점되었던 지식을 ‘전국에 남녀로소와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는 것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표기수단으로 국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최초의 국한문체를 사용했던 유길준이 서구 열강의 문물을 충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은 “온 나라 사람들-상하·귀천·부인·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저들의 형편을 알”<sup>108)</sup>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지식이 일부 계층의 독점물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것이라는

108) 유길준, 허정진 옮김, 『서유견문』 머리말, 한양출판, 1995, 20쪽.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신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계몽적 인쇄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당시에 통용되던 국문은 표현형식상의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순한글을 사용한 표현과 한자와 한글을 섞은 표현이 공존하고 있었고, 국한문을 혼용한 표현도 한문에 한글로 현토를 단 정도에 불과한 것에서부터 국문 문법대로 하되 한자 표기를 버릴 수 없다는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표현방법으로 순국문체를 선택할 것인가, 국한문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지향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문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식을 보급할 대상과 표현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일신문』, 『태국신문』 등이 서구식 교육을 받은 소수의 신지식층은 물론 ‘상하귀천 구분 없이’ 모든 대중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여 국가를 문명부강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반면, 국한문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은 당시 관료층과 전통적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위기에 대해 체념상태에 빠져 있던 그들을 계몽하겠다는 의도로 발간되었다.<sup>109)</sup> 이러한 차이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실 변화의 주체인 국민을 어떤 계층 중심으로 해서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체와 그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구성할 이념 내용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오랜 동안 한문표기(학술과 논리적인 영역)와 한글 표기(소설과 시조, 가사 등의 정서적 표현영역)의 영역이 엄격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표기 방법의 차이는 곧 양식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체의 통일은 이러한 모든 문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곳에 그 절충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국한문체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광수는 다음 세 가지로

---

109)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독자 편에서도 한문현토체보다 이해하기 쉬워서 널리 읽힐 것이며 그 결과 국문에 익숙해져서 국문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 둘째, 저자 편에서 보자면 저작을 하기가 쉬워지고 사상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상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다는 점, 셋째, 국가의 차원에서는 국문의 세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것 등이다.<sup>110)</sup> 당시 지식인들은 문체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흔적과 논란이 심각했던 것을 잘 보여준다. 국한문체보다 국문체는 더 일반 민중들과 한 발가깝게 근접한 것이다. 국한문체로도 이광수는 여러 장점을 나열하고 있는데, 순국문체는 더 말할 것 없이 대다수 민중들을 위한 것이다.

아동 매체에서 문체는 아동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문체는 아동이 매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근본 매개체이다.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한 문체는 아동이 아동 매체를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된다는 의미도 된다. 아동 매체에 대한 근접도를 높이는 것이 편집자나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문체의 실행은 당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효용적 측면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얼마後에 이반이 精神을 차려서본즉 녀해 까부리엘은 업고 다만 四面이 환하야 宛然히 白晝와 갓흙으로 놀나서 돌아다본즉 自己의 집이 한참타오.

『애! 애!』

이반이 소리껏 불으면서 날어서라도 발이 듯지를아니하오.

집이 탄다, 탄다, 부난바람에 불스길은 점점 사나워간다.

얼마後에 만흔 사람이 모여들어서 쓰라하얏스나 웃더케 손 델 수가 업소.<sup>111)</sup>

110)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앞의 책, 41쪽.

111) 「너의 이웃」, 『소년』(제3권제9호), 1910.12.15, 34쪽.

『소년』에 발표된 톨스토이 소설인 「너의 니웃」은 서술형 종결어미 ‘-소’, ‘-오’가 낫설 뿐 근대 단편소설의 문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사와 지문을 정확히 분리한 점, 행바꾸기, 직접인용부호(『』), 마침표(.), 쉼표(,), 띄어쓰기와 단락나누기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국문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자사용이 자제된 문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근대식 번역문학을 통해 일어난 이러한 시도는 1910년대 단편을 비롯한 향후 한국 근대소설의 문체를 선취하고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아동 매체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보이』, 『새별』에 나타난 문체는 아동문학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온다. 국한문체를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년』보다는 훨씬 순국문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①맛 짜님은,

『저는 단 쓸처럼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둘째 짜님은

『저는 제일 고은 옷처럼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하얏습니다.<sup>112)</sup>

②무쇠가

『나는 요전 짜흠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인디 임검님의 디접이 하도 박혀기로 틈을 타 안갑흠을 흐자닌디 자네 우리 동무가 되지 아니흐려나』 흐니 그 사람들이 크게 깃거흐야

『그리흐세 조역흐야 봄세』<sup>113)</sup>

112) 「짜님의 간곳」, 『붉은 저고리』(제1년제1호), 1913.1.1, 3쪽.

113) 「날낸이 여섯」, 『아이들보이』(제3호), 1913.11.5, 2쪽.

③그 處女는

『아아 來日은 서을 名節이로구나』 하고 생각 하였다.

두 집 사이에 한 편집이 그 이웃집 편으로 쏙 나온 목장이가 잇스매 그 處女가 그 곳을 밭을 모으고 안져 보았다.<sup>114)</sup>

①,②,③ 작품에서 발견되듯이 한자가 거의 없는 순국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한자 사용 시에는 누구나 숙지하고 있는 정도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 공통적으로 행바꾸기와 띄어쓰기, 단락나누기, 구두점, 대사와 지문나누기 등이 지켜지고 있었다. 아직 문체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동화에서 현재와 같은 '-다'체나 '-습니다'체가 출현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서 사용된 순국문체는 아동들의 이해를 돕고 문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국한문체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을 볼 수 있다.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아동 매체의 다른 코너에서도 순국문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①훈족 지남이가

『한눈을 파지아니 ㅎ얏스면 엇더케 남의 한눈 판것을 보앗습닛가』  
하얏습니다<sup>115)</sup>

②누의 동생 한아식

- ㄱ 『너는 형테가 몇사람이나』
- ㄴ 『나는 십형제인데 모다 누의 동생 한아식을 다렸다』
- ㄱ 『그래 그러면 모도으면 스프 남매구나 참 형테복 대단ㅎ다』
- ㄴ 『아니 열한 남미다……』<sup>116)</sup>

114) 「성냥팔이 처녀」, 『새별』(제16호), 1915.1.5, 7쪽.

115) 「우슴거리」, 『붉은 저고리』(제1년제1호), 1913.1.1, 7쪽.

### ③가방장수

『여보시오 가방 한아 사시오 엄청나게 싸고 귀막히게 조흔 가방이 여기 있습니다』

시골 사람

『그래 그것은 무엇에 쓰는것이오닛가』<sup>117)</sup>

이 코너는 ①,②,③ 아동 매체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아동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우슴거리」란 유머 코너이다.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아동 매체에 흥미를 주는 코너에서도 순국문체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코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띄어쓰기, 단락나누기, 대사와 지문나누기 등을 잘 지키고 있었고 한자가 없는 순국문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어미에 ‘-다’체와 ‘-습니다’체를 이 코너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매체에서 완전히 문체를 정립하거나 맞춤법이 지켜지지 않는 않았지만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코너와 기사들 마다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편집자와 집필자의 일관성 있는 자세라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필자와 편집자들의 문체에 대한 실천에도 불구하고 독자들과의 문체 수용은 아직 멀기만 하다.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상문예’이다. 잡지마다 독자들과의 작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당시 독자의 참여현상<sup>118)</sup>을 보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전 시기의 독자는 계몽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쇄매체에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116) 「우슴거리」, 『아이들보이』 (제11호), 1914.7.5, 21쪽.

117) 「우슴거리」, 『새별』 (제16호), 1915.1.5, 28쪽.

118) 아동잡지 외에 『매일신보』의 「현상모집」, 『신문제』의 「현상과제」·「독자통신」, 『청춘』의 「현상문예」 등이 이 시기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너였다. 대개는 작문에 대한 과제를 내주고 그것에 대한 응모작 가운데 우수한 것을 뽑아 게재하고 있다.

이 시기 아동 매체 중에서 『소년』의 「소년문단」과 『아이들보이』의 「상급있는 글쓰내기」<sup>119)</sup>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아이들보이』를 살펴보면 많은 독자들이 응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일상에서 느끼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고석주의 ‘겨울의 늦김’이란 수필이다. 세월이 빠름에 따라 어느덧 다른 계절은 가고 겨울이 온 느낌을 적은 글이다.

流水가흐른것은歲月이라하로밤東風에압시내의버들과뒤동산의桃李花는봄빛을자랑하고處處에나뉘춤과끄소리노래는사람의心神을快樂케하더니어간三妻과엽수가다지내고난대엽는北風이부러落葉이요요하고白운이紛紛하여나무가지마다梨花가滿發한듯四山이銀世界를일우워雪景이더할수업시조흐나바람은살갓치빠르게불고치위가살속을어이난듯이혹독한이때를당하야세상에사람이되어나셔일즉이貯蓄함이업셔나중에제압흘가리지못하면엇지混蟲만하다할수잇르리오이럼으로더蜂蟻之規를보시오春夏兩節에糧食을모화드렸다가三冬을準備하나니조고마한버레도이러하거든허물며사람일가보나연고로우리도貯蓄心을奮發하야智識이며다른것으로일즉準備함이잇서야다른날뉘우침이업슬지라어린이는반드시이틀생각할지로다<sup>120)</sup>

투고자가 겨울의 느낌을 묘사하면서 겨울이 오면 벌레들도 겨울차비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저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글쓰기에서도 계몽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좀 식상한 면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보면 투고자가 국한문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띄어쓰기나 단락나누기, 구두점 사용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지방에서 응모하고 수상자 명단을 보면 그 당시 매우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집인은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문체에 대한 독

119)시상은 장원 한 명, 둘째 장원 네 명, 셋째 장원 네 명이었고, 한 편의 시만 빼면 아주 짧은 산문이 대부분이다. 『붉은 저고리』는 퀴즈나 게임의 정답을 맞추는 것이 조금 나타나고 『새별』은 현상문예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120)고석주, ‘겨울의 늦김’, 『아이들보이』 (제5호), 1914.1.5, 48쪽.

자들의 인식이 저조했고 작문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30년대로 갈수록 이런 점들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아 차차 순문국체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이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국문체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독자를 배려한 점이 아니라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둔 결과이다. 아동은 소년이나 청년층보다 지적수준이나 경험이 낮기 때문에 더 쉬운 말과 쉬운 글을 필요로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순국문체는 시각적으로나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아동 독자들에게 적합한 문체이다. 특히 외국문학의 경우 집필자도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집필자가 의도한 바를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자신도 글쓰기방식이 쉬워져서 작품 속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집필자나 독자가 거치다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문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국문체는 아동 독자에 대한 배려와 아동문학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년』에서 국한문체를 널리 사용하여 독자들의 폭을 확장하고 이해를 용이하게 했다면,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보이』, 『새별』은 한층 진보된 국문체를 통하여 아동 독자를 끌어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공을 쌓게 했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문학을 아동 독자들에게 더 빨리 전파하고 확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

## 2) 장르의 수용과 소개

아동 매체 속에 구성되어 있는 분야는 무척 다양하다. 문학장르를 비롯해서 아동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아동문학 장르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는 아동 매체를

통해 아동문학이 처음 소개되고 시도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따른다. 또 장르가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장르 구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의 잣대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장르 구분이 가능하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화, 변안동화, 변안소설, 고전소설, 설화, 동시, 창가, 위인담, 칼럼<sup>121)</sup>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아동문학 장르에는 속하지 않는 창가와 고전소설, 칼럼도 다른 장르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창가는 동요로, 고전소설은 전래동화로, 칼럼은 아동문학비평으로 분류되었다. 또 위인담은 현재도 문학장르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위인전’이란 명칭으로 아동 독자를 교육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 분류 속에서 다른 장에서 언급되는 장르는 배제하고 변안소설과 변안동화, 고전소설과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변안소설과 변안동화

독자들에게 새로움은 충분히 흥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 당시 다양한 서구의 문물과 문화가 물밀듯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떤 것은 낯선 이방인처럼, 또 어떤 것은 새로움이 주는 흥미와 즐거움으로 자리 잡아 갔다. 소년들은 흥미로운 변안 소설에, 아동들은 변안동화에 열광하였다. 외국 작가로는 조나단 스위프트, 다니엘 디포<sup>122)</sup>,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빅토르 위고<sup>123)</sup>, 그림형제, 안데르센 등이 소개되었다. 신문관에서 출간한 책들

121)우화와 창가, 칼럼(비평)은 아동문학 장르 인식 장애, 위인담은 민족의식 고취를 논하는 장애 자 세히 밝히고 있다. 이 장르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장애에서는 특별히 더 언급하지는 않고 이러한 장르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로만 기술하기로 한다.

122)영국작가 다니엘디포의 장편소설로 국내에서는 「로빈슨 크로소」로 잘 알려진 작품이다. 『소년』지에 「로빈손무인절도표류기담」으로 제목이 변경되었다. 28년간 무인도에 표류되었다가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특히 모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강한 생명력,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나라를 잃은 사실이 마치 무인도에 표류된 것처럼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게 하고 흡입력 있게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소설이 비참한 현실에서 주저앉는 것으로 끝났다면 독자들에게 외면당했을 것이다.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기지를 발휘해서 잘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많이 있었지만 번역·번안 소설과 동화의 광고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다. 그 중 『소년』에 나온 광고를 보면, 스위프트의 소설 『소인국표류기』와 『썰니버여람기』<sup>124)</sup>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冊은순국문으로 「썰니버旅行記」의상권을번역한것인데,우리의주머니에도 열아문스무나문스식집어너흘만한알사람사난곳에드러가그닌군의사랑을맞고행세 하던이약이라기묘묘한은갓경력이만소.<sup>125)</sup>

이 광고는 단행본으로 출간됨을 알리고 실제 잡지에서 몇 회에 걸쳐 작품을 게재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보이』에도 『자랑의 단추』, 『허풍선이모험기담』, 라미이부인의 『불상흔동무』, 스토우부인의 『검둥의 설음』이란 동화를 광고하였다. 특히 이광수가 번역한 스토우부인의 『검둥의 설음』은 ‘六百萬人을感動한大勢力!!’이란 선전 문구를 이용해서 광고의 기획력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이 책도 몇 호에 걸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작가의 위대함을 극찬하고 있으며, 책에 대한 설명도 매우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스토우 부인의 소설 원작 ‘톰 아저씨의 오두막 (Uncle Tom’s Cabin, 1852)’은 널리 감정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노예제도의 비인간성과 잔혹성을 고발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책이다.

독자들에게 지적 즐거움을 주는 톨스토이의 소설과 다양한 주제로 만나는 그림형제의 동화를 통해 어떤 즐거움과 흥미를 주는지 살펴보기로 하겠

123) 「ABC계」(제3년제7권)는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프랑스의 역사를 소설화 한 것이다. 역사물이라 좀 지루한 감은 있지만 역시 당대 우리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소설이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4) 『소년』지에 「저인국표류기」는 영국의 작가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이다. 몇 회에 나누어 게재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겪는 모험담이다. 당대 현실이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불안하듯이 소설 속의 배경도 불안하고 헤쳐 나가야 할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자들에게 동질감을 주고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미래를 지향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사고와 또 모험에서 오는 극적인 재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125) ‘소인국표류기’광고, 『소년』(제1년제2권과 제2년1권에 걸쳐 책 말미 광고란에 선전하고 있다).

다.

① 지적인 즐거움을 창출하는 톨스토이 소설

『소년』 지에 톨스토이 소설이 유난히 많이 소개된 이유는 최남선이 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편집인이었던 최남선은 그의 잡지에서 톨스토이 소설뿐만 아니라 시와 위인담, 연보, 칼럼 등도 여러 차례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 점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톨스토이 작품에서 만나는 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독자들에게 지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적인 사유는 곧 문학적인 즐거움을 창출하게 된다. 당대 매체가 제대로 체계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톨스토이 소설은 독자들을 더 고급화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톨스토이는 다윈주의 사상과 기독교적인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투영 되어 있다. 잡지에 소개된 톨스토이 소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기독교 사상을 구현한다. 잡지에서 소개된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대부분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은 경향이 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작가가 기독교의 사상이나 교리에 부합된 소재를 가지고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의 승전」(제2년제6권)은 상전과 노복이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시기한 마귀가 아레보란 노복을 매수해서 상전을 성내게 하고 노복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것을 명령한다. 아레보는 마귀에게 심복이 되어 같은 신분의 노복들에게 상전이 잘해주는 것은 자기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선동하고 자신이 상전을 화나게 할 때 화를 내면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내기를 한다. 아레보는 상전이 가장 아끼는 양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

뜨려 상전의 반응을 보지만 역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웃는다.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기독교적 교리를 소설 속에 반영한 작품이다.

「조손3대」(제2년제7권)는 서두부터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계란만한 쌀알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독자들은 작가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엇이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물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임금이 이 물건에 대해 무엇인지 학자들에게 물어보지만 결국 모른다고 결론을 내린다. 할 수 없이 오래 산 농군을 불러서 물어보게 된다. 이 농군이 모른다고 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 그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모셔온다. 그 할아버지가 그것이 쌀이라고 대답한다.

「그째 時節에는 먹고 입는 물건을 누가 사고 파는 일이 업섯시오 그런 罪를 누가 진단 말이오 첫재 돈이란것도 업거니와 또 그것이 所用도 업섯시오 아모든지 제마음에 가지고십흐면 얼마든지 가질수잇섯시오」

「그러면 어대가 네 밧이더냐」

「우리 밧은 하나님의 밧이오 오대든지 같고 심으면 내밧이지오 田土란것은 아모테를 가던지 다 自由니 갈기만하면 내것이지오 힘드려 일하난 곳이 제것이지오」

「그러면 또 두가지 무러볼일이 잇다. 첫재 무삼싸닭으로 밧해 이런 큰 쌀이 낫스며 또 지금은 웨 아니 나난지…… 둘 時 재 네 孫子은 雙집행이에 매달녀 오고 네 子息은 외집행이를 끌고 왔거늘 너는 웨 집행이를 한아도 집지안코 다녀지난지…… 또 孫子·子息보담도 할아비가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니도 단단 하지아니하냐」

「그것은 다 사람들이 제스스로 일하지안코 남에게 식히난 싸닭이지오 전에는 하나님의 定한 法律을 또차 살님하고 또 남이 만드러내난 것을 조금도 비려쓰지도 아니하얏고 그런 생각도 내지 아니한 싸닭이지오」 라고 할아비가 對

이 소설 속에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소유'에 대한 개념이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생활방식이 달라지고 사고도 달라진다. 쌀이란 자본주의의 물질로 대변할 수 있다. 신의 영역 속에서 편안했던 생활은 사라지고 인간의 노동과 자본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인간적 욕구와 욕망 때문에 손자와 자식처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신의 보호와 규율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대로 산 결과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행복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적 욕망을 버리고 신과 함께 하는 경건한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어른과 아해」(제2년제10권)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나서면 오히려 싸움은 해결되지 않고 어른 싸움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그냥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게 놔두면 다시 친하게 논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성인들은 모른다. 성인들의 논리로 아동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방법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경에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한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아동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이러한 기독교적인 교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소설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너의 이웃」(제3년제9권)은 두 집안의 싸움이 계속되고 끝이 없다. 남의 죄를 용서하면 신이 너의 죄도 용서한다는 아버지 이반의 유언을 듣고 아들은 가브리엘이 불낸 것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용서해주게 된다. 용서가 없는 한 끊임없는 싸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마음속에 원한과 원망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된다. 결코 용서는 쉽지 않지만 뒤늦게 깨달은 성경의 말씀으로 용서하게 되고 두 집안의 앙금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누

---

126) 「조손삼대」, 『소년』(제2년제7권), 1909.8.1, 36쪽.

리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란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한 사람이 얼마나 땅이 잇서야 하나」(제3년제9권)도 인간의 욕망에 대해 언급한 소설이다. 땅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던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간곳까지 땅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있는 힘을 다해 걸어간다. 하루 해가 다 졌을 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땅을 좋아하던 사람이 묻힌 땅은 겨우 육척밖에 되지 않았다. 인간의 탐욕을 경계한 소설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기독교적 가르침, 욕망을 자제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특히 번안의 노력이 많이 보인다.

어느때 서울 사난 웃누의가 시골 사난 아래 스누의를 차자왔소. 이 웃누의는 적은 장사의 안해오 아래 스누의는 농군의 안해오. 방금 두사람이 차를 마시면서 무언지 서로 니약이하더니, 이리하다가 웃누의가 서울 살님이 변화한것을 자랑하오. 자기들은 이러이러하게 지낸다거니, 이러이러한 의복을 낚난다거니, 이러이러한것을 먹난다거니(중략)<sup>127)</sup>

위의 인용문은 원작과 상관없이 우리 정서에 맞게 번안한 것이다. 이야기를 더 재미있고 상황에 맞게 연출하기 위해 원작에는 없지만, 원작 줄거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하였다. 독자들은 낯선 외국문학을 접하는 데에서 오는 이질감보다 오히려 우리식으로 바꾼 문학의 접하므로 해서 더 친밀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톨스토이가 쓴 기독교적인 작품 가운데 우화적인 요소가 포함된 작품도 일부 있다. 소설이긴 하지만 서사 자체가 단순미가 있으며, 교훈성이 강하다.

이광수가 번역한 「어린희생」(제3년제2-5권)은 러시아의 어느 동구권 약

127) 「한사람이 얼마나 땅이 잇서야하나」, 『소년』(제3년제9권), 1910.12.15, 25쪽.

소국가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다. 소년과 할아버지는 아라사의 싸움에서 아들의 전사통지를 받는다. 소년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갔다가 도리어 발각되어 적에게 죽음을 당한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보니 손자는 없고 적군 세 명이 술을 달라고 위협한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해친 놈이란 걸 알고 술에 독약을 타서 죽인다. 이렇게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천죄를 느낀다. 이 작품은 독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계몽성을 지양하고 가족애와 민족애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고 있는 상태나 소설 속의 전쟁 상황은 독자들에게 비슷한 처지임을 암시해준다. 독자들은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몰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비극적 종말에서는 사실적인 감동을 준다. 선악의 근거한 상투적인 결말이 아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상징하고 있다. 인간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을 재현하는 데서 '천죄'를 느끼는 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 소설은 이런 점에서 미적 완결성에도 고심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천죄'는 독자들에게 기독교의 '원죄'와 '원수에 대한 용서'란 물음을 던진다. 역시 기독교의 교리를 피력하고 있다. 다른 작품들은 기독교적인 색채만을 강하게 드러내는 반면, 이 소설은 우리 민족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부분(민족주의와 애국심)도 포함하고 있어서 독자들의 사유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둘째, 다원주의 사상을 구현한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종교적 다원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종교 다원주의란 문화적 상황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여러 상이한 구원의 종교적 체계가 있다는 다원적 구원의 가능성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상을 구현한 작품으로 소개된 것은 「다관」이란 작품이다.

「다관」(제3년제9권)은 찻집에서 서로 자신이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

고 쟁론을 벌인다.

「그런故로 自己가 太陽의 理致를 말끔안다고 달은 사람을 批難함이 올치아니한 모양으로 世上의 迷信者, 無神論者라고 嘲笑할것이 아니오. 迷信者도 조금은 光明을 봄이오. 無神論者는 곳 소경이여서 아주 太陽을 못보난 세음이니 까.」 이러케 儒學者인 支那人이 말한즉 茶館에 모여안졌던 여러 사람이 다 今時에 감복하얏소. 그리하여 한사람도 自己의 信奉이 가장 올타고 말하지안케 되얏소.<sup>128)</sup>

위인 인용문을 보면 톨스토이의 다원주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원주의의 기본전제는 모든 종교는 동등하거나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최고라고 내세우며 다른 신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럴 때 중국의 유학자가 나타나 다원적인 종교관에 대해 조용히 설파한다. 인간은 종교적 가치를 포함하여 서로의 가치를 수용해야하며, 그들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신의 원천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모두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신관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 사상이 투영된 된 톨스토이 소설의 인물들은 대부분 인간의 욕구와 충동을 따라 자신의 이익과 생존본능의 탐욕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삶에 대해 극렬히 비판하고 기독교적인 사상과 교리로 타과하려고 노력하였다. 신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욕망을 자제하며 경건하게 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유교적 전통과 사상에 깊숙이 침잠해 있던 독자들이 톨스토이를 만나는 일은 낯설지만 설레는 일이었을 것이다. 근대와 함께 들어온 서구의 기독교 사상은 매우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에

128) 「다관」, 『소년』 (제3년제9권), 1910.12.15, 40쪽.

서 유입된 서양종교이지만 그 종교와 사상을 통해 독자들의 사고와 즐거움을 확장시킬 수 있다. 또 소설이긴 하지만 전래동화처럼 선악의 구별이 확실하고 우화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동 독자도 어렵지 않게 읽고 즐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다윈주의 입장에서 쓴 작품도 있었다. 다윈주의는 주지하다시피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 종교의 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종교적 다윈주의는 결국 그의 인도주의를 설파하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작품이지만 다른 종교와 사상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학작품을 통해 더 쉽고 즐겁게 이해하려는 편집자의 의도로 톨스토이의 작품이 대거 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외국의 번역작품을 통해 독자들은 새로움과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지적인 흥미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 ② 다양한 주제로 만나는 그림동화

독자가 처음 서구의 동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낯설고 난해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서구의 문화와 정신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스펀지처럼 쉽고 빠르게 흡수하는 성향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쉽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번역동화를 번안동화로 재창작하는 것이다. 번안동화는 번역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문화와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마친 문학이다. 독자들 가운데 이국적인 서구동화를 선호하는 층도 있겠지만, 근대 초기란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아동 독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문학을 접할 때 문화적 충격을 일으킬 것이다. 번안동화의 장점은 아동 독자들의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서서히 외국문학을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장르가 구별 없이 ‘이야기’로 통용되고 있을 때 비록 변안동화이긴 하지만 동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동문학사에서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작품을 통해 동화와 근접한 형식의 작품은 있었지만 동화를 접하는 것은 그때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변안동화가 이러한 장점을 품고 있었기에 아동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고급스런 독서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동 매체에 소개된 동화 중 단연 그림형제의 동화가 제일 많았다. 다른 외국 동화보다 그림동화가 집중적으로 변안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독일 그림형제가 살았던 시대와 그림 동화를 이입하던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이 비슷했던, 그 당대적 상황의 유사성에 기인된 것일 수 있다. ‘곧 19세기 초 그림 형제가 전래 독일민담을 수집케 된 시기는 정신문화계를 풍비하던 독일 낭만주의의 거센 물결과 나폴레옹의 프러시아 침공 등으로 야기된 민족주의적인 의식과 깊이 관련된다.’<sup>129)</sup> 우리 민족도 일제에 의해 강점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민족주의를 부각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림형제가 그 나라의 설화를 수집한 것처럼, 최남선도 『아이들보이』에 「상급주는 이약이 모음」이란 코너를 마련하고 국내의 옛날이야기를 수집하였다. 그가 옛날이야기를 수집하는 이유를 재미와 학문상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명목상의 이유였다. 이러한 목적은 옛날이야기를 수집하는 일차적인 목적이었고, 진정한 이유는 그림형제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림형제와 최남선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남선은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움을 주는 장에서조차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동화의 주제를 잡지와 신문에 배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이 배후에 깔려있긴 하지만 당시 변안동화로 소개

---

129) 김용희, 『한국 창작동화의 형성과정과 구성원리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1쪽.

된 서구의 동화는 아동 독자들을 호기심과 상상력의 세계로 안내한다. 실제 당시 독자들이 만날 수 있었던 변안동화는 대부분 서구의 설화를 재화한 것이었다. 기존의 아동 독자들의 교양 독서물로 주어졌던 우리의 설화를 비롯한 고전물은 다분히 평면적이고 단순하며 상투적인 결론으로 매듭짓는 옛날이야기식 구성이 대부분이었다. 변안동화도 이러한 범주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에게 일단 고전물에 익숙해져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변안동화가 주는 새로운 소재와 주제, 인물, 배경, 사건 등에서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년』에는 그림형제 동화를 소개하지 않았다. 대신 그리스신화를 변안한 하우쏘온의 원작 「何故로, 罽이通一年, 괴지, 안나뇨」(제2년제5권)라는 작품이 있다. ‘罽에 關한 童話’라고 하여 ‘동화’란 말이 처음 나오고 있다. 이 작품은 환상성을 내포하고 있어 아동 독자들에게 매우 흥미를 줄 수 있다. 그림동화는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보이』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아동을 독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동화의 주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내면의 진실한 시각을 일깨운다. 실제 삶에서 진실이 왜곡되기도 잠식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진실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덕목 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붉은 저고리』에 그림형제의 작품으로 「까님의 간곳」(제1년제1호)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 첫부분을 ‘옛날에~’로 시작하는 것은 그림형제 역시 그들의 설화를 재화했기 때문이다. ‘옛날 옛-적’이란 말은 집단무의식이 없던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의미이다. 옛날 옛적이란 말은 엘리어드 이후 거의 모든 신화학자들은 *illud tempus*라고 부른다.<sup>130)</sup> ‘옛날 옛-적’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 불가능하고 합리로는 인식이 불가능한 시공간이다. 동화

---

130) Marie-Louise von Franz, 홍성화 역, 『동화심리학』, 교육과학사, 1986, 41쪽.

의 현실세계는 자연법칙 저 너머의 형상을 지닌다. 따라서 “동화의 ‘옛날 옛-적’은 모든 현재보다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고, 옛날에 있었던 현재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재의 것을 이야기한다. 이 현재에서 동화는 이미 앞서갔던 것, 초자연적으로 과거적인 것이 이야기된다.”<sup>131)</sup> 이러한 연유로 설화를 재구성한 전래동화에서 서두를 시작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그림형제는 그들의 설화를 수집해서 그들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림형제의 동화도 보편적인 설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채로운 내용의 동화가 독자들에게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동화는 이미 독자들에게 내면화 된 익숙함과 새로움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찬사와 환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까님의 간곳」은 세 딸이 있는 임금이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셋째 딸을 버리게 된다. 나중에 말만 앞서는 딸보다 진실로 자신을 사랑한 것이 셋째 딸이란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딸을 찾아 나선다. 임금 부부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 딸을 찾아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삶에 있어 진실한 자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화이다. 이 작품에서는 원작에 없는 교훈적인 말을 덧붙이고 있다. 변안동화를 주도하는 작가의 몫이긴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두드러진 설교조의 훈계는 오히려 한껏 달아오른 흥미를 반감시키게 한다.

둘째, 근대적인 상속문제와 협동의 문제를 상정하고 있다.

「네 아오 동생」(제1년제2호)은 유교문화권에서 볼 수 없었던 상속문제나 물질주의를 재고하게 하는 동화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독자들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장자상속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131) 장남준, 『독일낭만주의연구』, 나남, 1989.(김용희, 앞의 논문, 73쪽, 재인용).

어느 늙은이가 아들 네 형대를 두고 세상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올흔지 몰  
나 하로는 아들 넷을 다 압해 불너안치고 너의들이 이제 동셔남북 스방으로  
길을 썬나서 각기 제게 맞는 지조를 배와가지고 네해뒤에 돌아오면 그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리라하얏습는다<sup>132)</sup>

고전작품 속에 내기를 해서 재산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는 내용이  
가끔 등장한다. 이것은 부모 상속과는 다른 방식이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장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시 하던 시대에 부모재산에 대해 상속의 문  
제를 제기하는 동화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바로 낯설고 이질감을  
가질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하여 서구의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아무리 우리식으로 변안을 했다고 해도 서양의 의식과 전  
통, 생활방식은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다름 뒤에 새롭게 다가오는 문화  
에 대해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내재한다. 여기  
서는 상속문제만 제기했지 그것을 푸는 방식은 네 아들이 서로 다른 재주  
를 익혀 와서 임금님의 딸을 구해주고 임금에게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역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전래동화의 형식적 틀을 벗지 못  
하고 있다. 아버지와 네 아들의 상속문제와 임금과 네 청년(네 아들)의 재  
산문제란 두 축으로 이루어진 동화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여기서 네 아  
들이 서로 다른 능력과 재주로 협동했기 때문에 괴물을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협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덧붙여진 화소  
가 아닌가한다. 짧은 전개에 두 가지 사건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 앞뒤  
가 맞지 않은 느낌을 준다.

「날넌이 여섯」<sup>133)</sup>은 그림형제의 ‘세상을 헤쳐 나간 여섯 사내’란 작품

132) 『붉은 저고리』 (제1년제2권), 1913.1.15, 4쪽.

133) 『아이들보이』 (제3호), 1913.11.

이다. 왕무쇠란 인물이 나라에 여러 가지 공을 세웠으나 임금의 인색한 상급에 원한을 갖고 앙갚음을 하려고 한다. 그는 여섯 명의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친구로 삼는다. 힘센 친구, 총 잘 쏘는 친구, 콧김이 썩 친구, 걸음 빨리 걷는 친구, 병거지 방향에 따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친구와 자신까지 여섯이다. 이들은 서로 협동해서 임금의 내기에서 모두 이겨서 상금을 받는다.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임금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재주를 가진 친구들과 협동을 하면 그 힘이 배가 된다. 막강한 세력으로 대표되는 임금도 이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시대 상황에 맞게 민족의 화합과 단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의 중요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처세술로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는 자신의 삶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든다. 그러나 당대에서 지혜는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이 된다. 일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 되기 때문이다.

「겨집아이 슬귀」(제2호)는 그림형제의 ‘농부의 영리한 딸’이란 작품이다. 주인공 계집아이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 한아 무러보자-네가 이길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옷도 입지말고 벗어 벗지도 말고 말도 타지 말고 수레도 타지 말고 쏘 발을 쌍에 부치지 말고 내게로 오나라』

하시는 어려운 수수격기외다

계집아이가 이 말씀을 듣고 곳 안전을 물너 나왔는디 그애가 그 수수격기를 엇더케 풀었는냐하면-먼저 밝아벗고 몸에 원통 그물을 뒤집어쓰고 쏘 나귀를 비러다가 그 쏘리에 몸을 빗들어매고 길로 질질 끌니어 관가로 들어갓습니

농부의 딸은 원님의 말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문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원님의 안주인이 된다. 그 뒤에도 곤란한 사건들이 전개될 때마다 그녀의 지혜로 위기사항을 모면한다. 그녀의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작자는 순수하게 지혜를 주제로 내세울지 모르나, 당시 우리 민족의 상황으로 보아 이 작품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약자인데, 그 중에서도 더 약자로 대변되는 여성을 모델로 삼은 점과 세상을 사는 처세술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밖에 『아이들보이』에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거짓 아드님 참 아드님」(제8호)은 원작이 '거지와 왕자'다. 안더센(안데르센)의 「네 절기 이약이이」(제10호), 「프레드의 쌍쌍이」(제5호), 「짓결이 아씨」(제7호), 「아버지 병환」(제7호) 「닐곱 동생」(제9호), 「수탉의 알」(제10호), 「병 부자」(제11호) 등도 있는데 원작을 확인할 수 없다. 대부분 일본판을 들여와 증역해서 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 부분을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들 주제로는 정직이나 노력, 효 등과 같은 아동 독자들의 심성을 가꿀 수 있는 덕목들이 대부분이다.

후대의 잡지로 갈수록 그림형제의 동화가 많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1920년대가 가까워 올수록 동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확대되어 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림형제의 동화는 보편적인 주제와 더불어 근대에 필요한 주제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시대적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지혜나 협동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어려운 세상을 만났을 때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과 또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

134) 『아이들보이』(제2호), 1913.10, 5쪽.

이 있는 사람이라도 협동하는 것만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한 주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동화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많은 묘사와 배경, 흥미진진한 사건들의 연속 등을 통해 독자들이 점점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공통적으로 1910년대 아동 매체 속에 중요한 문학 장르로 변안 작품을 수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문학작품이 교훈을 주기 마련이지만 흥미성도 그에 버금가게 중요한 요소이다. 연령층이 요구하는 흥미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재미를 추구한다. 소년층을 겨냥한 변안소설은 주로 문학적인 면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된다. 독자는 서사구조가 탄탄하고 미적 완결성이 있는 작품들에서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또 외국문학을 접하므로 해서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맛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근대 초기 서구사상이 한창 유입되는 시기이다 보니 기독교사상에 근거한 작품들도 많이 실려 있다. 유교적 사관에 잠식되어 있던 독자들에게 다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끼게도 하지만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얻는 참신한 기회도 가지게 된다. 또 집필자가 의도적으로 외국 작품 중에 당대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는 민족주의나 민족의식 고취를 주제로 한 작품을 게재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움 못지않게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과 시대적 아픔을 공감하며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변안동화는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재미를 추구하고 있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이 동화를 통해 근대적 창작동화의 태동을 감지하게 되었다. 전래동화의 형식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장면묘사나 인물묘사에서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변안한 동화의 방식은 집필자가 독자를 많이 배려하려고 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서구의 변안동화와 변안소설은 문학 장르로서 당당히 한 몫을 하고 있고, 특히 독자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즐거움, 교훈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고전소설과 설화

아동 매체 속에 다른 문학 장르와 함께 고전물이 차지하는 양도 만만찮다. 일반적으로 매체의 특성을 살리고 그 매체가 의도하는 성격에 따라 구성하는 코너들이 달라진다.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문학 장르나 코너를 선별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편집인은 나름대로 아동 대상 매체로서 성격에 부합되는 장르와 코너 편집에 열중했다. 그 중 하나가 고전소설과 설화를 게재한 고전문학이다. 고전문학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거부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민족적인 유대감을 결성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텍스트이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수준이나 발달 특성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장르 확정의 불확실성,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 부재 등이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고전작품이 전래동화라는 장르로 다시 재화되어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 당시는 성인들과 공유해도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선별하려고 노력하였다.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려는 계몽적인 목적과 흥미를 유발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아동 매체에 고전문학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소년』에는 고전작품을 찾아 볼 수 없었고,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고전문학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세 아동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하겠다.

① 세대를 비판, 풍자한 고전소설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지만 어느 정도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여 작품으로 형상화 하는 작업이다. 『아이들보이』에 소개된 「홍부놀부」(제2호, 제3호), 「심청」(제5호), 「떡절골 가난뱅이로 한세상을 들먹들먹흔 허싱원」(제10호)와 『새별』에 소개된 「허생전」(제16호)이 있다.

「홍부놀부」(제2호, 제3호)와 「심청」(제5호)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구비전승 되어 이루어낸 적층문학이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근원설화를 가지고 있다. 「홍부놀부」는 ‘방이설화’와 몽고의 ‘박 타는 처녀설화’를 근원설화로 하고 있다. 「심청」은 인신공회설화(人身供懷說話), 효자불공구친설화(孝子佛供救親說話), 맹인득안설화(盲人得眼說話)로 분류하는데, 『삼국사기』의 ‘호녀 지은(孝女知恩)’, 『삼국유사』의 ‘빈녀양모(貧女良母)’와 ‘거타지 설화’, 전남 성덕산 관음사 연기문에 나오는 ‘홍장(洪莊)처녀 이야기’ 등을 문헌상의 근원설화이다.

또 판소리계 소설은 현실감 있는 사실적 묘사와 세대를 풍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주제도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면적인 주제는 보편성을 띠는 것이고 다시 그 이면의 주제를 보면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 문제를 고발하거나 풍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홍부놀부」는 표면적으로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유교적인 주제이지만, 실상은 홍부는 빈민 처지에 양반을 자처하고 있고 놀부는 양반이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잘 대처해나간다. 표면적으로 돌출되는 주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보여주는 주제도 잘 파악해야 한다.

「심청」은 표면적으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권선징악을 말하고 있으나 이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유교사회에서 자신의 권

리는 무시된 채 ‘효’만을 강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인권말살 내지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것이다. 효는 현재까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다 희생하다 못해 죽음까지 불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세태를 고발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 두 작품은 아동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소설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실험적인 ‘동화요’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숙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동화요’는 동화의 서사와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동요의 형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아동 독자들이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두 작품은 판소리계소설을 기반으로 편집인이 다시 기획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이다. 그러나 서사는 전적으로 소설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대의 민중들이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봉건사회와 완고한 유교의 이념을 비판,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생전」은 두 잡지에 수록되었다. 『아이들보이』에 「떡절골 가난뱅이로 한세상을 들먹들먹흔 허성원」(제10호)이란 소설 형태로, 『새별』에는 「허생전」(제16호)이란 동화요 형태로 되어 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작품이 실렸다는 것은 그 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17세기에도 경제의 피폐화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평민들이 살기 힘든 실정이었다. 또 평민의식의 각성으로 양반들이 야유와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신흥 상인 계급이 등장하여 화폐가 유통되고 상업 자본이 집적되는 시기로 매우 급변하고 혼란스러웠다. 당대도 근대화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지고 낯선 문물과 지식을 수용해야 하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식민지 상황까지 벌어져 민중들이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연암 박지원은 그의 작품들을 통해 현실개혁을 위한 포부를 펼치고 있다. 「허생전」은 중상주의(重商主義) 사상과 허위적 북벌론(北伐論)을 배격하면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사회의 문제 묘사에 있어서 문학적 현실감을 위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사실적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허생이란 인물을 내세워 허위에 찬 양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주장한다. 그는 사실성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의 실상을 고발하고 비판하며 풍자한다.

다음은 『아이들보이』에 「떡절골 가난뱅이로 한세상을 들먹들먹한 허성원」에 게재된 작품이다. 당대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또 풍자하기도 한다.

①남산 및 떡절골에 허성원이란이가 살았습니다 구차하기 짝이 업서 오막살이 초가 몇간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먹는것은 씨니를 찾지 못흐나 성원은 들어안져 글만 넓고 달니 벌이를 아니흐얏습니다(10-11쪽)

② 『다섯해 동안에 엇더케 빅만금을 모앗는뇨』

무르니 허성원이 디답흐야 가로대

『이는 알기 쉬우니라 조선이 배가 남의나라에 다니지 아니흐고 수레가 내 나라안에 다니지 아니흐므로 모든 물건이 제곳에서 나서 제곳에서 업서지고 잇고 업는것을 서로 움기고 싸고 빗싼것을 서로 밧고아 남의 재물로 내 리를 만들지 못흐니 엇지 가멸흠을 어드며 대더 이 세상은 이르는 곳마다 리가 널넛는니 오죽 거들줄 알고 늘일줄 아는이가 취흐야 가멸을 이루는것이라 더욱 조선은 뒤로 들 한아만 지나면 황하 양즈강 이쪽저쪽이 모다 내 물건을 펼 곳이오 압흐로 바다 한아만 나가면 동쪽 남쪽 이 섬 저 섬이 모다 내 재물을 거들 쌓이어늘 쥐코만흐 속에서 량반노릇흐기에 정신이 다 빠져 하늘이 맞기

신 압뒤 고집을 열고 쓰지 아니하니 엇지 넉넉하야 보리오』(20쪽)

①은 구차한 삶을 살면서도 양반의 신분이란 이유로 무위도식하는 당대의 대다수 무능한 양반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작가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생활고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비실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양반사회에 일침을 놓는 것이다.

②는 허생이 급작스럽게 돈을 번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선사회에서 허생처럼 매점매석을 해버리면 바로 시장경제가 마비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나라 안에서만 자급자족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작품 속에 재현하고 있어 그의 사상을 더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별』에는 「허생전」도 형태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흡사하고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풍자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는 작품 속에서 당시 지배 계층의 무능한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실학정신을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연경에 직접 가서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전문한 청나라의 신문물을 소개하여 경제생활의 향상과 기술의 존중을 주장하고 이용후생을 고취시켰다.

이 소설들은 당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을 통해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발하고 비판,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다소 아동 독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아동 독자 역시 시대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의 세태를 보여주므로 해서 독자 내면의 동요를 일으키고, 한발 나아가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도 키우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② 설화 속에서는 찾는 즐거움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의 의식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자기술 이전의 구전문학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다.<sup>135)</sup> 어떤 민족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나 신앙, 관습, 세계관, 교훈 등이 융해된 문학이다. 아동매체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 중에 고전소설보다 설화의 양이 훨씬 많다. 이것은 단일민족으로 같은 것을 공유하여 결속감을 다지고 나아가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또 하나는 아동 독자들에게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창출하려는 의도이다. 『소년』과 『새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아이들보이』와 『붉은 저고리』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2〉 『아이들보이』에 수록된 설화

제 목	호 수	분류
범도 별별 썰는 썬어난 날냄 김덕령	제5호	전설
세선비 2	제7호	민담
세선비 3	제8호	민담
쓰거운 정성으로 완악한 도적놈을 도인 정서방	제9호	민담
시골 계집애로 나라에 어진 어미 된 흑불이 색시	제9호	민담
옷 나거라 썩썩	제9호	민담
실 썩이 색시	제10호	민담
나무군으로 신선 1	제10호	민담
나무군으로 신선 2	제11호	민담
범의 길잡이로 밤길에 식어머니 차져간 안협색시	제12호	민담

민담은 민간에 전승되는 이야기로, 특정의 장소 시대 인물이 지적되지 않고 필연성이 전제되지도 않는 흥미분위의 꾸며낸 이야기이다. 민담의 본질

135) 최운식, 『한국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민속원, 2002, 11쪽.

이 흥미에 있는 만큼 그 자체의 사실성이나 진실성은 문제되지 않고, 웃고 즐길 수 있으면 된다.<sup>136)</sup> 민담은 이미 성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익숙한 이야기이다. 민담은 특히 조상들의 애환과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동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민족의식과 보편적인 교훈을 습득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아이들보이』에 수록된 설화 역시 대부분 아동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편집되어 있다. 설화 중 민담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민담이 주는 흥미 본위의 특성을 그대로 아동 독자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설화들이 아동문학가나 아동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전래동화로 재탄생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위의 작품 중에도 ‘김덕령이야기’나 ‘웃 나거라 썩썩(도깨비담)’, ‘나무꾼으로 신선(선녀와 나무꾼)’ 등은 전래동화로 재화되어 현재까지 아동 독자들에게 애독되는 작품들이다. 지금까지 애독되는 이유는 그 속에 조상들의 희망과 낭만, 웃음과 지혜, 교훈 등이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덕령이야기’나 ‘웃 나거라 썩썩’, ‘나무꾼으로 신선’은 신비한 힘과 환상적인 세계를 통해 즐거움을 주는 반면 ‘시골 계집애로 나라에 어진 어미 된 흑불이 색시’와 ‘범의 길잡이로 밤길에 식어머니 차저간 안협색시’, 『붉은 젖고리』에 수록된 ‘바보 온달이’(제1년제1호, 제1년제2호)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언급한 작품이다.

① 『님금님은 실업슨 말씀을 못 하신답니다 아버님게서 늘 저다려 온달에게로 시집을 보내겟다고 하시더니 이제 엇지 전 말을 고치십닛기. 그저사람도 한번 혼 말을 그대로 아니치못하거든 허물며 님금님이 오릿가.』

하얏습니다. 님금님게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매우 역정이 나시어서(제1년제1

136) 최운식, 앞의 책, 99-100쪽.

호, 2쪽)

②짜님께서 이리히 안팎 일을 보살히시는 동안에 한편으론 그 산아희 온달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매우 힘을 들이시매 온달이도 밋바탈이 바보 아닌 고로 얼마 아니흐야 속이 크게 터졌습니다(제1년제2호, 2쪽)

①은 임금이 어릴 때부터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는 말을 뒤집고 다른 곳에 시집을 가라고 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평강공주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의견을 당당히 밝힌다. 이 사건으로 평강공주가 대궐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때도 두려움 없이 보물까지 챙겨서 스스로 쥘을 떠나 온달을 찾아간다. ②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혼신의 힘을 다해 보살피고 훌륭한 장군이 되기 위해 가르치는 장면이다. 여기서 여성이 직접 장군으로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잘 보살피고 가르쳐서 대회에 참가시켜 좋은 성과를 낸다. 평강공주는 가장 낮은 신분의 남성을 가장 존귀한 장군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준다. 또 이 두 장면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주체성 있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여성이 음지에서 소외받는 인물로 폄하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부각된 것이다.

작품 속에서 만나는 여성 캐릭터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아름다운 미모가 아닌 혹까지 달린 색시가 국모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공포의 대상인 범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다루며 길잡이 삼아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도 평범한 여성으로서는 하기 힘들다. 또 신분이 보장되는 공주의 자리를 박차고 바보 온달과 산다는 설정도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주체성 있게 행동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

게 해준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캐릭터나 주제는 식민지 상황에 독자들에게 큰 희망과 교훈이 될 수 있다. 연약하게만 인식되던 여성을 식민지 상황에서 강한 여성 캐릭터로 묘사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극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적극적이고 주체성 있게 행동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이 여성 캐릭터들은 연약한 여성의 이미지보다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면모와 기개를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작품 속으로 몰입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아동 독자가 흥미를 잃지 않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집필자가 의도하는 민족의식이나 조상들의 지혜, 낭만, 교훈 등을 작품 속에서 모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작품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아동 독자들도 익숙한 장르이다. 성인들의 고전작품을 그대로 아동 독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르가 정립되지 않은 초기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 매체 속에 선정된 고전소설이나 설화를 보면 당대 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태를 풍자하거나 비판, 고발하는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고, 식민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그렇다고 문학적 쾌락을 배제한 작품만을 선정한 것도 아니다. 아동 독자가 흥미를 잃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고전소설은 좀 독자에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미 성인들에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다. 설화를 전래동화로 재화하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동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재화하고 있다. 민담의 특성인 흥미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담긴 작품은 독자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만 당시는 전래동화로 재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 가감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이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전래동화란 장르가 출현하게 되었으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화보와 삽화

잡지의 화보(畫報)는 다양한 현상이나 기록적인 사진(寫眞)을 찍어 잡지 사이에 첨부한 것이다. 사진은 눈으로 본 것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다. 정해진 틀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틀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진다. 대체로 고정된 틀이 독자의 감흥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만 역으로 중요한 것만 강조되기 때문에 감흥을 더 배가시킬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의 만남은 독자들을 시각화 시키고, 화보를 통해 보는 세상에 대해 독자들은 매우 흥미를 가지고 대할 수 있다. 잡지에 실린 화보들은 흥미와 교육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삽화(插畫)는 서적, 신문, 잡지에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는 그림이다. 넓은 의미에서 서적이거나 잡지의 표지, 컷(cut), 광고 미술까지도 포함한다. 이것도 화보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화보와 삽화는 어느 매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두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에도 화보가 잡지 매호마다 실려 있다. 각국의 풍물과 건축물, 풍속을 소개하는 화보로 ‘나이아가라폭포, 북극빙, 히말라야산, 개선문, 세계의 건축(썬리텐국 런던부수정궁, 썬이취국 베를린부 썬란덴, 썬르까르 개선문, 북아메리카 합중국 와싱턴부 국회의사당, 이탈리아 로오마부 법왕궁전과 썬트 폴올사), 각국 역사(아메리카합중국 뉴유욕포 자유여신상, 헝가리국 썬다페쓰드국 애국자썬의동상, 워터틀노 나폴레온 고전장), 기예진보(런던

부 탑교, 벨리움국 썬렛셀부세계최대재판소, 니유욕포 세계상 최대철교, 썬이취국 쓰레스텐부 미술관), 일본 전각, 일본 송도, 청국 만리장성, 말네이토인제등도, 인도의 칼컷타시가. 낙타의 운반, 파푸아도토인의 수상가옥, 썬야도의 명물, 열대식물계의 미관, 스웨쓰 운하, 아라비아 여자, 카우카쓰의 병정, 천년전 문명의 유물, 이집트 교외의 삼각탑, 아집트성 카이로부, 적도지방의 거인, 일본의 검무연습' 등이 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부터 먼 유럽, 북극, 남극, 아메리카 등의 풍물이 담긴 사진을 접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외국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근대화의 물결이 마구 밀려오는 상황에서 집필자는 외국을 먼저 알리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국내를 소개한 화보로는 신라진흥왕복수비, 은율의 대미륵, 평양 칠성문, 원각사옥탑 등이 있다. 오히려 국내의 화보는 외국을 소개한 것에 비하면 무척 적다.

과학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차용비행선, 산토 썬몬트식 공중비행기' 등의 화보가 있다. 이것은 비행기를 소개하는 기사의 삽화에서 이미 비행기의 여러 종류 사진을 수록해 놓았다. 매호 과학에 관한 화보와 해외의 최신 과학과 발명기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역사적인 인물로는 '피터대제, 나폴레옹, 민중공, 대썬리텐국황제 에드워드 제7세, 으랭클린, 으루쓰벨트씨, 북극 심해의 양괘남아 쿠욱 페아리, 예수, 모오세, 양명'의 초상화보를 수록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화보 역시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매달 주제에 적합하게 화보를 편성하는 기획력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화설」이란 코너는 잡지 앞부분에는 화보를, 뒷부분에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첨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삽화는 화보만큼 많지는 않다. 간혹 기사 중간에 삽화가 첨부된 정도이

다. 『붉은저고리』의 특징은 화보가 따로 떼어 놓지 않고, 기사 중간에 삽입된 삽화가 전부다. 거의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글과 기사에 삽화를 삽입하고 있다. 권두언의 성격인 「옛쥬는 말슴」에도 그 주제에 맞는 삽화가 실



〈그림1〉 바둑이

려 있다. 제2호에 나와 있는 ‘바둑이’란 창가이다. 제목과 내용에 맞게 삽화의 내용도 아동이 바둑이를 안고 즐거워하는 표정을 담은 것이다. 개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과 친숙한 사이였고 의리와 충정심으로 대표되는 동물이며 특히 아동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바둑이가 항상 아동을 따라다니며 재롱을 떠는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이다. 아주 사소한 아동들의 일상을 작품화하므로 해서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

다. 자신들과 같은 일상적인 내용은 그 작품에 이해와 호기심을 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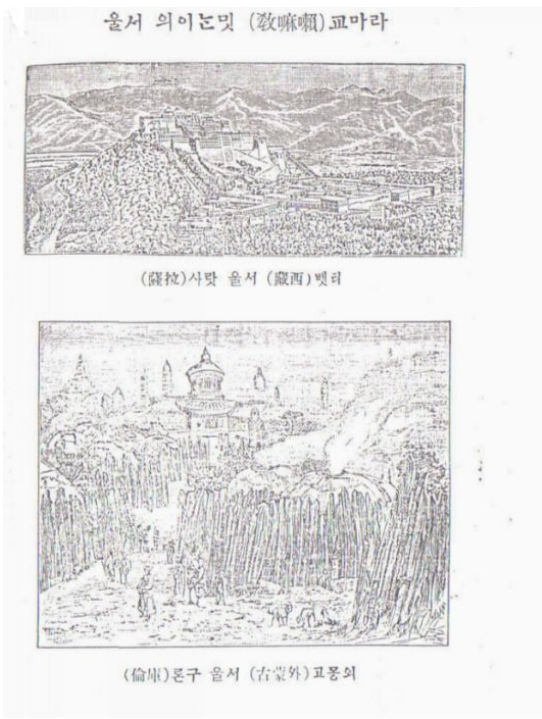
여기에 사용된 삽화도 결국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동화, 우화, 설화에도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삽화가 들어가 있고, 과학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도 ‘나르는 배와 틀 (비행기)’를, 「것모리」에서는 ‘물범, 주머니쥐, 비단새, 타의(나무의 종류), 코코나무, 부림 사슴, 락타(낙타), 코빨소, 살별, 면보나무’ 등의 동식물 이미지를 수록하고 있다. 동식물의 형체를 잘 포착해서 그 특징을 살피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흔난이」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인물 삽화가 첨부되어 있다. 수록된 인물로는 ‘아이작 뉴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몽란, 김시습,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랑클린, 아브라함 링컨’ 등 이다. 아동들의 모델이 될 자랑스러운 위인들의 초상화를 큰 크기로 실고 있다.

이 밖에도 잡지 곳곳에 삽화를 삽입해놓고 있다. 아동들은 특히 시각적인 자료에 호기심을 느끼며 반응한다. 시각을 통해 집필자가 요구하는 교육적인 측면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시각을 통한 감상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삽화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리기 때문에 시각적인 감수성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어 사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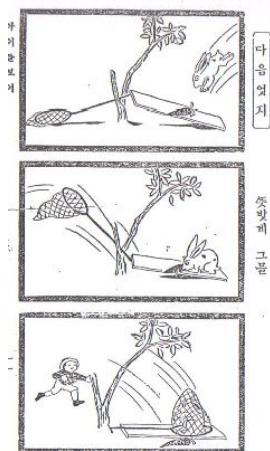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까지 생기게 된다. 『아이들보이』는 화보와 삽화가 다 수록되어 있다. 『소년』과 마찬가지로 세계풍물을 소개하는 화보가 각 호마다 실려 있다. 세계의 풍물을 소개한 화보로는 ‘시베리아 개썰매, 사하라 낙타 떼, 군디 총노키, 에베르스트봉, 만리장성, 일본 사당집, 라마교 밧논이의 서울, 산 화산 죽은 화산, 로시다 나라 농군, 몽고사람’ 등이 잡지 첫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비록 잡지 속에서 만나는 것이지만 세계 곳곳의 사람과 풍물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는 것이 아주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작은 틀 안에 있는 화보를 통해 아동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대

한 관심이 점점 커져갈 것이다.

인용된 화보는 '라마교 밋논이의 서울'과 '외몽고 서울 구톤'(제8호)에 실린 것이다. 생소한 외국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해서 세계 각국의 모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화보로 만나는 세계를 통해 세계를 알아간다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차적인 효과는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잡지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흥미와 재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교육과 직결된다. 특히 아동 독자들은 흥미성이 가미되어야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다.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몽성과 흥미성을 효과적으로 적절히 갖추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연유로 계몽적인 내용에 흥미성이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화보는 아동의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므로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잡지에서도 각 기사나 문학 장르에 삽화를 활용하고 있다. 문학 장르



〈그림3〉다음엇지

인 변안동화나 고전문에서 각 제목이나 상황에 맞는 그림을 삽입하고 있고, 「리되는 버러지들 이약이」에 나오는 '잠자리, 거미, 누에, 도마뱀, 지네, 가뢰, 노락이, 개구리, 벌'의 곤충류를 소개하는 기사에서도 곤충사진을 삽입하고 있다. 곤충을 백과사전식으로 자세히 소개하는 방식과 곤충사진을 일일이 첨부해서 호기심을 유발하여 아동 독자의 지적인 흥미를 충족시킨다.

특히 「다음엇지」는 만화컷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의 만화처럼 몇 컷의 틀에 상황을 넣어서 독자들이 쉽게 이야기의 전개를 인식하게 한다.

내용도 웃음을 주는 유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게임의 성격이 강한 「의사보기」 까지 삽화를 활용하고 있다. 역시 시각적으로 아동들이 흥미를 느낀다는 것에 착안한 편집이라 보면 될 것이다. 화보나 삽화는 누구에게나 호기심을 끌게 한다. 연령층이 높은 독자라면 화보나 삽화가 없어도 잡지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 분야에서 주는 예술성이나 시사성, 교훈성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지는 다양한 장르와 여러 분야의 기사가 함께 배치되기 때문에 흥미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대의 아동 매체들이 모두 삽화와 화보를 잡지에 배치하고 있었지만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붉은 저고리』 나 『아이들보이』 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새별』 도 세계인의 삶을 볼 수 있는 ‘사얌 사람 풍속’과 ‘셰르마 사람 풍속’이란 제목의 화보가 실려 있다. 또 『붉은 저고리』 의 「다음엇지」 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만화 네 컷으로 되어 유모를 자아내는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 말고는 이 잡지에서 삽화나 화보를 찾아볼 수 없다.

연령이 낮으면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이미지에 더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시각적인 화보나 삽화는 분명 독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어떤 기사이든 재미를 동반할 때 집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배가시킬 수 있다. 계몽적인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계몽적이기만 한 기사나 글은 독자들에게 자칫하면 외면 당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몽적인 내용에 재미를 적절히 첨가하면 교육적 효용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동 매체에 화보와 삽화의 적극적인 활용은 분명히 독자들에게 지적인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놀이란(欄)

아동 독자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흥미를 주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게임이나 퀴즈에 해당하는 놀이다. 놀이는 가상적 상황에 몰두하여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놀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가상적 상황에 몰입하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놀이는 아동들로 하여금 ‘주어진 활동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sup>137)</sup> 아동 매체에 나타난 놀이코너는 독자와 편집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근대의 놀이는 기본적으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놀이의 핵심은 ‘즐거움’이다. 놀이에 참여하는 독자들은 놀이의 규칙에 맞게 수행하면서 ‘즐거움’을 얻거나, 또는 놀이를 수행했을 때 그 이후에 돌아오는 결과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즉, 한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과정 또는 목표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즐거움’이란, 통념상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느끼는 ‘긴장감, 성취감, 기쁨’ 등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놀이는 아동 매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잡지들이 이런 놀이란(欄)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다. 아동 매체 속의 이러한 놀이란이 당당하게 자리 잡는 것은 분명히 아동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매체에서 재미는 어느 연령층의 독자들이나 선호하지만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령층이 낮은 독자들은 쉽고 이해하기 용이한 코너에, 연령층이 높은 독자들은 더 고차원적인 장르나 각 기사에 재미를 느낀다. 연령이 낮은 독자일수록 놀이란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된다.

---

137) 황정현·우미라,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2007, 139쪽.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놀이란은 연령층이 낮은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보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이란은 통해 아동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편집이라는 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아동들의 호기심을 끌어내어 아동 매체와 더 친근하게 하고자 한 점과 구독을 장려하려는 의도까지 엿볼 수 있다.

### ① ‘수학’에 관련된 게임

수학은 수(數), 양(量) 및 공간(空間)의 도형(圖形)에 있어서의 여러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게임으로 직접 연산과 관련된 것과 도형에 관련된 게임이 나타난다.

『소년』은 지적수준이 어느 정도 형성된 독자층이기 때문에 굳이 흥미를 주는 게임이나 놀이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잡지에서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주는 코너는 찾기가 힘들다. 「소년 수자유회」(제2년제 3권)가 유일하게 수에 대한 재미있는 게임종류에 들어간다.

웃다한 수자를 사하던지 감하던지 승하던지 제하던지하면 대단히 재미있게 답이 나와서 어린아해에게는 매우 흥미있고 유익한 놀음놀이가 되란것이 만흔데 위선 두가지를 기록하야봅시다.

$$1 \times 9 + 2 = 11$$

$$1 \times 8 + 1 = 9$$

$$12 \times 9 + 3 = 111$$

$$12 \times 8 + 2 = 98$$

$$123 \times 9 + 4 = 1111$$

$$123 \times 8 + 3 = 987$$

$$1234 \times 9 + 5 = 11111$$

$$1234 \times 8 + 4 = 9876$$

$$12345 \times 9 + 6 = 111111$$

$$12345 \times 8 + 5 = 98765$$

$$123456 \times 9 + 7 = 1111111$$

$$123456 \times 8 + 6 = 987654$$

$$1234567 \times 9 + 8 = 11111111$$

$$1234567 \times 8 + 7 = 9876543$$

$$12345678 \times 9 + 9 = 111111111$$

$$12345678 \times 8 + 8 = 98765432$$

$$123456789 \times 8 + 9 = 987654321^{138)}$$

어려운 연산도 재미있게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즐거운 게임처럼 숫자를 가지고 두 가지 연산을 시도하는 놀이이다. ‘어린 아해’란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이 잡지의 폭이 넓다는 것과 아동잡지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소년층에만 국한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지만 이러한 놀이란과 문학장르(시), 동화형식으로 구성된 지리, 자연, 과학 등의 교실시리즈에서 아동 독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보이』에도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게 할 만한 놀이란들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보기」인데, 이것은 『붉은 저고리』에 있던 놀이란을 이 잡지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코너도 다른 퀴즈나 게임처럼 먼저 문제를 내고 다음호에 정답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다. 보상으로 제비뽑기 과정을 거쳐 상까지 준다. 명단을 보면 뽑힌 아동 외에 발표된 수많은 아동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이 코너에 응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호를 거듭할수록 「의사보기」의 내용이 점점 다양해지고 발전한다. 제4호에는 수학 연산을, 제6호에는 수학 연산을, 제7호에도 수학 관련 문제를, 제8호에는 수학의 분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숫자만 조합해서 묻는 일반적인 수학문제와 달리 수학을 문장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문장제 문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동들의 특성에 따라 문학적으로 만들어서 수학과 문학(국어이해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38) 「소년수자유회」, 『소년』(제2년제3호), 1909.3.1, 29-30쪽.

『붉은 저고리』에 「의사보기」란을 보면 ‘즈미있는 작란거리’란 표현으로 이것이 아동들의 놀이문화와 관련 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제목에는 여러 가지 즘미있는 작란거리를 널터인디 점혀야 여러분의 의사를 느시도록 흐라고 한번은 거리만 내어 여러분으로 흐야곰 스스로 흐는 법을 쓸어내게하고 그 다음번마다 그 풀이를 내어 암만 생각흐야도 알아내지 못하신이가 보시고 배우게 흐터이오니 그리아시고 아뭇조록 혼자나 두서너분이 모도여 귀어히 당신 의사로 시험흐야 보시오.<sup>139)</sup>

먼저 문제를 내고 다음호에 정답이 나올 때까지 맞춰보는 게임이다. 도형과 성냥개비를 움직여 문제를 푸는 형식인데 이것이 단순한 장난은 아니다. 아동들의 직관력이나 상상력, 수리력 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지속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문제를 푸는 동안 아동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아울러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아이들보이』에 「의사보기」 제5호에는 도형 쪽맞추기를, 제10호에는 ‘조고만 명함 쪽 올이기’라 하여 명함 쪽을 오리는 게임이, 제11호에는 ‘올여마치기 1,2와 대여마치기’가 있는데 도형을 오리거나 대화서 정답을 맞춰보는 게임이다. 제12호에는 「의사보기」 풀이만 있을 뿐 게임이나 퀴즈는 없다.

『새별』은 수학과 관련된 게임뿐만 아니라 아예 놀이란이 없다. 목차 자체도 다른 잡지나 신문들에 비해 단출하고, 수준은 『아이들보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수학과 관련된 게임은 아동들의 수학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다. 특히 수학의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놀이를 창안해 낼 수 있었으

139) 「의사보기」, 『붉은저고리』(제1년제1호), 1913.1.1, 8쪽.

며, 이러한 놀이는 수학 관련 학습까지 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학습과 놀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② 미로게임

『붉은저고리』에 「한숫그림」과 「갈팡질팡」이란 게임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한숫그림」이란 놀이란은 완성된 도형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선 하나를 연결해서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미로게임이다. ‘근대적 미로게임’은 매번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길을 잘못 택해 막다른 골목에 닿기도 하고, 때로는 먼 길을 걸어서 기껏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 고전적 미로와 달리 근대적 미로에는 종종 입구와 출구가 따로 존재한다.<sup>140)</sup> 제7호까지 지속되다가 코너가 없어진다. 이 코너와 비슷한 것으로 「갈팡질팡」이 있는데 제1년제3호, 제1년4호에 두 번 수록되고 없어진다. 이것도 게임방법은 입구에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막혀있는 길을 통과해서 출구까지 도달하는 근대적 미로게임이다. 여러 번에 시행착오를 통해 마지막 출구에 도달했을 때 독자들은 성취감과 자신감,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 ③ 말판게임

나라마다 말판에서 하는 게임이 조금씩 게임방법만 다를 뿐 많이 하고 있다. 『아이들보이』에 여러 형태의 말판 게임이 소개되고 있다.

제2호에 ‘도야지 울이에 너키’란 게임이 있다. 돼지를 우리 안에 넣는 방법을 퀴즈로 풀어보는 놀이이다.

140)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 303쪽.

첫째 어느 말이든지 빈디가 아니면 옮기지 못합니다

둘째 어느 말이든지 가로나 세로 그은 금으로 쓸때에는 말 두 마리를 건너서 잡니다

셋째 아모 말이든지 모로 그은 금으로 쓸때에는 바로 이웃 간으로 잡니다

이 규칙만 직히면 아모디로 말을 써도 관계치 안습니다 이리햐 힌지가 맨 가운데로 들어가 안고 힌지 노엿던디가 빈자리가 되면 그만이외다 각기 되도록 햐 보시된 정 못햐겿거든 이 다음번에 널 풀이를 보시오<sup>141)</sup>

바둑판모양의 우리 안에 돼지를 누가 먼저 넣느냐에 따라 승부가 가리는 것인데, 게임방법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게임에서는 상당 부분 수학적 능력도 함께 요구한다.

「떡덤 부치기」(제2호)도 게임의 일종이다. 두세 사람이 하는 놀이로 역시 게임방법에 대해 설명해준다. 누가 먼저 우물에 자기 이름을 적느냐가 승패를 가린다. 또 바둑과 장기유형으로 「의사보기」 제3호에는 바둑을, 제9호에는 ‘힌지 검지 나들이’란 바둑처럼 하는 게임이, 「뒤집기 고누」(제5호)는 서양장기, 「에집트 닷밧」(제5호)도 이집트에서는 ‘시카’라고 하는데 장기와 비슷한 게임이다. 이것들은 모두 장기의 형태를 가진 말판게임이다. 말판과 말을 가지고 하는 게임으로 독자들에게 재미와 성취감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 독자를 배려하려는 이유인지 게임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 ④ 낱말과 관련된 게임

『아이들보이』에 제7호부터 「한글풀이」란 놀이란이 개설되어 제11호까

---

141) 「의사보기」, 『아이들보이』(제2호), 1913.10.5, 38쪽.

지 연속 게재된다. 한글 자모를 알파벳처럼 조합해서 한글 문장을 완성하는 놀이이다. 앞부분에 한글풀이의 정답이 먼저 나와 있고 뒤에는 알파벳처럼 자모를 풀어놓고 있다.

세계에 가장 큰 것들

기념비

아메리카 합중 나라 서울 와싱턴에 세운 그 나라 첫재번 대통령 와싱턴 어  
른의 기념비 외다(중략)

그림자놀이

아메리카 합중 나라 서울 와싱턴에 세운 그 나라 첫재번 대통령 와싱턴 어  
른의 기념비 외다(중략)<sup>142)</sup>

음소 하나 하나가 모여서 음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게임처럼 즐기며 배우게 되는 놀이이다. 처음 한글을 습득하는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놀이판을 통해서 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글놀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뒤에 자모를 맞춰서 써보면 앞의 한글문제풀이와 딱 맞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음소 하나 하나를 조합해서 정답과 맞을 때 아동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그림과 관련된 게임

『아이들보이』에 「상급있는 그림글 넘기」(제2호)란 놀이판은 그림과 글씨를 차례로 풀어 읽어서 한 줄 글이 되게 하는 게임이다. 각 그림을 낱말

142) 「한글풀이」, 『아이들보이』(제7호), 1914.3.5, 44-45쪽.



로 조합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문장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술과 관련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그림이 있어서 더 재미있게 퀴즈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시 연령이 낮은 대상을 잡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 정답을 알려주고 퀴즈 정답자에 한 해서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 상을 준다.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는 분

명 아동들에게 매력적이다. 더구나 부상까지 따라오는 것은 더 흥미진진한 일이다. 아동 독자들은 이 잡지를 통해 만나는 놀이란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놀이란을 단순히 수준 낮은 놀이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일차적인 목적은 아동 독자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수학과 관련된 문제, 글과 그림이 연관된 문제, 글로만 이루어진 문제, 도형 등 아동 매체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퀴즈와 게임을 만날 수 있었다. 지적인 영역에서 보면 수리력, 직관력, 통찰력, 순간포착력, 공간지각능력, 창의성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만족시킬 수 있다. 또 시각에 더 흥미를 가지는 때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동을 많이 배려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아동잡지에서 이러한 놀이코너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놀이는 독자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동 매체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코너이다. 특히 놀이코너는 아동 매체를 구성하는 한 코너로 독자에게

계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장점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아동 매체의 이념과 지향

이 시기는 이미 근대의식의 발아로 인해 사회구조의 지각변동은 계몽정신으로 상승되었고, 곧 신교육의 보급과 외국 유학, 신문화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근대를 준비하고 자주적 근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제와 서구에 의해 근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는 자유와 억압을 맞잡고 있는 듯 이중적이고 암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 우리는 근대의 특성과 더불어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당대가 그토록 갈구하던 계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1910년대 아동 매체라는 실증적 자료를 통해 면밀히 그 모습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1) 민족의식의 고취

일제의 탄압이 날로 악랄해지면 악랄해질수록 민족주의나 주권 회복에 더 많은 관심과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그 시대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국민의 정신을 사로잡고 대중의 권력 비판 능력을 차단하고 상실하게 만든다. 이것은 억압기제로 발동할 수 있으나 분열된 의식을 통합할 수도 있다. 민족주의란 무정형적인 민족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대외적 자주성, 경제적 자립, 대내적 민주주의를 그 기본 원리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방법까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민족주의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각 민족과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어 시대적 요구를 수행해 왔다.<sup>143)</sup> 민족주의의 내용은 시대의 정세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당면한 중대 과제가 주권을 회복하는 자주독립이었기에 한 곳으로 힘을 모으는 ‘동심(同心)’과 ‘일심(一心)’을 기반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했다.

이미 1910년대 이전 교과서를 통해서 민족의식 고취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소학독본』(1895), 『소학독본』(1895), 『신정 심상소학』(1897)의 내용을 통해서 문식성 향상과 애국심 고취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흔들리는 국운 속에서 도덕과 전통 윤리를 존중하고 농업, 광업, 산업, 지리, 역사, 자연과학 등의 학문을 소개하는 역할을 국어 교과서가 담당하도록 하였다.<sup>144)</sup> 한 일합방 이전부터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10년대는 무단통치 시대로 교과서도 일제에 의해 교묘히 조작되고 있었다. 일어를 국어로 배우게 하고 모든 과목이 일제의 황국 신민으로 살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선행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한 신진 지식층은 일제에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데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을 교육, 교화시키려고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와 대대적인 민족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아동문학 쪽에서는 대중매체라 할 수 있는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시작했다. 1910년대 아동 매체인 『소년』<sup>145)</sup>, 『붉은 저고

143)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180쪽.

144) 강진호 외, 위의 책, 30쪽.

145) 『소년』, 제1년제1호, 1908.11.1, 잡지목차

소년 1월력/해에게서 소년에게(시)/소년시언/가마귀의 공망/흑노자노리/갑동이와 을동이의 상종/

리』 146), 『아이들보이』 147), 『새별』 148)을 통해 민족의식을 확장·수렴하고 있었다. 물론 잡지 속에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등의 내용이 골고루 수용하고 있다. 우화, 설화, 고전소설, 동화, 위인담, 논설, 칼럼 등의 인문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근대의 산물인 과학, 수학, 생물학, 지리학, 지구과학 등의 자연과학도 대거 실려 있다. 이 속에서 정확히 민족의식을 찾는 것은 좀 복잡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계몽의 내용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교훈적인 것도 있고, 일제에 항거하려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민족적 계몽도 있기 때문이다. 집필자와 편집자가 얼마나 민족의식에 대해 고민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소년』은 잡지의 내용 대부분이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간행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최남선이 발간한 초기 잡지에 민족의식을 무절제하게 남발한 것이 미숙과 시행착오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반면 당대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이 절실한 시기였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집필자는 장르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산문, 운문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필하고 있었다.

---

공육의 애통시/이솝의 이약/해상대한사/바다란것은이러한것이오/가을뜻/소년한문교실/거인국표류기/소년독본/소년사전(페터대제전)/러시아는웃더한나란가/소년훈/성진/봉길이지리공부/살수전기/쾌소년세계주유시보/소년문단/나야가라폭포/소년통신/소년응답/편집실통기

146) 『붉은 저고리』, 제1년제1호, 1913.1.1. 신문목차

인스 엇줍는 말슴/은진 미력(한샘)/바보 온달이(1)/줄넘기기/짜님의 간곳/다음 엇지/깨우쳐 드릴 말슴(한샘)/늘 외고 생각흐실 말슴/한숫그림/일홈 난 이/우슴거리/젓 모리/의사보기

147) 『아이들보이』, 제2호, 1913.10. 잡지목차

차운디 더운디(사진)/그림본/겨집아이 슬귀(동화)/조흔 사람 안된 사람(우화)/우슴거리(유모란) 애썸(계몽적 칼럼-이태백 예화)/홍부 놀부/리되는 버러지들 이약이/말 이약이/다음 엇지/글씨 고여내기/떡덤부치기(도형놀이)/의사보기/지난번에 낸 건너잡기 풀이/글쓰느기 광고/상급잇는 <의사 보기>/상급잇는 <글쓰느기>광고

148) 『새별』, 제15호, 1914.12. 잡지목차

굽은다리 젓호로서(칼럼)/물나라의배판(동화)/개미집(과학단화)/코길이의 코이약이/계(동요)/다음엇지/황제의 새옷(변안동화)/말 뜻거라(시),병신거지(시)/우슴거리(유모란)/개천절 읽어리(부록): ㄱ재주비-개미나라, 습관/ㄴ재주비-물의가는바, 전기

### ① 위인을 내세운 애국심과 독립사상 고취

1910년대 아동 매체 전체가 그 저류에 민족주의가 깔려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소년』 지에 가장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잡지의 내용 중 위인을 소재로 삼은 번역물이나 칼럼이 잡지의 상당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

『소년』 지를 보면 소년을 대상으로 얼마나 절실하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힘썼는지 알 수 있다.

근대는 ‘사적 자아를 억제하고 공적 자아’를 구현시킬 문예 양식이 절실했던 시기였다. 영웅이나 도덕적 이상주의를 체현하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애국 계몽담론을 유출시켜야 했다. 모든 자아는 ‘공동선’을 구현하고 있는 ‘집체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정되어야만 했다.<sup>149)</sup>

당대가 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독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위인은 독자를 계몽하기에 아주 적절한 모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기서 다룬 위인들은 건국의 지대한 공을 세우거나 국난을 극복한 영웅, 민족을 위해 공익을 끼친 인물이다. 이러한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위인은 당대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민중들이 영웅의 출현을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다. 위인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영향으로 민족을 일제로부터 구할 인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국외의 인물을 모델로 삼은 위인과, 국내의 인물을 모델로 삼은 위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49)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傳)』, 소명출판, 2006, 39쪽.

〈표3〉 『소년』의 국내외 위인 목록

제목	인물	권/호	국외/국내
소년사전	1)패터대제 2)까리발씩	1)제1년제1권/제1년제2권/제2년제1권/ 제2년제2권 2)제2년제4권/제2년제6권/제2년제7권	국외
나폴레옹 대 제전	나폴레옹	제1년제2권 ~ 제2년제8권	국외
나는 이런 사람이 조와 -로마의 율 니우스 케사 르	율리우스 케사 르	제3년제3권	국외
신 시대 청년 의 신호흡	워싱턴	제2년제3권	국외
이런 말삼을 드러보게 -워 싱턴 공적 치하	워싱턴	제2년제2권	국외
와싱턴의 탄 일	워싱턴	제3년제2권	국외
링크언의 인 물과 밋 그 사업	링크언	제3년제1권	국외
이런 말삼을 드러두게	루테어르	제2년제7권	국외
이 충무공 일 사	이순신	제2년제10권	국내
민충정공 소 전	민영환	제2년제1권	국내

먼저 국외의 위인을 보면, 「소년사전」에 러시아를 중흥시킨 표트르1세(패터대제)와 이탈리아를 통일시킨 가리발디(짜리발찌)를 연재하고 있다.

페帝는 스사로 韓兵率이 되어 말을 달리며 도라다니면서 軍士를 激勵하되 『우리나라의 興亡을 決斷하난 날은 오늘날이라. 페帝를 爲하여 싸호거니 생각지 마라라. 나라를 爲하여 政教를 爲하여 教會를 爲하여 싸호거니하여라. 나라를 爲하여는페게터도 목숨을 도라다보지 아니함을 보아라.』 하니 軍勢가더욱 썰 치엿스며 일노부터 前에 카王은 밤에 倅軍을 襲擊하다가<sup>150)</sup>

표트르 1세(패터대제)는 명민한 지성을 소유한 인물로 근면하고 강철 같은 의지로 러시아 전반적인 이익과 일관성 있게 세운 계획으로 정치에 임했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표트로 1세는 군사들에게 사적인 전쟁이 아닌 나라와 교회와 같은 대의를 위해 전쟁에 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내용을 읽은 독자들은 분명히 잃어버린 나라와 실추된 민족적 자긍심에 대해 생각할 것이고 이것은 곧 민족의식과 직결될 것이다. 표트르 1세는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 간의 격차를 메우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경제나 교육, 과학, 문화, 대외정책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러시아를 강국으로 만들었다.

또 가리발디(짜리발찌)는 게릴라 부대 ‘붉은 셔츠대’를 이끌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정복함으로써 사보이 왕가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룩한 인물이다. 그는 굳건한 애국심으로 무장한 민족주의자였고 민족주의를 국민들에게 일깨워주었다. 거기다 자신의 군사적·정치적 재능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대의(大義)에 이용한 것이 당시의 조류와 잘 맞아떨어진 결과를 낳았다. 그는 개인적인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없는 정직한 인격을 가지

150) 「소년사전-러시아를 중흥시킨 패터대제」, 『소년』(제2년제1권), 1909.1.1, 70-71쪽.

고 있었기에 더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 올곧은 심성은 그의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가 목표로 정했던 민족주의는 언제나 민중의 해방이었지 왜곡되고 과장된 애국심은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역사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다.

공육(최남선)이 나폴레옹과 프랑스 역사에 대해 쓴 「나폴레옹대제전-프랑스 혁신사」는 무려 10회에 걸쳐 게재되고 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와 서유럽 여러 나라 제도에 오래도록 영향을 끼친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고 프랑스의 군사적 팽창에 가장 큰 열정을 쏟았다. 그가 몰락했을 때 프랑스 영토는 1789년 혁명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린 제2제정이 막을 내릴 때까지 그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서 존경받았다. 프랑스 역사와 나폴레옹의 신화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서구의 역사를 그토록 자세히 기술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그 역시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바라는 민족의 간절한 염원일 것이다.

율리우스 케사르에 대한 글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 조와-로마의 율니우스 케사르」가 있다. 이 글은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용기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당당한 용기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요점이다.

『너의들이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나냐 케사르를 태운 배는 웃더란 風波에 던지 覆破하지 아니 함을 물으나냐』 하니 水夫들도 여기 激勵되야 죽기를 괴쓰고 배를저어 무사히 건넌을 엇엇더라. 쏘어넛대는 케사르를 죽이려하난 음모가 잇슴을 듯고 그 親舊들이 크게 걱정하야 케사르다려 몸의 警衛를 嚴히하라고 勸告하얏더니 케사르가 이勸告를 물니쳐 갈오대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야

걱정中으로 날을 지내면 時時刻刻으로 죽음의 苦痛을 當함이나 갖흐니 一生스 동안에 幾百千次의 죽음을 當함이라할지라 나는 다만 한번 죽음으로 넉넉해하고 間斷업난 죽음을 송하지 아니하노라하고<sup>151)</sup>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담대한 용기로 행동하는 실천력은 위협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에게는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야 할 대상이다. 비록 다른 나라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설정이기에 독자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주의 의식을 북돋아 줄 수 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에 대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것도 권호를 달리해서 그 인물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삶 전체가 독자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남북전쟁에서 승리해 연방(聯邦)을 보존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링컨이 당시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는 그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을 해방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루테어르도 또한 민족의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상황과 맞닿는 것이었다.

국내의 대표적 위인으로 이순신과 민영환을 들고 있다. 이순신의 어릴 적 에피소드와 그의 꾸밈없는 애국애족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이충무공일사」(제2년제10권)란 위인담이다. 이순신은 현재까지도 위인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교과서나 전집류에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수호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순신이란 인물을 다룰 때 그의 전체적인 삶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의 에피소드만으로 그의 애국심, 즉 민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151) 「나는 이런 사람이 조와-로마의 울너우쓰 케사르」, 『소년』(제3년제3권), 1910.3.15, 49쪽.

그의 무사(武士)적 면모가 아니라 문사(文士)의 모습인 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민영환에 대한 소개와 그의 올곧은 충정을 기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내용의 「민충정공소전」(제2년제1권)이 있다. 민영환이 나라를 위한 충정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의 의미 또한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일 것이다.

위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자인 최남선이 국내 위인들을 다루는 데 오히려 인색하게 보인다. 서양의 위인들은 국내의 위인들의 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선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민족의식을 말하는 장에서 수입된 위인을 그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 좀 이중적으로 보인다. 북물 터지듯 서구의 지식이나 문물을 동경하던 시기라서 더 새로운 것을 표본으로 삼으려는 유학과의 심경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위의 위인들은 직접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건국과 부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위인을 모델로 한 글에서는 대부분 주인공을 지나치게 신격화하거나 상투적인 규격화 된 틀에 넣어 활약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계점이다. 독자들은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조명된 인물에 대해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집필과 편집에 있어서 당대의 목적을 위해 위인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집필자의 과잉 애국심과 국권회복의 의지, 주관적 견해가 빛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왜곡된 인물을 의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목적을 이룰 수는 있지만 독자들의 미래를 위해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 우리 민족의 대과제인 자주독립을 위해 이러한 위인을 모델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렇더라도 집필자의 편집과 의도가 지나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럴수록 더 객관적인 자세에서

위인을 선정하고 위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독자가 더 현실감 있게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붉은 저고리』에도 위인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흠 난 이」란 글에는 민족의 건국과 부흥을 이룬 위인과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위인들이 다수 소개하고 있다. 국내외 위인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붉은 저고리』에 국내외 위인 목록

제 목	인 물	권/호	국내/국외
일흠 난 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제1년제2호	국외
일흠 난 이-정몽란	정몽주	제1년제4호	국내
일흠 난 이-김시습	김시습	제1년제5호	국내
일흠 난 이-조지 워싱턴	워싱턴	제1년제7호	국외
일흠 난 이-벤자민 프랑클린	프랑클린	제1년제9호	국외
일흠 난 이-아브라함 링컨	링컨	제1년제10권	국외

이 아동신문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비중이 비슷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 인물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의식이 강한 것이다. 이들 중 ‘나폴레옹’, ‘워싱턴’, ‘링컨’은 이미 『소년』지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던 인물이다. 똑같은 인물을 매체만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게재했다는 점과 위인의 목록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그만큼 위인들 중에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란 위인담을 보면 나폴레옹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기질과 성향, 일상생활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에피소드로 엮어내고 있다. 일

반적으로 다른 잡지나 교과서처럼 나폴레옹의 업적을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게 언급하지 않고 소박하게 나폴레옹의 어릴 적 삶을 그려내고 있다. 이런 편집은 아동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독자 스스로 통찰의 과정을 거쳐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위인들을 다소 과장하여 거창한 면모를 보여주던 『소년』과는 달리 아동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위인들을 통해 거부감을 제거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보이』에는 마땅히 위인들의 삶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킬만한 칼럼이나 논설은 없다. 「애씀」이란 한샘(최남선)이 쓴 계몽칼럼이 있긴 하나 민족의식을 고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 독자들의 보편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계몽칼럼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처음에만 게재되다가 후반부가 가면 거의 칼럼이나 논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후반부로 갈수록 아동잡지가 계몽성보다 흥미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새별』에는 「와싱턴이 어린이를 살린다」<sup>152)</sup>란 위인담이 게재되어 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어린 시절 용기 있게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해준 일화를 담고 있다. 물살이 거세어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의 의로운 행동을 높이 치하하는 내용이다. 물에 빠진 아이의 어머니는 워싱턴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갚을 거라고 덕담한다. 나중에 이러한 그의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직접적인 민족의식 고취라고는 볼 수 없으나 위인의 일화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잡지에서도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단한 위인을 제시하기보다 실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인을 통한 애국심과 독립사상 고취는 특히 『소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

152)이 글은 『새별』의 「서국명화집(西國名話集)」이란 코너에 수록되어 있는 위인담이다.

확인할 수 있다. 최남선은 위인을 통해 민족의식을 말하려는 장에서 서구의 위인들을 지나치게 많이 선별했다는 점, 위인들을 지나치게 신성시 한 점, 본인의 주관적이고 과장된 틀에 넣어서 위인의 상투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구의 위인들을 대거 선정하였다는 것은 일본을 통해 근대를 경험한 유학과 지식인 최남선이 그것을 보편적 근대체험으로 수용하였고 서구 열강보다 더 서구 열강답게 되고자 과도한 욕망을 내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족의식에 입각한 과도한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분명히 그가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독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신념이었다. 그러나 『붉은 저고리』에 오면 이러한 한계점들이 개선되기 시작한다. 아동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위인들의 전체 삶보다는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거창한 면만을 강조해서 독자와 거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인들의 에피소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족을 계몽하던 시대인 만큼 공통적으로 위인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에 대한 글이 다수 차지한다. 편집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민족 계몽에 대한 의지는 여실히 볼 수 있었다. 독자들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반복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② 자아정체성 인식

사실상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장에서도 자아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각 개인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확보하고 자신의 판단기준이 설 때 민족의 대명제인 민족의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아동매체도 당대의 위기감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존감보다 민족의식이 앞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정체성에 전혀 무관심한 것만

은 아니다.

자아정체성(identity)은 자신에 관해서 통합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이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합하는 자아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일련의 단계를 통한 과정으로 보았다. 에릭슨은 마지막 단계의 성취는 개인이 전 단계의 목표에 얼마나 잘 도달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론화하였다. 그는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간관계를 가족, 사회, 문화의 관련 속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에릭슨은 자아발달의 최종단계를 자아정체감의 발견으로 표현하였다. 에릭슨이 말하는 이 시기는 12-18세의 소년들로 급격한 생리적 신체적 지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수많은 충동과 무한한 동경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나 경험미숙으로 수많은 좌절과 회의, 불신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의 중요한 문제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일이다. 독자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이며,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또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의 결여는 역할혼란을 초래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에릭슨이 주장하는 맥락에서 볼 때 아동 매체의 대상인 독자들로 하여금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과 기획을 했던 최남선도 이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육당이 독자들의 자아정체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개개인이 민족 구성원으로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

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모든 아동 매체에 골고루 나타난다. 매체의 특성상 보편적인 계몽성을 띠기 때문이다. 『소년』에 엄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훈」과 「소년금광」, 「서적에 대하여 고인의 찬미한 말」은 공통적으로 세계적인 명언, 국내 위인의 명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어딘것을 보거든 그와갓히하기를 생각하고 어딜디못한것을보거든 떼마음을 도라보오.-공자<sup>153)</sup>

義務는 每日아침에 우리들과 함피 일어나고 每日밤에 함피 자난 힘이오.-글 내드스톤

當身은 길히 生存하던지 또 곳 死歸하던지의 생각으로써 일을 하여가시오.- 썬라쓰<sup>154)</sup>

書冊은 우리人生에게 新觀察를 주고 또 엇더케 生活할것을 가리쳐주나니라 그것들이 悲哀하난 사람은 慰勞하고 頑固한 사람은 譴責하고 愚昧한 사람은 警戒하고 賢命한 사람은 더욱 賢明케하나니라.-크램브<sup>155)</sup>

앞에서 언급한 위인담과는 달리 세계적인 명사들의 철학은 독자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들 코너가 대부분 수차례에 걸쳐 게재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집필자가 얼마나 소년들에게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기회를 주고자 했는지 엿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의 글로는 「덕은 말에 큰 가르침」(제1년제2권), 「쇄금소옥」(제3년제2권), 「격언3칙」(제3년제5권)이 있는데 마음에 새길만한 격언을

153) 최남선, 「소년훈」, 『소년』(제1년제1권), 1908.11.1, 57쪽.

154) 최남선, 「소년금광」, 『소년』(제3년제3권), 1910.3.15, 41-42쪽.- 23항으로 되어 있다.

155) 최남선, 「서적에 대하여 고인의 찬미한말」, 『소년』(제3년제3권), 1910.3.15, 62쪽.- 세계명인들이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점을 13항으로 강조한 글이다.

통해 훈계하고 있다.

*The secret of life is not to do what one lilies, but to try lilies what one has to do.-Miss Mulooh.*

生活의 秘訣은 그 조와하난일을 함이 아니라, 할 일을 조와함이니라.-미쓰멜 노크.<sup>156)</sup>

특히 「격언3칙」은 영어와 한글을 나란히 기재하므로 해서 한층 교육적인 효과까지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격언은 생활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를 간결하게 표현한 글이다. 비유와 풍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짧은 가르침을 통해서 독자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예의나 성격, 나아가서는 정체성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다.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독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방향을 제시한 기사와 칼럼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다. 쉽고 가볍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독자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다.

〈표5〉 독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목록

제 목	권/호	비 고
태서소년일상생활훈	제2년제3권	칼럼
청년학우회회보논설	제2년제3권	논설
소년1월력	제2년제1권	권두언
소년3월력	제2년제3권	권두언
소년11월력	제2년제10권	권두언
신대한국민의 10덕	제3년제5권	칼럼
소년시언	제2년제1권/제2년제8권/제2	칼럼

156) 「격언3칙」, 『소년』(제3년제5권), 1910.5.15, 19쪽.

	년제9권/제2년제10권/제3년제1권/제3년제5권/제3년제6권/제3년제6권	
웃더한 사람이 되어야 할꼬?	제2년제10권	칼럼
꽤소년주유시보	제2년제3권	기사
꽤소년주유시보	제2년제6권	기사
노작	제2년제6권	기사
소년논어	제2년제7권/제2년제8권/제2년제9권/제2년제10권/	기사
아메리카 이리하고야 독립 하얏소	제1년제2권	기사
현대소년의 신호흡 1	제2년제2권	칼럼
언행의 본	제3년제4권	칼럼
아메리카 이라하고야 독립 하얏소	제1년제2권	기사
언행의 본	제3년제4권	칼럼

「태서소년 일상생활훈」이란 글은 높은 이상과 미래지향적인 내용, 노력과 안식을, 「청년학우회회보 논설」에서는 청년학우회의 취지와 지·덕·체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또 「소년1월력」, 「소년3월력」, 「소년11월력」은 잡지의 권두칼럼 성격을 갖고 있는데, 소년다운 소년의 기개와 굳센 소년이 되길 권고한다. 특히 「소년3월력」에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메리카 소년’의 모범적인 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미 근대화를 이룬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신대한 소년의 지침으로 삼으려 한다. 「신대한국민의 10덕」에서는 순결(純潔), 광명(光明), 강건(剛健), 화락(和樂), 진실(眞實), 성충(誠忠), 근면(勤勉), 정의(正義), 미려(美麗), 정제(整齊)란 덕목만 표기해 놓았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소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압축된 낱말을 통해 소년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삶에 지침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소년시언」은 청년다운 패기와 윤리적 명리, 국민으로 지켜야 할 생활규칙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

고, 「웃더한 사람이 되어야 할꼬?」는 자기 분수 지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쾌소년세계주유시보」(제2년제3권)처럼 국내의 고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국내의 중요한 고적을 살핌으로써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고전 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한다. 고적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라는 등식을 인정할 때 자신을 있게 해준 나라와 민족에 대해 재인식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아정체성이 확보된다는 의미이다. 「쾌소년세계주유시보」과 「노작」은 열심히 일을 하는 노동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무척 중요한 사안이다. 열심히 일하자는 노역과 그에 따라 필요한 안식의 중요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 「소년논어」는 논어의 본문과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달방식은 독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고전 속에 선대의 삶을 살펴보고 후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고 계승하면서 그 속의 의미를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독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아메리카 이리하고야 독립하얏소」와 일본 저자 보객유길이가 쓴 「현대소년의 신호흡 1」은 인간된 도리, 자립자존, 평등, 결혼, 교육, 예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저자의 글이 소개된 것이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편집자의 객관적인 편집 자세도 볼 수 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나 규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언행의 본」은 소년들의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7가지 소제목 속에 그와 부합된 교훈적인 내용의 글이다.

위에 언급한 기사나 칼럼은 독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닦고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편집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유형을 나누기가 힘들다. 자아정체성을 찾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민족과 나라에 기여하

는 가치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최남선이 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사 선택에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붉은저고리』에 「깨우쳐 드릴 말씀」이란 코너에는 아동들이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만한 계몽적인 칼럼들이 대다수 소개되었다. 이 계몽칼럼의 주제에 맞는 제목으로 ‘자신의 맘을 지켜라’, ‘버릇’, ‘믿음’, ‘힘 다스리는 법’, ‘곧은 마음’, ‘정직’ ‘남의 잘못’, ‘고지식’, ‘거짓과 참’이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사귀어 지내자면 여러 가지 직혀갈 일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힘쓰며 조심할 일은 밋빘을 직힘이외다.

처음 아주 남남끼리 벗이 되고 동무가 되기는 곳 그와 나 사이에 혼 말과 혼는 일이 밋브게 됴므로 말매암아 비릇는것이니 이 밋빘으로 말매암아 생겼던 사뵀이 밋빘 업서질제 썰아 업서짐이 맞당혼 일이 아니오닛가 그럼으로 밋빘은 사뵀의 거뵀뵀이라도 흘 수도 잇스며 동무의 부레풀이라 흘수도 잇습니다 한번 어글어지거나 녹아지거나흐면 아모리 갓갓던 사이라도 곳 멀게 서로 썰어질것이외다<sup>157)</sup>

위의 인용된 글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제목에 맞게 주제를 상징하고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는 바를 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들 중 윤희와 김시택, 조식, 헬렌위커의 일화도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이러한 주제가 독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칼럼의 특징은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쉽게 기술했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나 교훈을 짧고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그 속에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157) 최남선, 『붉은 저고리』 (제1년제3호), 1913.2.1, 4쪽.

『아이들보이』에 한샘(최남선)이 쓴 「애씀」이란 계몽칼럼이 있다. ‘애씀’이란 곧 ‘노력’을 뜻한다. 어떤 일이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동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조와 반복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속에 이태백이 글을 잘 쓰기 위해 다시 노력하게 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노력하는 위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이 잡지에서도 어려운 내용은 되도록 자중하는 편이고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독자들에게 접근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아동 독자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아래 독자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보하도록 돕고 있다.

『새별』에 「굽은다리 꺾흐로서」란 한샘(최남선)이 쓴 칼럼이 있다. 권두언적인 성격을 갖는다. 묵은 해와 새해를 맞는 자세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독자들이 늘 맞는 새해를 맞아 경거망동을 피하고 의연한 마음의 상태와 자세로 대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이 현실과 자신의 수양에 관한 내용이다. 또 부록 ‘읽어리’에 포함된 「습관」이란 글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로 매우 계몽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목적이 있다기보다 보편적인 계몽성을 띠고 있다. 이 두 글은 독자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한 존재 인식에서부터 발전하여 ‘민족’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편적인 내용에서부터 사회차원의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아동상을 은연중에 제시하기도 한다. 그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적이다. 당대가 요구하는 것과 개인이 보편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을 적당히 분할해서 그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의식 고취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족

의식 고취이다. 식민지 상황에서 더 민족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에 독자들을 한 데 묶는 강한 힘을 가진 무엇이 필요했다. 아동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없었던 시대에 아동 매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유학과 편집인은 자신의 일본 유학을 경험으로 그것을 독자들에게 주입하고 계몽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이 때로는 과도한 의욕으로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시키지만 궁극적으로 민족의식만을 놓고 볼 때 독자들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또 독자들의 개인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기사들을 선별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최대과제인 민족의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존중의 문제까지 계산된 편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의식의 유입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개인 존중의식이 발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매체가 독자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 2) 과학주의의 고양

과학은 앎을 지향하는 인간의 순수한 탐구심의 산물임과 동시에 인간이 염원하는 목표를 향한 필요의 소산이기도 하다. 인류가 이룩해 낸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인 과학적 지식이 인간의 성공적인 생존을 위해 매우 유용한 형태를 지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소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문명사의 긴 과정 속에서 보자면 극히 최근에 해당하는 17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학으로서의 본격적인 특성을 지닌 지식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나 일단 이러한 지식이 얻어지자 그 활용의 속도는 놀라운 것이어서 이제는 오히려 과잉활용의 우려를 빚어내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sup>158)</sup>

158)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1』, 지식산업사, 2002, 33쪽.

과학주의<sup>159)</sup>는 근대 과학 지식만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이며, 이것을 수용할 때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 사고이다. 이러한 과학주의에 따르면 모든 전통적인 관념과 사고 체계들은 비과학 또는 미신으로 치부된다. 중국의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삼국의 지식인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모두 과학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유길준의 『서유견문』<sup>160)</sup>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서양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교과서나 백과사전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기행문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행문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유길준은 서양의 정치·경제·문화·풍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축적하여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문·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근대 천문학과 지리학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서유견문』의 1편과 2편의 목표는 지구의 자연적 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이다. 서양의 ‘과학’에 대한 관심은 18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싹튼 것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자연과학, 즉 물리, 화학, 천문, 기상, 동식물학의 기초 지식을 발췌 번역한 서적들이 널리 읽히는 교양물이 되었다. 교양주의적 과학지식 보급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sup>161)</sup> 그 예로 『한성순보』의 창간호에 실린 「지구도해」와 「지구론」 등의 기사와 『한성주보』

159)과학(科學)을 바탕으로 삼거나 으뜸으로 삼는 주의. 오로지 과학적인 면에서 근거를 켜는 것을 최고의 인식(認識), 관찰(觀察) 방법(方法)으로 삼는 주의이다.

160)유길준, 『유길준 전서』 1, 일조각, 1971.

이 책은 1889년에 탈고되었지만 유길준이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 공직에 복귀한 후에야 비로소 출간될 수 있었다. 1894년 일본에 보빙사 사절로 갔을 때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 책의 출판을 의뢰했다. 그 다음 해인 1895년 4월 25일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교순사라는 출판사에서 전체 574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장본으로 1천 권이 출간되었다.

161)박성래, 「개화기의 과학 수용」, 『근현대 한국사회의 과학』, 창작과비평사, 1998 참조.

24호에 실린 「지리초보」에서는 천문지리학, 자연지리학, 방제지리학이 있다. 또 「녹주총논」이라는 세계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획 기사를 연재하기도 했다.<sup>162)</sup> 이러한 움직임은 후에 잡지나 신문에 영향을 주었고 실제 근대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다.

과학주의에 기초한 실업교육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각 신문마다 실업교과까지 언급하고 있다. 독립신문은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실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각급학교에서는 “工學, 生物學, 兵學, 化學, 醫學, 天文學, 農學, 山林學, 機械學 등의 실업과 관계된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sup>163)</sup> 고 주장하였다. 역시 「황성신문」에서도 각급학교에서 실업교과목으로 “農學, 天文學, 醫學, 藥學, 鑛學, 工學, 商學, 製造學, 化學 등을 가르쳐야 한다.”<sup>164)</sup>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가 되는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신문에서 지정한 교과 중에 아동 매체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리, 생물학(동식물학), 광학(천연자원), 과학기술, 수학, 화학 등이 그것이다. 아동 매체에서 과학주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지리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리는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근대 천문 지리학이 생성해내는 지구와 세계의 지리적 표상은 근대 정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나라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국과 타국의 지형과 지리, 특색, 자원 등을 자세히 학습함으로써 다음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2) 김현주, 『한국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84쪽.

163) 「독립신문」, 1896.12.3, 논설.

164) 「황성신문」, 1898.9.7, 논설.

『소년』지에 특히 지리학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타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글로는 「봉길이지리공부」, 「초등대한지리교본」가 있다. 「봉길이지리공부」에서는 각 나라의 지도나 삼대 해안을 비교하기도 하고 북극과 남극을 상·중·하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초등대한지리교본」에서는 ‘1장 지리학과 2장 지리학 필요, 4장 지구’가 지리학에 해당된다. 지표면의 자연환경에 대한 지리학적 서술은 반구, 대륙과 대양, 산과 강과 호수, 인종과 물, 산 등의 순서로 전개하고 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독자들의 학습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 내용과 순서에 특정한 중심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타국에 대한 지리는 비교적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치 주입식 교과서처럼 많은 정보를 주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행수필에서조차 지리학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에 「쾌소년세계주유시보」, 「평양행」, 「반순성기 상·중·하」가 눈에 띈다. 근대 초에 지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관심에서 끝나지 않았고 여행을 통해 그 곳의 풍속과 풍물을 문학으로 엮어내려 했다. 창간호에서 최남선은 “여행은 진정한 지식의 대근원”<sup>165)</sup>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당대의 영웅으로 추앙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행가’와 ‘탐험가’였기 때문이다. 「쾌소년주유시보」(제1년제1권)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작은 세상에 머물지 말고 직접 여행을 통해서 산 지식과 체험을 얻으라고 권하고 있다. 여행의 감정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 국내외 지리에 대해 인지하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다음호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여행하며 느끼는 감정과 함께 소년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리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인, 세계 속에 우리 국토에 대한 이해와 세계와의 지

165) 「쾌소년주유시보」, 『소년』(제1년제1권), 1908.11.1, 77쪽.

리적인 관계나 위치에 대해 막대한 양을 할애해서 집필하고 있다. 「평양행」(제2년제10권)은 근대적 교통수단인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다. 평양까지 가며 수십 개의 역명, 지명, 철교와 터널 이름, 강과 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지리와 깊이 연관된 내용이다. 이 글은 기차가 여행의 주체이자 주제이다. 기차라는 문명기체는 이전에 감각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기차의 안과 밖은 여행자에게 색다른 면을 보여준다. 기차 밖의 풍경을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장면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기차 안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게 한다. 기행수필 중간에 감정이입이 된 시도 등장하고 여행가의 심정이 드러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근대적 문물이라 할 수 있는 기차가 이 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전까지의 기행수필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은 곧 지리에 탐험이라는 의식이 기행문에서조차 숨겨져 있다. 「반순성기」(제2년제7권)도 역시 기행문으로 상·중·하로 나누어 실고 있다. 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과학의 기초 학문 다지기

편집자인 최남선은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와 사고를 받아들였고 그런 기초 과학에 천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천문학, 생물학(동식물학), 광학, 수학, 화학 등이다.

먼저 천문학과 관련된 코너로는 「갑동이와 을동이의 상종」이 있는데, 서두 ‘옛들 말삼’에 ‘자연계의 온갖 재미있는 현상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낯설지만 흥미진진한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 대화식구성을 취하고 있어 아동 독자까지 그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다.

甲 「그래 却說이라 生物界에는 競爭이란일이잇스니 大抵競爭이란것은 서로 겨르고 닳튼단말이라 競爭이 여러가디가 잇스니 그中에서도 기한것은 먹을스것 겨름이라」

乙 「먹을스것 겨름은 나도 익히 아디 너도 보앗거니와 우리답에서 닭을 티 디안나냐 그런데 더의끼리 牌가잇서서 몰너다니되 묘나 피나 쌀이나 먹을스것을 뿌려듀면 牌牌끼리 黨이더서 닳토두구나 닳토난데 그亦 魚池間하두구나 쏘기를해 쎄여밀기를해 타내던 디기를해」<sup>166)</sup>

갑동이와 을동이가 서로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내용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소년』지의 대상이 주로 소년층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러한 대화식 구성은 동화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성진」도 역시 대화식으로 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질서순환과 주야장단의 이」에서는 지구의 순환과 장단에 대해 상·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혜성에 관한 잡설」이나 「할늬혜성 약설」은 역시 별에 대한 것을 많은 지면에 할애하고 있다.

생물학(동식물학)과 관련 된 코너로는 아동 매체 전체에 드러난다. 『소년』지에 「큰 덩새」와 「동물계의 수륙양왕」에서는 고래, 코끼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육식초」와 「화학교실」에서는 식물과 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화학교실」에서는 보통과, 고등과, 전문과, 보습과로 나누어 꽃과 나무에 대한 식물학적 지식과 정보를 방대하게 다루고 있다. 내용 자체만 방대한 것이 아니라 지면도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식물의 종류나 기관, 꽃의 명칭, 꽃의 분류와 나무의 분류 및 식물의 성장에 대해 세심하고 치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림과 설명

166) 「갑동이와 을동이의 상종」, 『소년』(제1년제1권), 1908.11.1, 18-19쪽.

을 덧붙여서 백과사전식 구성을 하고 있으며 마치 전문서적처럼 아주 세심하고 전문성을 띠고 있다. 『붉은 저고리』에도 「것모리」란 코너는 대부분 동·식물학에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다룬 내용으로 물범, 주머니 쥐(캥거루), 비단새, 타의(나무의 한 종류), 코코나무, 부림 사슴, 락타(낙타), 코빨소, 살별, 면보나무 등이 있다.

이 그림에 보인것은 물범이라하는 것이니 살기는 물속에서 하나 못에 잇는 즘승처럼 색기를 젓먹여 기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바어니와 머리는 둥글고 귀접질은 업스며 목집은 뒤로 갈수록 훌죽훌야지며 꼬리는 썩 짜르며 네다리논 물고기 지내미처럼 삼기고 또 물허이가 잇스니 이는 물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도인 것이외다.<sup>167)</sup>

백과사전식으로 해당 동물에 대해 그림과 그 생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용문은 물범이지만 나무 종류인 식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동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보이』도 역시 관련된 글들이 있다. 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그림본」이란 코너에서는 곤충이나 조류, 수중생물, 집에서 기르는 가축 등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하는 생물의 그림을 보여주고 색도 칠해볼 수 있게 하여 아동들에게 생물의 이름과 모양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또 「리되는 버러지들 이약이」에서는 거미, 누에, 도마뱀, 지네, 가퇴, 노락이, 개구리, 벌 등의 생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새별』(제15호)에는 「코길이의 코이약이」와 부록으로 첨부된 ‘읽어리’에 「개미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코끼리와 개미의 생태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백과사전형식과 동화형식은 아동들에게 쉽게 이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 매체가 백과사전식 구성과 대화형식의 구성을 채택

167) 「것모리」, 『붉은저고리』(제1년제1호), 1913.1.1, 8쪽.

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광학(천연자원)은 『소년』 지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소년독본」에서는 근세문화의 2대 원동력이라는 석탄과 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수학은 『붉은 저고리』에 「남의 나 알아내는 수」와 「글썩 어드 노힌 것 알아내는 수」, 「장기 낸이가」는 공통적으로 수학과 관련된 코너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와 같은 연산이 나오기도 하고, 「장기 낸이가」에서는 ‘님 점님 똥싸인 이약이’란 수학동화형식이다. 인도의 싯가라는 사람이 장기게임을 만들어 임금님이 함께 두었다가 게임에서 졌다. 임금은 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해줄까 물으니 장기 놓는 칸마다 2배씩 보리를 놓아달라는 것이다. 임금은 쉽게 허락을 했으나 정작 계산을 해보면 복리가 되어 임금의 곳간까지 다 내놓아도 안 될 형편이었다. 그래서 임금은 싯가가 장기게임을 만들었다는데 놀라고 또 상금 달라는 방식에 놀란다. 즉 수학의 복리를 뜻하는 것이다. 어려운 수학을 동화형식을 취하므로 해서 독자들을 배려하고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함이다. 『아이들보이』에 「지난번에 낸 퍽이란 수 재미있게 쓰는 수풀이」는 수와 관련된 것이고, 「떡덤 부치기」는 도형인데 게임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수학과 관련된 것이다.

화학은 『소년』에 「소년이과교실」이란 코너에 인체의 수분과 만물의 삼태인 고체·액체·기체, 소금·공기·공기성분·기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보이』에는 「글씨 쏘여내기」란 코너가 있는데 화학물질로 글씨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화학실험을 놀이처럼 즐겁게 설명하고 있다.

간수로 써서 쏘여내는것은 한번 빗게 못흐야 보지마는 또 한장 가지고 몇번 이든지 흐는 법이 있습니다

염화코발트물은 연분홍 빛 약물이니 이것으로 무슨 글씨난 그림을 써서 말니면 아모빛 업시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불 위에 쏘이면 풀은 빛으로 글씨가 나옵니다 그더로 식게 내버려두면 또 전처럼 아모 자리업시 힌 조희가 되는고로 몇번이든지 냇다 숨졌다 하며 작난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화코발트 글씨 나들이』 이라합니다<sup>168)</sup>

염화코발트 액으로 글씨를 써서 불 위에 살짝 올리면 글씨가 나타나고 또 말리면 사라진다는 화학반응에 대한 내용이다. 어려운 화학반응을 쉬운 예로 들어 설명하므로 해서 화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솟빛을 마음대로 고치는 법」도 역시 화학물질의 사용여부에 따라 꽃의 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기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③ 근대적 과학기술과 발명품

근대의 사유체계는 자연을 계산성과 제작성, 사물에 대한 장악, 처리 가능성으로 이해한다.<sup>169)</sup> 근대의 이성적 인간은 야만적 자연을 문화의 힘과 이성의 힘으로 개발하고 길들이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작 가능한 객체로 제시한다. 자연을 단지 교화가치로만 바라봄으로써 자본주의 사고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었다면 근대의 과학기술혁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근대적 자연과학과 기술문명은 기계적이며 수학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뉴턴 이래 체계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이제 수학의 계산성과 규칙성, 법칙성에 따라 사물을 관찰하기에 이른다. 수학적 세계관은 자연을 계산 가능성과 제작성, 사물을 장악함으로 주어지는 처리 가능성에서 바라보게 된다.

168) 「글씨 쏘여내기」, 『아이들보이』(제3호), 1913.11.5, 32쪽.

169)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위의 책, 128쪽.

자연에 대한 수학적 과학적 이해는 근대의 특성인 기계론적 세계관은 물론, 산업혁명 이래 과학적 세계관이라 하는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모든 실재를 규정하고 장악하는 중심에 서게 된다. 나아가 모든 존재와 실재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함께 그 사유의 틀 자체를 변화하게 만든다. 이것이 ‘과학 기술주의’이다. 과학기술주의는 근대적 과학기술의 유입과 생활에 유용한 발명품들을 개발해냈다.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그 전망의 대상인 과학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개화교육 사상가 박은식은 근대적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고 있다.

“국가간의 경쟁에서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교육에 기초한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업 교육이 필요하다.”<sup>170)</sup>

근대적 과학기술을 기초로 한 실업교육만이 이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요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당시 지상최대의 과업이라 여겼다. 또 독립협회<sup>171)</sup>에서도 기술혁신과 산업화, 신지식의 보급이라는 근대화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서재필·윤치호·이상재 등에 의해 주도된 운동의 일환으로 서구 시민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사상적으로 우리의 실학의 전통

170) 『박은식전서』 하권, 서북학회월보(제1권제7호), 1908, 35쪽.

171) 이민수·윤남영·이원 역, 『한국의 근대사상』, 삼성출판사, 1990, 21쪽.

독립협회의 사상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1) 민족주의사상-자주독립사상

①민족공동체의 주체성-자주국권과 관련하여 ②국민적 통일과 애국심 ③민족문화의 창조와 발전 ④외국 이권에 대한 저항 ⑤방어기구의 형성-중립외교, 근대적 국방력

(2) 민주주의사상-자유민권사상

①개인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국민의 자유권·평등권·국민주권·참정권 ②가족과 문벌의 구조변화 ③신분제도의 변혁 ④부인의 지위의 변동 ⑤신제도의 수립과 사회적 구조단위의 분화-재판·신문·집회·결사·지방자치·의회

(3) 근대화사상-자강개혁사상

①정체의 근대화-입헌대의정체 ②관료제의 근대화-행정 재정의 개혁과 관련하여 ③신지식의 보급과 학교의 설립 ④기술혁신과 산업화 ⑤사회관습의 합리화

과 사회 다윈주의 계몽사상의 도입이 결합된 것이었다.<sup>172)</sup> 서구 및 서구화한 일본의 과학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명화 된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근대에 들어서 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이 언젠가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적 지식이나 정보는 민중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도록 유도했고 이것이 객관적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킨 것이 ‘비행기’란 과학적 발명품이다. 이것은 인간들의 무한한 노력과 연구 끝에 이룩한 근대과학의 주요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비행기와 관련된 기사는 모든 아동 매체에 공통적으로 게재되어 있다. 『소년』 지에 「공중비행단」(제3년제2권)에서는 여러 채의 비행기 모형 그림과 함께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마치 백과사전식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태서열국의 비행기발달사」(제3년제2권)에도 역시 이태리의 마이에르 박사의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붉은 저고리』에 「나르논 배와 틀」(제1년제8호)란 코너는 비행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는 내용이다. 비행기가 처음 생기게 된 경위와 점점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타게 되었다는 내용을 비행기 삽화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미 『소년』에도 비행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상 연령이 낮은 아동들에게도 여전히 관심거리이다. 비행기는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연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보이』에 「대서대양 날라 건너 감과 세계 한박휘 날라뎌」(제11호)란 코너도 비행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미국의 카티쓰 씨가 90일 동안 세계를 비행기로 돌았다는 내용인데, 그만큼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낸 비행기의 위대성을 말하려는 것이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 또한 근대적 과학기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전

---

172) 이민수·윤남영·이원 역, 위의 책, 20-21쪽.

기는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빛을 주었다. 전기의 발명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고 지속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근간을 이루었다. 「전기왕 에디슨씨의 발명한 기기」란 코너에서 에디슨이 발명한 발명품들의 목록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동기부여를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새별』에 부록으로 첨부된 ‘읽어리’에 실린 「전기」(제15호)와 마찬가지로 ‘읽어리’에 실린 「말코니」(제16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기의 발견과 그 용도, 발달과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 말코니 역시 무선전신기의 발명으로 인류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동 매체가 모두 과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내용의 난이도는 잡지에 따라 있을망정 공통적으로 근대 과학기술에 천착하고 있었다. 아동잡지나 아동신문에 소개된 과학은 사물의 원리나 법칙을 탐구하는 측면과 실용과 편리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동 매체에서조차 과학주의에 천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미개’란 오명을 벗고 ‘문명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이다.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지만, 근대국가를 이루는 것 또한 당대 중요한 과업이었다. 그러기에 과학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통념이었다. 때문에 신문, 잡지, 교과서에서 소리 높여 과학주의를 부르짖은 것이다. 최남선 역시 당시 신진 지식층으로서 당대의 사회적 풍토를 받아들였고 그가 발행한 아동 매체를 통해 과학주의를 실현하려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 3) 세계주의의 선양

아동 매체에 소개된 작품을 비롯한 외국 번역물과 칼럼에서 세계주의와 연관된 것이 많다. 세계주의는 한 개인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함으로써 자신

을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 파악하는 사상이나 양식에서 시작한다. 한때는 애국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쓰인 적도 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와 달리 범세계적인 개념이 세계주의를 한층 폭 넓은 사고를 갖게 한다. 근대는 새로운 문명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아동 매체의 특성상 문학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지리·역사·과학·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여러 분야 중 번역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족주의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세계주의적인 특징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번역물은 세계 각국의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지식과 문화, 사상 등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민족을 초월한 세계주의 정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동양적 사고에 머물러있던 독자들에게 서구작품이나 기사의 번역물은 ‘낯설음’ 그 자체였다. 한편으로는 이국적인 문화와 사고관은 독자들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과 동경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때문에 아동 매체에 소개된 세계주의 관련 기사나 화보는 독자들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범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할 것이다.

한 예로 세계의 지평 확대가 역설적으로 ‘국가’와 ‘국토’에 대한 관심을 낳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세계화 논리가 그 기저에 강력한 국가(민족)주의적 충동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세계’에 대한 인식은 ‘나’ 혹은 ‘우리’의 경계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 대해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시공간적 과거와 현재를 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요구는 역사학과 지리학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애국계몽기에 지리학은 역사학과 더불어 국가 관념을 생산하는 기제로서 각광을 받았다. ‘애국심’을 발양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이었다.<sup>173)</sup> 초기에는 민족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외국 문학과 번역

173) 김현주, 『한국근대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125-126쪽.

물 등을 소개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지리학도 현재의 산업·경제·종교·문화 등과 관련된 넓은 시각으로 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아동 매체에서 세계주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편집하고 있었다. 『소년』<sup>174)</sup>은 세계 각국을 소개하는 기사와 화보, 번역문학에서 세계주의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 잡지는 계몽기의 근대적 지식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잡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간호부터 본국(조선)과 세계 각국의 자연과 지리, 인문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이 시기의 지상최대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 잡지에서는 기사와 화보, 번역소설을 통해 세계주의를 반영한다. 세계의 문학과 인물, 기사들을 소개하는 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기사를 통해 독자 스스로 세계주의적인 시각을 향상시키라는 의미이다.

「해상대한사」는 반도라는 지리적 상황이 미술·정치·법률·학술·교육·상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이탈리아의 역사에서 확인하고 조선의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매우 장황한 내용과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다. 근대 초기에 대내적 동일성과 대외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국토’를 정의하려는 한 시도는 세계지리와 본국 지리에 대한 각종 교과서에서 이루어졌으며,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관련 기사들이나 문학적인 글들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쾌소년세계주유시보」는 아시아, 유럽과, 아메리카 등 대륙과 지나, 터키, 썬릿텐 등 나국과 히말라야, 토키 등 산안과 에니세이, 유우르렛, 나일, 미시시피 등 강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 교통체계(도로, 철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들이 여행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일이다. 세계 각국의 소개는 독자의 관심을 단번에 세계로 돌리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산하와 유명 도시의 역사와 유적을 매우 면

174) 『소년』에 수록된 세계주의 관련 기사

「봉길이 지리공부」(총7회), 「쾌소년세계주유시보」(총5회), 「해상대한사」(총9회), 「지도의 관념」(당대 유명 답사가 헤딘 박사의 내한 소식과 그의 약력), 「북극탐험사적」(총4회)-지리와 관련된 기사나 논설은 과학주의에서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밀하게 살피고 있다. 집필자는 세계를 심미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개발자의 시각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조선에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풍물에 대한 감동과 심미안을 느끼기도 하고, 아직 문명화 되지 못한 나라로서 감내하고 먼저 문명화 된 나라들을 경제적인 논리, 개발자적인 논리로 보기도 한다. 집필자의 이러한 집필태도는 고스란히 독자들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독자들 나름대로 세계를 이해하고 보는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기사가 세계 전체에 대한 정보라면, 세계적으로 위인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아 게재했던 글도 있다. 「소년시언」이란 코너에서 ‘여러분은 뜻을 엮더케 세우시려오’를 보면 나폴레옹, 프랑스, 유럽과, 아메리카, 썬릿텐, 스페인, 한니발, 로오마의 역사와 정신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 국내 위인들의 소개에 머물지 않고 다수의 세계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편집의 의도에 따라 위인도 민족주의에 적합한 위인이 있고, 인류 번영에 기여한 위인도 있었다. 후자 쪽에서 보면 이러한 위인들의 소개도 세계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위인들의 삶을 통해 범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각적인 전문분야의 위인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간접 경험을 줄 수 있고 한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인류를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계화설」은 잡지 속에 화보를 뜻한다. 기사를 통해 세계 각국과 그 풍물을 소개했다면 이것은 화보를 통해 직접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상매체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잡지 속에서 만나는 세계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세계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사산(일본), 만리장성, 공부자의 묘소, 북경성 정양문(중국), 이집트, 피라밋, 유로파 총연사(썬릿텐국의 황제, 로오마의 교회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수백 가지의 기사로 상상했던 것보다 한 장의 화보를 통해 세계 곳곳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화보는 독자들에게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품게 할 것이다. 비록 직접 세계여행을 다니며 다각적인 체험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화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포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화보의 큰 장점이다.

「거인국표류기」, 「로빈손무인절도표류기」는 모험소설이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 독자들은 현실이든 환상이든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의 현실의 삶도 늘 모험을 떠나거나 여행하는 것처럼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동 독자들은 모험소설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애독하게 되는 것이다. 번역소설에 등장하는 모험가나 탐험가란 캐릭터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탐험하는 인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이 작품을 몇 번에 걸쳐 긴 양을 연재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는 정신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어려운 난국을 헤치고 모험하는 걸리버나 로빈슨 크루소는 독자들에게 영웅과 같은 존재이다. 「로빈손무인절도표류기」 완결호 작품 말미에 붙인 것을 보면 집필자의 의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여러분의 나라형편이 三面으로 滋味의주머니오 보배의庫々집인 바다에 들닌 것을 尋常한 일노알지말어 恒常 그를 벗하고 그를 스승하고 또 거기를 노리터 로알고 거기를 일터로 알어 그를 부리고 그의 脾胃를 마초기에 마음두시기를 바라옵나니 엇집지아니한말삼이나 깃히 드리주소 그런데 한마디 부쳐 말할 것은 우리모양으로 私利와 작난으로 바다를 쓰실 생각말고 좀 크게 넓게 人文을 爲하여 國益을 爲하여 眞實한 마음과 精誠스러운 뜻으로 學理研究 富源開發等 조흔 消遣를 잡으시기를 바람이외다.<sup>175)</sup>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넓은 세상, 즉 세계를 뜻한다. 바다(세계)를 대할

175) 최남선, 『소년』 (제2년제8권), 1909.9.1, 43-44쪽.

때 장난으로 하지 말고 높고 큰 뜻을 위하여 학리연구나 부원개발에 힘쓰라고 권장하고 주장한다. 모험을 통해 만나는 흥미진진한 사건들은 단순하기는 여정의 이야기 나열이 아니라 독자들이 세계와 직면할 때 진중한 태도와 도전정신을 역설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세계 풍물의 소개도 중요한 작업이지만 문학작품처럼 간접적으로 문학이라는 기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 사람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깨우치게 된다. 물론 모험과 탐험을 통해 세계 강대국들의 식민지쟁탈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러한 야욕보다 독자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탐험심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다. 늘 외세의 침범에 시달려 왔고 일제의 강점 하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계인의 의식을 공유하고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은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것이다.

『붉은 저고리』도 세계의 위인을 소개한 글이나 이솝우화, 변안동화, 화보에서 세계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소년』보다 한층 낮아진 연령층 때문에 폭 넓은 세계를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먼저 위인담을 소개한 「일흔난 이」를 통해 ‘아이작 뉴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윌리엄 셰익스피어,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과 「깨우쳐 들일 말습」을 통해 장유, 니유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뉴턴과 조지 워싱턴은 두 번씩 게재하였다. 그만큼 과학과 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다양한 다른 분야의 위인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전대 잡지에 비하면 턱없이 세계에 대한 정보나 소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세계의 위인을 통해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위인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꿈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동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이솝우화와 변안동화<sup>176)</sup>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번역문학으로 이솝우화는 세계의 보편적인 진리나 사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변안동화는

---

176) 바로 다음 장에 장르인식에서 이솝우화와 변안동화가 심도 있게 언급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의는 약술하기로 한다.

우리식으로 번안하여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전하고 있다. 우화는 아동들을 처음부터 혼화하려는데 목적인 있는 만큼 문학적으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문학을 접하기 힘든 연령에서 이해하기 용이한 장르를 통해 세계주의적 시각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번안동화는 문학적으로 서사구조나 내용에 있어서 우화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 번안을 잘 한 동화라도 독자들에게 생경한 감은 있지만 서사가 탄탄한 작품을 대할 때 독자들은 더 매료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집필자가 엄선한 번안동화에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내포된 작품이다. 번안동화 속에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나 진리, 동양적 가치관에서 볼 수 없었던 주제를 접하게 된다.

화보는 다른 잡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풍물을 소개하거나 세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들보이』는 『붉은 저고리』보다 매우 흥미롭게 세계주의를 구성하고 있다. 화보와 기사, 서양게임으로 아동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화보에 ‘시베리아 개썰매, 사하라 낙타떼, 군더 총노키, 에베르스트봉, 지나 북편에 두 가지 불만흔 것, 일본의 사당집, 라마교 밋논이의 서울, 산 화산 죽은 화산, 러시아 나라 농군, 몽고사람’이 있고 잡지 중간에 ‘아이들신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신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속에 「세계구경」이란 코너가 있는데 세계의 풍물을 소개하는 화보이다. 다양한 화보를 통해 세계 곳곳을 보여준다.

중간에 첨부된 ‘아이들신문’에 속해있는 코너로 「던보」와 「소문」, 「귀별」이란 기사가 세계 곳곳의 소식을 소개하고 있다. 「던보」에서는 ‘베를린과 런던소식, 썬이취의 나르나 스업, 인도의 소식, 파나마에 배 다님, 큰 배 빠짐, 체벌렌 씨 죽음 런던 정치가의 죽음 페르샤 새 임금’과 같은 해외

뉴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문」에서는 ‘인도의 천재 음악 소년, 손가락이 십만원(바이올리스트의 손가락 보험에 든 이야기), 엄지 발가락이 룩만원(발레리나의 발가락이 육만원 보험에 든), 나르스 틀로 죄인 잡음, 오래 만히 나름(비행성공 소식)’에 대한 기사인데 이것은 현재 기네스북에 오른 신기한 일들을 소개하는 해외토픽과 같은 기사이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보험에 들었다는 소식은 그 당시 우리 실정에는 매우 희귀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귀별」은 한샘(최남선)이 동경에서 박람회와 전람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해외소식란이다. ‘아이들신문’에 소개된 기사들은 하나같이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게 한다. 당시 사회에서는 접할 수 없는 매우 이색적인 기사이기 때문이다. 거창한 역사성이나 정치성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이색적인 세계소식을 통해 독자들이 세계를 알아가고 배우는 것도 세계주의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다.

「뒤집기 고누」와 「에집트 닷밭」은 서양장기와 같은 게임이다. 장기와 바둑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서양놀이기구는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 매우 작은 부분에서이지만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를 배워가는 것이다. 서양장기와 우리의 놀이문화의 규칙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 밖에 이솝우화나 변안동화도 세계주의를 알리려는 시도이다.

『새별』도 역시 세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화보와 제16호에 「서국명화집」이란 코너에 6편의 서구의 동화와 위인들의 일화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지금까지 그림형제의 동화가 대부분이었는데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처녀」(원작: 성냥팔이 소녀, 제16호)와 「황제의 새옷」(원작: 벌거벗은 임금님, 제15호)를 소개하고 있다. 윌리엄 텔과 워싱턴의 일화, 기독교적인 교훈이 담긴 「가장 귀한 행위」란 동화형식의 글이 있다. 이 6편의 글은 모두 기독교 교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축된 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세

계를 접하지는 못하지만 기독교 문화권의 문학과 인물, 소식을 듣는 것도 소극적이거나 세계의 다양성을 매체 안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매체가 공통적으로 세계주의에 입각한 기사나 작품, 화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소년』은 종합잡지로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해서 세계주의를 표명하고 있었다. 물론 세계주의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더 심화하려는 의욕도 보이지만 일차적으로 세계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점을 더 표출되고 있다. 『붉은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에서는 세계주의를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집필자의 의도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동들의 특성이나 기호에 맞게 잡지를 구성하고 있다. 시각적인 자료인 화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선별했다는 점이 그렇다. 연령이 높은 독자들은 기사만으로도 세계를 이해하고 나름대로 세계주의적인 시각을 키워나갈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의 폭이 좁은 아동 독자들은 실제 세계의 풍물을 담은 화보나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장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주의를 거창하게 실현하려는 것보다는 이들 잡지와 신문에서는 아주 소박하게나마 독자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알리고 그 속에서 세계주의 의식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 IV. 1910년대 아동문학과 장르 인식

한국 아동문학이 초창기부터 순수하게 아동을 위한 문학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근대에 이르러 아동의 개념이 새롭게 인식되고 부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이든 일정한 모습을 갖추려면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밟듯이 아동문학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1910년 아동문학을 주관했던 집필자와 편집자들은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주도적으로 아동 매체를 주관했던 최남선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문에 해외문학의 수입과 자국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가장 큰 두 주류로 삼았다. 특히 그는 의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인습적인 낡은 문화를 개조해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편집자의 진보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적 가치라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또 반대로 최남선은 ‘조선광문회’를 조직해서 고전을 수집하고 간행하는 작업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이 아동문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먼저 진보적인 측면을 보면 일본적인 것에 대해 선망했고 그러한 그의 의식은 일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되었다. 그가 유학을 다녀온 곳이기도 하고 일본을 통해서 근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적인 시대상황 때문이다.

최남선이 출판소재로 삼았던 번역물의 원자료는 방 하나를 차지할 만한 분량의 일서와 매달 일본으로부터 송부되는 30여 종의 잡지 및 여러 종의 신문이었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를 쓰고 편집체제를 창안하는 등 최남선은 일본적요소를 수단으로 하여 독창적인 민족출판문화를 성장시키려 노력하였던 것이다.<sup>177)</sup> 아동 매체의 많은 부분을 해외문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도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민족의식 고취와 일맥상 통하는 것이었다. 항상 사물의 안과 밖처럼 하나의 실체에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해외문학을 소개하는 장에서도 우리 민족의 현실과 비추어 민족의식 고취의 일환으로 활용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대적 산문인 외국문학을 수입해서 소개하고 알아가는 과정 또한 근대의 가치라고 여긴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아직 장르가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어떤 문학작품 통해서 동화, 동요, 아동문학비평의 장르가 인식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동화 장르 인식

이솝우화와 변안동화를 통해서 동화 장르의 인식을 살펴보려 한다. 당시는 이미 언급했듯이 동화 장르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다. 당대는 어떤 분야이든 ‘이야기’라는 학술적이지 못한 용어를 뒤에 붙여서 동화처럼 집필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이솝우화와 변안동화를 통해서 동화의 장르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재철은 “동화라는 형식은 옛이야기나 민화 중에서 안데르센과 그림을 고향으로 하는 상징적인 문학형식으로서,(중략) 개개의 인물 조형과 디테일의 진실보다도 소박하게 요약된 미적 표현 가운데서 인간 일반의 보편적 진실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시에 가까운 산문”<sup>177)</sup>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동화’는 옛날이야기나 민담, 우화, 신화, 전설 등과 같은 설화의 종류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재구성 개작하거나 또는 그러한 특징을 동화라는

---

177)김정숙, 앞의 논문, 40쪽.

178)이재철, 앞의 책, 142쪽.

형태 속에 포용한 것으로, 다만 화법의 차이를 의미하는 문학 장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만을 놓고 보면 이것은 전래동화의 개념을 설명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고전물을 기반으로 전래동화가 생성되었기에 본 논의에서는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동화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동화 역시 근대와 함께 태동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장르가 생성되기까지는 그 전 단계에서 그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하위 장르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점들이 동화장르 형성에 기반이 되었고 어떻게 동화 장르 인식이 조성되어 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당대에 동화의 자리를 대신했던 이솝우화와 변안동화를 통해서 창작동화의 장르 인식에 대해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 1) 이솝우화의 번역과 수용

근대에 이르러 번역물이 아동 매체뿐만 아니라 성인 매체에도 똑같이 소개되었다. 외적으로는 세계주의 사상의 표명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제국들이 소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근대는 부르주아지의 자기 모순으로부터 시작된 제국들의 정복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물질적 생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산에서도 “모든 방면에서의 상호교류, 민족들간의 보편적 상호의존”이 엄연한 현실이었던 시대였다. 제국들은 ‘식민채널’로서의 번역을 필요로 했고 식민국들은 ‘탈식민화의 채널’로서 번역을 필요로 했다. 그만큼 근대는 번역적 현상을 도외시하기 힘든 사정이 존재한다.<sup>179)</sup>

한국의 근대 역시 이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 예외일 수 없었다. 19세기 말에서부터 다종다양한 번역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역사·전기류와

179) 민족문화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208쪽.

실용문의 번역이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1910년 이후로 변화를 겪는다. 일본은 그때까지 널리 유통되던 번역서들 중 역사전기류를 압수·발매금지했으며 더 이상 독립된 국가를 상상하도록 하는 번역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순문예와 관련된 번역물이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했다.<sup>180)</sup> 일제의 억압에 의해 순문예물 번역이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대중매체의 편집자들이 외국작품 중 아동물에 눈을 돌리게 된 시발점이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동물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쉽고 대상을 낮춰서 우회적으로 민족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불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아동문학이 태동하게 되었고 점점 그 형태가 드러나기에 이른다. 그 중 창작동화 장르의 인식을 가능케 한 이 솟우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화는 생물 또는 무생물을 빌어 도덕적 교훈을 일깨우는 이야기로서, 그 목적이 윤리적 설화에 있으며 교훈이 위주이고 흥미는 한낱 첨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메르헨이나 골계담 등과 다르다.<sup>181)</sup> 이와 같이 우화는 처음부터 교훈적인 훈화를 목적으로 한 문학이다. 우화는 언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해주고 주제를 뚜렷하게 전달해주는 데 적격이다. 또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아동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삶에 있어 필요한 덕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화는 동물들에게 일정한 성격과 역할을 배분하고 인간사의 일들을 이야기로 훈화하려 한다. 작가는 인물, 사건, 배경을 그의 의도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우화의 인물은 대부분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창작동화의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단순하고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사건과 행위 역시 단선적이며 주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우화에서 중요시 하는 점은 무엇보다 교육성이나 계몽성에 있다. 우화는 아

180)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위의 책, 209쪽.

181)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96(1983초판), 150-151쪽.

동에게 지혜와 인간사의 덕목을 습득하게 해주고, 그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 아동의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준다. 이러한 우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생성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후에 동화문학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솝우화는 ‘지혜의 교과서’로, 아동들의 ‘필독서’로 전 세계에 알려진 책이다. 이솝은 기원전 6세기쯤 프리지아에서 그리스로 와서 사모스 사람인 이아도몬의 노예로 일한 사람이다. 그는 이미 뛰어난 재담꾼이었고, 주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의 지혜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주인은 그 보답으로 그를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 만들어 주었다. 이솝우화는 처음부터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일상생활에서 논쟁이 생기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이용되었다고 한다. 중세말기부터 근대 초기에는 더욱 유명해져서 학교 교과서로 이용되기도 했다.<sup>182)</sup>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근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단행본으로 아동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솝우화가 계속 간행되고 있다. 마치 이솝우화가 지혜의 보고(寶庫), 도덕교과서인양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소년』<sup>183)</sup>에 변안된 우화로는 「이솝의 이약」이 있다. 제1차분으로 「바람과 벗」, 「主人할미와 下人」, 「孔雀과 鶴」을 소개하고 있다. 최남선도 역시 머리글에 우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고 있다.

182) 이솝, 한국어린이문화연구소 엮음, 『이솝우화 123가지』, 영림카디널, 2006(2005초판), 지은이 참조.

183) 이솝우화목록- 「바람과 벗」, 「主人할미와 下人」, 「孔雀과 鶴」(제1년제1권)/ 「승냥이와 양」, 「순이와 여호」, 「양의 가죽을 쓴 승냥이」, 「여호와 사자」(제2년제10권)  
『소년』에는 이솝우화와 흡사한 러시아 시인 쿠루이로프의 「쿠루이로프비유담」이 있다. 우화가 동물을 비유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쿠루이로프란 인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는 「蛙와 牛(개구리와 소)」, 「蠅과 蜂(파리와 벌)」, 「狼과 猫(고양이)」란 이야기가 세 편이 실려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이야기 끝마다 그 의미의 골자를 한자로 요약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이솝우화와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의인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분히 독자를 계몽하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약은 滿語家로 古今에 그 ㅅㅅ이업난 이솝의 述한것이라 世界上에 이와 갓히 愛讀者를 만히 가딘冊은 聖書뵈게는 ㅅㅅ업다하난바-니 乙未年頃에 우리 學部에서 編行한 「尋常小學」에도 이 글을 引用한곳이 만커니와 世界各國小學 校育書에 此書의 惠澤을 입디 아니한자-업난바-라 新文館編輯局에서 基一部를 翻譯하야 「再男伊工夫冊」 中一卷으로 不遠에 發行도 하거니와 此에는 每卷四 五節式 抄譯하고 ㅅㅅ혜 有名한內外交育家の 부티노니 ㅅㅅ난사람은 그 妙한 構想도 보려니와 神通한 萬意도 玩味하야 ㅅㅅ고 ㅅㅅ운말 가운데 ㅅㅅ고 ㅅㅅ려운 理致가 잇슴을 ㅅㅅ다 處身行事에 有助하도록하기를 바라노라.<sup>184)</sup>

「이솝의 우화」의 중요성으로 꼽은 것이 성서 다음으로 애독자를 많이 가진 책이며 전 세계 소학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적인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화는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상과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용으로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지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 대상이 아동부터 청,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붉은 저고리』나 『아이들보이』, 『새별』은 유아나 아동까지 대상이 낮게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대상층과 상관없이 우화가 교육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솝우화」를 보는 교육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상반된 두 가지 견해로 서로 대립되어 왔다. 라 폰텐(Jean de La Fontaine, 1621-1695)이 전자의 입장이라면, 루소(Jacques Rousseau, 1712-1778) 후자의 입장을 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후년의 반생을 바쳐 전 12권 237편의 우화를 시로 재활시킨 라 폰텐은 루이 14세와 와비 매리 테레즈 사이의 장자인 황태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문

184) 최남선, 『소년』 (제1년제1권), 1908.11.1, 24쪽.

최남선 이후 1921년 배한충의 『이솝우언』이 정리되어 묶여 나온 이래, 오늘날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의 영역에 무언가 교묘한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이솝이 도덕을 이야기한 형식일 것”<sup>185)</sup>이라 했을 만큼 「이솝우화」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우화가 어린이에게 미덕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악덕을 가르치기 쉽다고 한 루소는 실제 『라 폰텐 우화집』에 수록된 「여우와 까마귀」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자신의 결점을 조심하기보다 남의 결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루소는 대부분의 우화들이 몇몇 유형을 비롯하면서 노골적으로 진술된 도덕을 포함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았다.<sup>186)</sup> 이러한 상반된 시각으로 엇갈리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화는 분명히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몇몇 우화의 내용으로 보아 부정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이솝우화는 작가가 노예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교묘히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때문이다. 우화 속에 내포된 의미와 의도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우화가 가지고 있는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가치가 분명히 내재해있으면서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김용희는 우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선명한 메시지와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형적인 서술구조를 갖지 못했다는 점, 인물 지향적이기보다 행동 지향적이라 진정한 서사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처세술에 강할 뿐 선에 대한 보상이나 정의가 승리하리란 확신도 주지 못한 점, 구성 역시 단일사건으로 되어 있으며 짧고 간결한 이야기 방식을 취한 점 등을 들고 있다.<sup>187)</sup>

우화가 결코 창작동화는 될 수 없다. 동화가 아직 장르로 잡지 못한 시대에 우화를 현재의 동화처럼 독자들이 읽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

185)김태준, 『비교문학산고』,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55쪽.

186)J.J. 루소, 참교육가이드 엮음, 『에밀』, 산수야, 2004, 86-90쪽.

187)김용희, 앞의 논문, 51-52쪽 참조.

아동용 읽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 우화가 현재의 동화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독자들이 우화보다는 동화를 훨씬 많이 읽고, 창작동화의 출판이 훨씬 활성화된 것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화를 동화와 견주어 비교하여 동화에 미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장르란 것을 설명하거나 인식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우화는 그 시대의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수입된 장르였고, 제국들의 열망을 품은 장르이지만 당대는 그것을 통해 독자들을 긍정적으로 계몽하려 했다. 동화가 부재했던 시절, 현재의 동화처럼 독자의 선호도가 높았던 장르였다.

우화의 인물, 배경, 사건에서만 살펴보더라도 동화처럼 입체적인 인물이 아니며, 배경 역시 구체적인 곳이 제시되지 않는다. 또 사건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별 갈등구조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린다. 이렇게 미적 완성도나 탄탄한 구조를 이룩하지 못한 우화를 가지고 문학적인 것을 찾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동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당대를 보는 옳은 시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동화가 처음 시작부터 완벽한 모습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화의 사건은 한 가지 사건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 복잡·미묘하고 다채로운 서사구조를 가진 동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화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화가 출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최남선이 소개한 「이솝의 이약」에서 ‘배흘일’과 ‘가르팀’이라는 교훈적인 짧은 글을 첨부하여 유명한 교육가의 해설을 붙여 풀이해 놓고 있다. 이 사실 하나로도 충분히 계몽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편집자가 아동 독자들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지혜와 유모, 깊은 교훈을 인식하지 못 할 거라는 노파심이 표출된 셈이다. 최남선이 밝힌 우화의 중요성을 보면, “묘한 구성”, “신통한 우의”, “쉬운 말 가운데 집고 어려운 이치”를 꼽고 있다. 그

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도 노파심에 ‘배홀일’과 ‘가르침’을 첨부했다. 이것을 놓고 독자의 감상자유를 박탈했다거나 계몽의 의지가 극에 달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몽의 시기에 무엇인가 계몽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보다 더 좋은 교육자료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더 천착하다보니 돌이킬 수 없게 계몽성을 주장하는 데 우화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갑자기 독자의 대상이 낮아졌기 때문에 『붉은 저고리』 188)에 와서는 확연히 우화가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화는 언어이해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 아동신문에 수록된 우화들 대부분이 권선징악적인 훈화를 담고 있다. 또 『소년』지의 우화에 ‘배홀일’과 ‘가르침’이란 글이 첨부된 것처럼, 『붉은 저고리』의 우화에도 ‘가르침’과 ‘풀이’란 글을 첨부해놓았다. 이것은 아동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방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화 중에서 교훈성이 왜곡되게 묘사한 작품도 있다.

어느 별판에서 매가 넘어 정신 업시 비뚤이를 잡으라 쫓다가 눈이 다 검검  
 혀야 그릇가마귀 그들에게 걸넛습니다 멀지 아니 혼디서 일 하던 농군이 보고  
 얼는 달겨들어서 그들에 끼어서 회를 푸드덕푸드덕 치는 매를 잡아죽이려 하니

188) 『붉은 저고리』에 수록된 우화

잡지 호수	우 화
제1년제1호	
제1년제2호	어렵이 업시 남속라던 스즈의 되속던 이악이
제1년제3호	
제1년제4호	남성이와 독수리/여호와 닭
제1년제5호	어이 종달새와 색기 종달새/양의 가죽을 쓴 이리
제1년제6호	토끼와 개고리/여호와 이리
제1년제7호	숫 장수와 빨내장이/락타
제1년제8호	매와 농군
제1년제9호	구두쇠
제1년제10호	한머니와 종 아희/여호와 토끼/개와 여물통
제1년제11호	말과 스즈/개미와 멧독이/가막이와 공작/스즈 가죽 쓴 나귀

매가 깜짝 놀라 작고 살너달라하면서 나는 다만 비둘이를 쏘차다녔을뿐이지  
처음부터 죽이려 하지도 아니하고 또 죽이지도 아니하였거늘 농군이 『그  
러면 비둘기가 네게 그리 쫓겨다닐 무슨 허물을 지었느냐』 하고 곧 매를 죽였  
습니다<sup>189)</sup>

이 작품은 자신에게 나쁜 일은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라는 교훈을 준다.  
매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쫓다가 까마귀 그물에 걸려 농군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기에 이른다. 물론 야생의 세계에서 사냥은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다  
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화의 대부분은 동물들을 등장시켜 그  
행동에 대해 교화하려는 것이 대다수이다. 매가 비둘기를 잡으려는 것은 괜  
찮고, 농군이 자신을 잡으려는 것은 부당한 것인가? 또 매가 결과적으로 비  
둘기도 못 잡았으니 자신을 놓아주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  
다. 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제삼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합리화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  
서 이 작품은 교훈성이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화 중에 자  
신의 처세술에 급급한 내용을 담은 작품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것은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화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남다른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이솝이었지만 노예라는 신분을 넘어설 수 없  
었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하면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그대로  
작품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는 이솝우화를 대체할 만한  
창작동화가 많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당시는 아동 독자들을 계몽할  
교육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나 이솝우화를 교육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 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동매체에서 우화가 차지하는  
양도 많았고 비중도 컸다. 근대문명이 유입되던 시기에 해외작품을 번역해  
서 보는 것은 유행처럼 되어버렸다. 특히 우화는 우리식으로 재구성하는 변

189) 『매와 농군』, 『붉은 저고리』(제1년제8호), 1913.4.1, 5쪽.

안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대부분 원전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우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화가 제대로 잡지 못한 시대에 오히려 해외에서 수입된 우화는 교육용으로 유용하게 쓰였고 더 의존하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현재의 잣대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지만, 당대에는 아동 독서물로 유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때문에 독자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아이들보이』에 오면 우화의 양이 『붉은저고리』에 비해 확연히 적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동화<sup>190)</sup>의 양이 증가되었다. 문학에서 교훈성을 전할 때도 고도의 문학적인 기법이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우화는 무엇인가를 비유한 비유담이고 이 비유담은 에피소드화 할 수 있다. 의인화나 문체의 간결성, 주제의 함축, 친숙한 동식물의 등장 등의 특징은 동화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화의 이야기 구조에 또 다른 화소를 덧붙여, 개작하기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로 재생산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얼마든지 아동의 생활감정이나 심리에 적합하게 개작이나 재화하여 새로운 문학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 우화에 내포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문학적으로 예술성이 있는 작품으로 재생산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때문에 『아이들보이』<sup>191)</sup>에서는 우화의 양이 많지는 않다. 『소년』의 우화 속에 ‘배흘일’과 ‘가르팀’, 『붉은 저고리』의 ‘가르침’과 ‘풀이’라고 첨부된 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교훈적

190) 아직 동화라는 장르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동화의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외국문학을 번안하거나 번역된 동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편의상 이 논문에서는 ‘동화’로 칭한다.

191) 『아이들보이』에 수록된 우화

잡지호수	우 화
제2호	조흔 사람 안된 사람
제7호	범과 참새 2
제8호	정위새
제9호	가막이와 물항아리/과부와 압뿔
제11호	락타와 돛

\*잡지 12호 중 다섯 호에서만 우화가 수록되어 있다. 다른 잡지들에 비해 확실히 양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고 계몽적이었던 틀에서 벗어나 작품 속에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간간히 우화 끝에 집필자가 훈화를 덧붙인 것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이 훨씬 많다. 또 주제로 지혜나 욕심에 대한 경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등이 잘 나타나 있다.

『키 큰것이 조흐나 그것도 긴흔 곳에서만 조흔것이오 키작은것도 긴흔 곳에서는 역시 조흔것이로군』

하는 생각이 낫습니다 그리흐야 앓가 턱업는 내기 혼일을 뉘우치고 피츠 서로 이 담부터는 제가 올타고흐는 싸흠을 아니흐기로 흐고 그뒤고는 각기 남만 못흔 일을 서로 도아 사이 조케 지넛습니다<sup>192)</sup>

키가 큰 락타와 키가 작은 돛이 서로 잘난 척 하며 내기를 시작한다. 등장인물을 통해 상대를 타자 시 하는 ‘타자개념이 형성되고 타자의 부정적 개념, 즉 나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타자개념이 고착화<sup>193)</sup>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쪽만 유리한 내기는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이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치는 상황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독자들에게 단순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상대를 타자시 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주제는 이솝우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것은 아동의 또래집단이나 나아가 사회 속 인간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동 독자들에게 통찰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새별』(제16호)에는 우화가 부록에 소개되어 있다. 다섯 가지 교훈을

192) 「락타와 돛」, 『아이들보이』(제11호), 1914.7.5, 30쪽.

193) 한영옥, 「허영자 시 연구」, 『허영자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176쪽.

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리석음에 대한 경계, 배움, 화려한 것은 독이 있음, 애씀과 노력, 겸손’이란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도 보편적인 진리와 덕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동 매체가 공통적으로 이솝우화를 게재하고 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었다. 후대 잡지로 갈수록 그 양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이솝우화를 통해 동화 장르의 인식을 하게 된 점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근대 초기 서구의 번역물이 유입되던 시기였고 국내와 중국 독서물에만 의존해 왔던 독자층에게 어느 때보다 이국적인 외국 번역물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화는 세계적인 보편 진리와 인간이 배워야 할 덕목을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식하게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당시로서는 그만한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미 성경과 견줄 만큼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료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솝우화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화가 동화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화가 제대로 잡지 못한 시대, 우화가 동화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우화를 독자의 계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독자에게 수용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솝우화를 함부로 결론짓지 못하는 것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후에 동화 장르가 생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솝우화를 통해 동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후대에 가면 동화 장르가 실현되는 결과도 볼 수 있게 된다.

## 2) 변안동화의 수용과 적용

변안동화에서도 장르인식의 태동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 변안동화는 서

양동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변안동화는 외국의 원작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인정·풍속·지명·인명 같은 것을 우리 식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이러한 변안물이 당시에는 유행이었다. 변안은 번역의 과정을 한번 거친 작업이다. 일차 번역을 통해 줄거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다. 외국작품을 그대로 이해하는 번역과 달리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에 대한 배려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인들보다 경험의 폭이 다양하지 못하고 문학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해외문물에 대한 이해는 더 부족하다. 때문에 아동들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아동 매체에 게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인과 아동, 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했던 그 때까지의 상황을 종료하고 진정한 아동의 개념을 찾아가는 과정에 시작된 것이다. 대표적 변안물로는 서양동화를 들 수 있다. 아직 동화라고 할 만한 창작물이 없었던 것을 가만해볼 때, 그림형제<sup>194)</sup>와 안데르센<sup>195)</sup>을

194)형 야코프 그림(Jacob Grimm, 1785.1.4~1863.9.20)와 동생 빌헬름 그림(Wilhelm Grimm, 1786.2.24~1859.12.16)은 독일의 언어학자, 문학학자이다. 독일 헤센주 하나우 출생이고 대학에서는 법률을 배웠다. 도서관에 근무한 후 1830년 괴팅겐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교수가 되었으며, 하노버 왕의 헌법 위반을 규탄하여 이른바 '괴팅겐 7교수사건'에 들어 공국 밖으로 추방당하였다. 1841년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으로 추천되었다. 이상의 경력은 연년생인 형제가 똑같다. 경력뿐만 아니라, 전문분야도 똑같이 언어학이며, 《그림동화 Kinder-und Hausmärchen》(1812~1875) 《독일전설 Deutsche Sagen》(1816~1818) 《독일어 사전 Deutsches Wörterbuch》(1852~1960) 등 공동 저작도 많다. 특히 《독일어 사전》은 1854년에 제1권을 낸 이후, 여러 학자가 계승하여 1861년에 완성하였다.

이 밖에 게르만 언어학의 창시자로서 형은 《독일어 문법》(1819~1837) 《독일어사》(1848), 동생은 《독일 영웅전설》의 저작이 있다. 그들의 전문분야인 언어학의 영역에서는 형 야코프가 보다 큰 업적을 남겼으나, 그림 형제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높인 《그림동화》를 만드는 데는 동생 빌헬름이 더 큰 역할을 하였다. 수집한 옛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다듬은 사람은 주로 동생이다. 그들이 게르만 언어학의 연구, 그리고 독일의 옛이야기와 전설의 수집으로 전환한 계기는 낭만과 문학에 의하여 촉발된 향토적·서민적인 것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인한다.

195)안데르센(Andersen, Hans Christian, 1805.4.2.~1875.8.4)은 덴마크의 동화작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를 남겼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당시의 엄격한 계급 구조를 타파하고자 힘겹게 투쟁했다. 1828년 코펜하겐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장르의 글도 남겼지만 특히 동화에서 빛을 보았다. 첫 번째 동화책인 <어린이들을 위한 옛날 이야기 Eventyr, fortalte for b'øn> (1835)에는 <부시통 The Tinderbox> · <땅딸이 클라우스와 키다리 클라우스 Little Claus and Big Claus> · <공주와 완두콩 The Princess and the Pea> · <꼬마 이다의 꽃 Little Ida's Flowers> 등이 실려 있다. 여기에 동화 2편을 더 실어 <동화집 Eventyr> (1837)을 냈고, 제2권은 1842년에 완성했다. 이 2권외에도 <그림 없는 그림책 Billedbog uden Billeder> (1840)

비롯한 서구의 작가들의 동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아직 동화로 장르가 정착되지 못해서 아동들의 특성에 적합한 작품을 만나기 힘들었다. 아동 매체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 고전소설이나 설화였다. 이런 실정에서 독자들이 번안동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최남선은 일찍이 아동교육을 위해 동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20년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동화는 아동 교육의 전부요 핵심이며 교육은 한 민족 한 국가, 한 집단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롭게 발전된 시대의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반이 된다는 것”<sup>196)</sup>

아직까지 동화를 아동교육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1920년대에도 동화 장르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최남선은 동화를 현재처럼 문학의 영역에서 해석하기보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여전히 당대의 당면과제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다. 동화를 독자들의 순수한 독서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교육하는 텍스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한계라 할 것이다.

『소년』지는 그림형제 동화 대신 그리스신화를 번안한 하우쏘온의 원작 「何故로, 솟이通一年, 피지, 안나뇨」(제2년제5권)란 작품이 소개되었다.

---

을 발표했다. 동화 장르는 <새로운 동화와 이야기집 Nye eventyr og historier> (1858~72)이 나오으로써 더 확장되었다. 그의 동화집들은 문체와 내용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야기를 엮어가는 방식에서 진정 혁신적인 작가로서 그는 구어체 관용어와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문어체 문학 전통과 결별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엮어가는 능력과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간 전설의 보편적 요소들과 결합해 수많은 문화권에서도 환영받는 동화가 되었다.

196) 최남선, '동화와 문화-안데르센을 곱함', 『동아일보』, 1925.8.12.

이것은 동화의 첫 부분이다. ‘前에前에’란 서두를 시작하는 말은 일본어의 ‘むかし むかし’의 영향으로 우리의 전래동화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옛날에’를 뜻한다. 신화를 변안동화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래동화와 같은 서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원전 줄거리에 충실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우리식으로 바꿔놓았을 뿐이다. 독자들이 등장인물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영소저’와 ‘씨앗부인’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무영소저’는 무성할 무(茂)에 꽃부리 영(英)을 쓰기 때문에 이 작품이 꽃과 연관된 동화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씨앗부인’도 마찬가지로 꽃의 모체가 되는 씨를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꽃에 관한 전설의 일부처럼 꽃이 지하에, 지상에 반반씩 있게 된 사연을 동화로 재구성하고 있다. 최근 독자들에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판타지처럼 이 동화에서도 환상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다시 힘을 드려 몹시 잡아다녔더니 이번에는 땅이 갈나지며 地下에서 쿵쿵 소리가 남으로 놀나 손을 노앗다가 다시 아모 기척이 엽슴으로 아마 헛소리를 들었나보다하고 더욱 힘을 드려 썩으니 뿌리까지 썩히난서슬에 小姐가 그만 뒤흐로 넘어질뻔하얏더라. 썩힌구멍을 본즉 움작이지 아니한 것이 싸닭이잇도다 그 뿌리가 빠진 구멍의 곱흙데 소저도 입이 싹버러져 정신엽시 들여다보니 異常하다 그구멍이 漸漸 깊히지면서 앗가 들니던 소리가 아주 갓갓게 들니던 소리가 아주 갓갓게 들니난지라 하도 異常하야서 아모 소리도 못하고 어대로 가리란 생각도 못하고 얼이 빠져섯더니 今時에 그 구멍으로서 金剛石으로 씬인 光明이 異常한 冠을 쓰고 그 얼굴에 어늬구석엔지 不平不滿의 빛을 쨌

197) 「꽃에 관한 동화」, 『소년』(제2년제5권), 1909.5.1, 49쪽.

사람이 黃金으로 만든 馬車를 타고 駿馬네 필에 썰니면서 나아오거늘 소저는 더욱더욱 놀라서 웃지할줄 모르고 잠자코 잇스죽 그 사람이 어려운 어골에 일 부러 우숨을 썩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어(중략)<sup>198)</sup>

무영소저가 어머니인 씨앗부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용궁의 아가씨들과 놀게 된다. 용궁의 아가씨들에게 꽃을 꺾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얀 꽃을 뽑는 과정에서 꽃이 안 뽑혀서 있는 힘을 다 해서 뽑게 된다. 그 뽑힌 구멍이 판타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지상세계(현실)에서 지하세계(환상)의 왕을 불러내는 계기가 된다. 뽑힌 구멍이 점점 깊어지면서 황금빛으로 눈부신 관을 쓴 환상세계의 왕과 황금마차가 등장한다. 이러한 환상적인 장면묘사와 구체적인 인물묘사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한순간에 환상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서사구조는 단순하지만 환상적인 등장인물과 배경, 인물묘사로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것이다. 전래동화에도 환상성이 내재해 있지만 전격적인 환상동화는 아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환상동화적인 요소들을 인물이나 환상과 현실을 잇는 출입구, 환상적인 물건, 환상적 사건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상동화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형 야콥 그림(Jacob Grimm)과 동생 빌헬름 그림(Wilhelm Grimm)은 신화와 전설, 민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설화를 수집하여 예술적으로 다듬어서 동화집으로 내놓았다. 결국 그림형제의 동화도 서양의 설화를 재화한 전래동화인 셈이다. 번안된 것이라도 줄거리를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최남선은 외국작품 중에 그림형제 동화를 아동 매체에 게재했다. 작가를 밝힌 것보다 밝히지 않은 것이 더 많아 원전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198) 「꽃에 관한 동화」, 『소년』(제2년제5권), 1909.5.1, 50-51쪽.

『붉은 저고리』에는 「짜님의 간곳」(제1년제1호)과 「네 아오 동생」(제1년제2호)이 있다. 작품 서두를 전래동화처럼 ‘넋날에~’로 시작한다. 그림 형제의 동화도 역시 설화에서 재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이성의 힘으로 무의식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다. 아동은 백일몽 속에서 천천히 무의식과 친숙해지면서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무의식적 억압과 부합되는 요소들을 만나면, 그것들을 되새겨 보고 이리저리 맞추어 보고 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억압과 친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무의식적 내용을 환상의 형태로 의식하게 되는데, 이 환상으로 무의식적 억압에 대처하게 된다. 옛이야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옛이야기는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을 아동의 상상력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옛이야기의 형식과 구조가 제시하는 이미지를 통해 아동들은 백일몽을 만들며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sup>199)</sup> 독자들에게 이러한 옛이야기의 형식과 구조가 이미 익숙하므로 번안동화를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전래동화의 보편적인 특징은 같지만 각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듯이 번안동화도 그렇다.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 문학적인 이야기도 모두 ‘이야기’로 통칭하던 시대를 감안하면 번안동화가 독자들에게는 주는 재미와 감동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두 작품은 전래동화의 법칙들을 잘 따르고 있다. ‘넋날에 넋날에-’로 시작하는 서두의 법칙과 결말부분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형식은 독자들에게 친숙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사건들이 몇 번씩 반복되는 것도 독자들이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반복의 법칙이다. 이런 요소들은 보편적인 전래동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 전래동화와는 다른 서구적인 내용이다. 장자나 남자들에게만 유산되던 상속

---

199) 브루노 베텔하임, 김순옥·주옥 역,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04(초판1998), 18쪽.

문제를 세 딸들에게 준다는 것과 형제 중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상속을 하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은연 중에 서양의 물질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와 토론할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지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는 것은 분명 근대적인 동화와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 모두 화자가 직접 교훈적인 설교조의 교화를 늘어놓는데 겨우 근대적 창작동화에 접근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격이 되었다. 원작 이외에 편집자가 함부로 끼어든 것은 결코 교육적이라 볼 수 없겠지만 당시 시대상과 부합된 편집자의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특히 「네 아오 동생」은 말미에 ‘생각하실일’이란 교훈적인 글을 덧붙여서 작품의 질을 떨어뜨린다. 편집자의 과잉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다.

『아이들보이』는 「겨집아이 슬귀」(제2호)는 원작이 그림형제의 ‘농부의 영리한 딸’이다. 「날낸이 여섯」(제3호)도 역시 원작이 그림형제의 ‘세상을 헤쳐 나간 여섯 사내’이다. 임금을 원님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원작과 똑같다. 그 밖에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거짓 아드님 참 아드님」(제8호, 원작: 거지와 왕자)과 안더센(안데르센)의 「네 절기 이약이」(제10호), 작자 미상인 「프레드의 쌍쌍이」(제5호), 「아버지 병환」(제7호), 「닐곱 동생」(제9호), 「수탉의 알」(제10호), 「병 부자」(제11호) 등도 있다. 대부분 일본판관을 들여와 증역해서 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자를 확인하기 힘들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사실주의 문학에 일조한 작가이다.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그의 문학이 당시 상황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짓 아드님 참 아드님」은 왕자와 거지가 역할을 바꿈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얻은 경험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넘나들 수 없는 계급의 등장인물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개되는 사건들의 연속, 결말부분에 극적인 반전은 독자들의 흥미와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준다.

이 잡지에 처음으로 그림형제와 쌍벽을 이루는 안데르센이 처음 소개된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 「네 절기 이약이」는 동화적 낭만성과 서정성, 환상성을 가진 작품이다. 네 계절이 오고가는 것을 환상적인 기법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안데르센도 사회의 약자 편에서 저항하던 작가였고 그런 작품들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한 작품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잡지는 앞의 두 아동 매체에 비해 동화의 양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점점 동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들도 전대와 마찬가지로 전래동화의 형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동화의 주제로 ‘의리와 인정, 희생정신, 지혜, 자연의 순리, 욕심에 대한 경계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잡지의 그림형제의 동화에서 ‘지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동화가 특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편집자가 현재 더 많이 알려진 ‘백설공주나 헨젤과 그레텔,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같은 동화를 제외하고 이런 동화를 선별한 이유는 당시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 강점을 당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삶만이 당대의 힘든 삶을 극복하며 살 수 있고, 이것은 곧 독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최남선의 동화선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대성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별』에 이광수가 안데르센 동화가 소개되기 시작한다. 「황제의 새 옷」(원작: 별거벗은 임금님, 제15호)과 「성냥팔이 처녀」(원작: 성냥팔이 소녀, 제16호)가 게재되어 있다. ‘넛날~’로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이 동화

도 마찬가지다. 전래동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다. 「황제의 새 옷」에는 인간들의 거짓과 가식에 대한 풍자와 천진난만한 아이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 들어간 임금과 신하,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사기꾼의 함정에 빠져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황제가 행차할 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린 아이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료해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실의 힘’이었다. 「성냥팔이 처녀」는 안데르센이 자신과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을 동일시 한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동화이다. 작품 속에서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성냥팔이 처녀는 점점 극한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끝내 할머니가 있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결말로 끝을 맺는다. 현실의 불행은 작가가 해결할 수 없지만 사후에 하늘나라에 간다는 설정은 작가가 독자와 등장인물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은 작가의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다. 그는 슬픈 자전적 요소가 강한 소재를 많이 채택했다. 소외받는 인물들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생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은 그의 동화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특히 우리의 상황도 성냥팔이 처녀와 비슷한 극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안데르센이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했던 보잘 것 없는 인물들을 소재로 동화를 창작했고 그런 점이 당대의 사회적 배경과 맞아서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집필자는 독자에게서 얻은 공감대를 확대하여 당대 현실과 처지가 같은 외국동화를 신문관에서 지속적으로 출판하였다. 『불상한 동무』(원제:A dog of Flanders)와 『검둥이의 설움』(원제:The Uncle Tom's Cabin)이란 작품인데, 『불상한 동무』 서문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나는 이 세상 젊은 친구, 우리와 같은 이게 드리노라.

이것이 한 짧은 이야기에 지나지 못하오니, 느낌으로는 반편인 우리 따위에  
게는, 또한 적지 아니한 찌름이 될 듯하오나, 이는 여러분께 한 번 보십소서하  
는 까닭이요, 외로움과 괴로움은 몇 해부터 내 살림의 원통이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중, 그래도 마음 붙이는 곳은 책이라, 점잖은 옛글도 많이 보고,  
빛진한 새 생각도 적지 많이 만나보아, 다 얼마큼씩 맛을 아는 가운데서도 그  
리 길지도 아니하고 어수선하지도 아니한 이것에서, 그렇도록 깊은 느낌과 굳  
센 박힘을 얻었음은 아무 때 생각하여도 이상스러운 일이요, 더욱 갑갑한 때  
마다 다섯 여섯 번이나 쓸쓸함으로써 나를 끌어내어 좁은 잇을 수 없는 신세  
라.<sup>200)</sup>

이 작품의 서문을 통해서 독자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동병상련의 공감  
대를 형성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  
자가 변안동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화가 아직 제자리를 매김하지 못할 때 동화의 형태로 변안된 서양동화  
는 분명 독자들에게 매력적이다. 변안은 번역을 거쳐서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된 것이다. 동화를 변안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단적인 예로,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게 배경이나  
인명 등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대부분 당시 상황과 맞는  
'지혜'와 '협동'같은 것이 많았다. 동화를 순수하게 아동 독자들의 독서물로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나 더 다양한 주제의 동화를  
소개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미흡한 점에도 불구  
하고 당대 아동 독자들은 변안동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변안동화라고  
소개된 동화들은 지금까지도 '세계명작'이라고 아동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

200)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육당 최남선 전집 13』, 269쪽.

최남선은 초기의 번역 및 출판의도가 번역문학의 장르를 본격적으로 출판하고자 함에 있다기보다  
교훈주의에 입각한 번역 및 출판태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이것이 그림형제나 안데르센, 그 밖의 서구 작가들의 창작동화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형제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옛이야기에 충실하려고 했고, 안데르센은 옛이야기와 그의 창작이 많이 가미된 동화이다. 그림형제나 안데르센은 그들 나라의 설화를 기본 자료로 해서 창작을 한 작가이다. 변안동화는 우리의 전래동화와 내용과 형식이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한편으로 주제나 소재에서 색다른 면도 적지 않다. 이국적이고 문명화된 서구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동화가 단순히 연령이 적은 독자를 대상으로 했다가보다 다름 아닌 근대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장르이고 신진 지식층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시대적 욕망을 발현된 것이었다. 동화 속에 구현된 세계, 구현된 사상과 가치관은 서구의 사고와 가치가 고스란히 융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니 동화선별에 있어 제약이 있었다. 이것은 독자들이 다양한 서양동화를 만나는데 제한을 두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서양의 동화를 맛보게 되므로 해서 서구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구성과 내용면에서 고전작품이나 우화보다 더 세련되고 즐거움을 주는 독서물로 자리 잡게 된다. 독자들은 점차 현대에 만날 수 있는 창작동화와 가까운 형태를 보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동화에 대한 장르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변안동화를 통해 전래동화의 성격은 물론이거니와 근·현대에 볼 수 있는 창작동화의 장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 2. 동요 장르 인식

동요는 우리 근대 아동문학의 특수한 환경에서 태어난 독특한 갈래이다. 동요가 등장하기 바로 전 시대에 성행하던 시가 양식이 바로 ‘신체시’와 ‘창

가'인데, 동요는 특히 창가적의 후속적 양식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갈래라고 할 수 있다.<sup>201)</sup>

창가가 아동 매체와 교과서에 발표되어 당시 아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근대 초기에는 애국 계몽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자주독립과 문명개화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일제가 강점한 이후부터는 애국계몽적인 내용보다는 자연과 일상을 노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현대의 동요가 나오기 전에 전래동요는 아동들의 욕망과 꿈이 담겨있었던 반면, 창작동요는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위한 노래를 뜻한다. 동요는 아동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므로 가사와 멜로디가 있다. 즉 문학성과 음악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이다.

동시가 정형적인 형식이나 리듬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반면 동요는 일종의 정형시로 볼 수 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전래동요가 4·4조, 7·5조의 운율을 지켜오다가 그 이후 창작동요가 모습을 보이면서 내용과 형식면에서 보다 신선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아동 매체에 나타난 동화요와 창가를 통해서 어떻게 동요 장르의 인식이 형성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동화요의 생성과 수용

최남선은 '즈미잇는 이약이'의식을 가지고 아동잡지를 편집했다는 것은 그의 창간동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이 주는 재미는 다양한 방면에서 줄 수 있지만 대부분 독자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은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에서이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작가이다. 주지하다시피

---

201) 신현재·권혁준·곽춘욱, 『아동문학과 교육』, 박이정, 2007, 121-122쪽.

당시는 아동문단도 시작하는 단계였고, 아동문학가도 사실상 부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남선이 초반에는 혼자서 아동문학을 짚어지고 가는 형태였고 후에 이광수가 참여하게 되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서 아동문학이 시작되었고 그나마 장르도 미분화된 상태였다.

『아이들보이』와 『새별』에 독특한 장르가 발견된다. 최남선이 『아이들보이』에 ‘동화요’란 새롭고 실험적인 장르를 개척하기에 이른다. 『새별』에 있는 동화요는 외배(이광수)가 최남선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야기와 시와 노래를 한꺼번에 접목시킨 형태이다. 이런 방식의 장르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비판의 소리를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장르가 뒤죽박죽 섞여서 분명한 한 장르가 생성되지 못한 원시적인 장르라고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동화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설화나 고전소설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아동을 위한 동시나 동요도 극소수였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동화요가 그렇게 비난 받을 장르는 아니란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고전의 변용된 형태의 작품을 대할 때 독자들은 매우 흥미롭고 새롭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이들보이』에 대거 실려 있는데 「흥부놀부」(제2-3호), 「심청」(제4-5호), 「세선비」(6-8호), 「웃나거라 썩썩」(제9호), 「나무군으로 신선」(제10-11호), 「남잡이가 저잡이」(제12호)가 그것이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고전소설이나 설화를 7·5조 형식으로 각색해 놓고 있다.

청이겨오행 허야	인당소오니
모든장새제물을	가초벌니고
시각이느저감을	걱정 허다가
움을보더니박비	들라 허거늘 <sup>202)</sup>

202) 「심청」, 『아이들보이』(제5호), 1914.1.5, 22쪽.

인용한 「심청」처럼 다른 작품들도 똑같이 7·5조의 율격에 맞추어 4행 1절로 각색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내용의 변용이라기보다 고전문학의 형식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면밀히 검토해 볼 때 고전의 한 변용이라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것은 시각적으로 동시와 동요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때까지 보던 고전물과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전작품의 서사를 가지고 동시의 형식을 취하고 동요처럼 리듬을 주어 아동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독자들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작품 말미에 집필자가 교훈적인 논평을 달아 놓아서 개작근거를 알려주고 있다.

정성으로울흠을	힘쓰는힘이
아아귀어울시고	무서울시고
생각ㅎ매가르침	크기도ㅎ다
잘해까지숫다울	심청의이일 <sup>203)</sup>

집필자가 생각하는 교훈적인 훈화를 본문과 똑같은 형식으로 덧붙여서 독자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것은 아동이 독자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고 작품의 교훈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새별』에는 이광수가 소개한 「허생전」(제16호)이란 동화요가 있다. 이것은 이미 『아이들보이』에 고전소설로 소개된 바 있고, 여기서는 운문의 형태인 동화요로 발표되었다.

서울이라	下南村에	선배한분	살더니라
움막사리	단간草屋	食具라고	다만内外
집웅에는	풀영크고	섬밋헤는	삶이잔다

203) 「심청」, 『아이들보이』(제5호), 1914.1.5, 28쪽.

五更외북 萬戶長安 꿈인듯이 고요한대  
가들가들 가는초물 그린듯이 도도안저  
외오나니 聖經賢傳 글소리만 들리더라<sup>204)</sup>

이 작품은 『아이들보이』에 소개된 7·5조의 동화요와는 달리 4·4, 4·4조로 6행 1절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율격인 4·4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전작품과 잘 어울리는 율격이라 할 수 있다. 이광수는 최남선과 같은 동화요를 창안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최남선과는 다른 율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전소설의 맛을 잘 살리면서 동요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고전작품에서 개작한 동화요는 서사장르와 서정장르가 혼합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화요는 아직 이야기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성이란 구체적 장면 위주가 아니라 설명과 요약 진술에 의존하는 이야기하는 수법에 의존한 것이며, 이는 아직 다른 장르의 침투와 영향을 덜 받은 서사문학의 원시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sup>205)</sup>이다. 아직 미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동화요는 아동문학 여러 장르의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고 있다. 이미 익숙한 내용의 고전물을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 전래동화 장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흥부놀부」, 「심청」, 「웃나거라 썩썩」(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은 전래동화로 재화되어 출판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당대는 전래동화로 재창작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전래동화로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동화요는 고전물이 전래동화로 재구성된 것뿐만 아니라 창작동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준다. 수많은

204) 외배, 「허생전-상」, 『새별』(제16호), 1915.1.5, 22쪽.

205) 윤명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2000, 95쪽.

고전작품 속에 인물, 배경, 사건, 가치관 등은 후대 작가들이 동화를 창작하는데 훌륭한 소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형식에 있어서도 동시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무엇보다 리듬감을 주기 때문에 동요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아직 현대적인 동요의 면모는 갖추지 못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요 장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동화요는 전래동요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전승되는 전래동요는 음악성과 흥미성을 갖추고 있다. 여러 아이들이 어울려 함께 소리를 내어 부르든 혼자 흥얼거리면 부르든 전래동요는 운율이 잘 맞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sup>206)</sup> 최남선이 실험적으로 만든 장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래동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동 독자들이 리듬감이 있는 동요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동요는 가르치기보다 노는 듯이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수용되어야 한다. 또 전래동요와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그 전승방법에 의한 분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래동요의 전승방법에 의한 분류로 기재동요와 구전동요가 있다. 그 중 “기재동요(記載童謠) 중에 소설 삼입동요가 있는데 고전소설이나 판소리에 삼입, 인용된 것”<sup>207)</sup>이라고 하고 있다. 이 동화요에서도 고전소설이나 설화에 있는 서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래동요와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실험적 장르인 동화요는 아동 독자들에게 잘 맞는 장르이다. 특히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와 같은 내용은 아동들이 흥미로워 하고 놀이하듯 부를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동화요는 최남선이 아동문학잡지에 남긴 어떤 창작물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과이다. 이것은 최남선이 아동문학을 보는 낯다른 시각과 다양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요는 엄밀히 말해서 창작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동화요를 통해서 아동문학의 다양한 장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206) 신현재·권혁준·곽춘욱, 앞의 책, 107쪽.

207) 신현재·권혁준·곽춘욱, 위의 책, 102쪽.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전작품을 차용한 전래동화 장르의 가능성과 여기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창작동화 장르의 가능성, 형식면에서 동시, 동요의 장르를 가능케 해준다. 특히 동요의 장르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고전소설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래동요와도 상당부분 비슷한 면이 있었다. 동요는 음악성과 흥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 독자들이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장르이다. 때문에 아동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평상시에 어떤 장르보다 근접해있는 것이다. 동화를 통해 각 장르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특히 동요 장르가 형성·정착되는 계기를 갖게 해주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창가의 수용과 유포

창가 역시 한국 창작동요의 길을 열어 준 장르이다. 창가는 문학과 음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아동 독자들에게 더 인기를 끌게 된다.

아동문학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창가는 아동문학 개척자가 저작한 어린이를 위한 동심의 노래, 아동문학과 관련이 있거나 창작동요에 영향을 미친 노래, 어린이들이 부르며 즐겼던 노래만을 가리킨다.<sup>208)</sup>

창가문학은 거의 최남선 한 사람에 의해 개발이 되었으며 그 유형은 기행요·전기요·동화요 등 다양한 장·단시들이었다. 이들 창가는 7·5조의 노래가 대부분이었으며 계몽과 교육에 중점을 둔 공리적인 내용이었어서 다음 시대에 이르러 보다 예술성격을 띤 창작동요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최남선의 창가 중 장가의 경우는 대부분 7·5조 4행을 1절로 하는 시형이었는데 이런 시형은 다음 시대의 창작동요로 이어져, 그가 시작한 분절법·대구법과 함께

---

208) 신현득, 「한국 동시사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39쪽.

동요의 주형식이 된다. 그의 장가는 그 음수율이 4·4조에서 7·5조로 바뀌었을 뿐 길이의 제한 없이 연창(聯唱)하는 점에서 옛가사(歌辭)의 방법을 잇는 것이기도 하였다.<sup>209)</sup>

최남선이 창작한 창가 이외에 학교창가도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보통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창가들이다. 이것들 모두 다음 창작동요시대의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 최남선의 창가는 대부분 『소년』에 게재되어 있고, 『붉은 저고리』에 게재된 창가들은 『보통교육창가집』이란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아동신문에 재수록한 것이다.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소개하고 있고 이 신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 신문에 수록된 창가가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한 창가<sup>210)</sup>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샘(최남선)이 첫 부분에 창가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나 상황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짧은 글이 나오고 뒤이어 『보통교육창가집』에서 발췌한 창가를 게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교육창가집』은 보통학교 학생들의 음악책인데 여기에 실린 창가들은 일본적인 율격과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교과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매체이다. 이런 교과서에 발표된 창가를 재수록 하는 이유는 아직 동요가 활성화 되지 못한 시대에 작가가 부재했던 원인도 있고, 아동용 창가로서 더 좋은 자료를 찾기 힘들어서 일 것이다.

일반적인 창가는 딱딱하고 선동적인 계몽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또 교훈적이거나 민족성이 노출되는 것이 두드러지는데 아동용 창가는 동심을 불러내기도 하고 일상적이고 서정적이며 교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심을 불러내는 소재의 창가로는 ‘은진 미력’(제1년제1호)이 있다. 천년

209) 신현득, 앞의 논문, 38쪽.

210) 『붉은 저고리』 - 제5호, 제6호, 제10호에는 창가가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을 우뚝 서있는 석상조차도 동심을 불어넣어 아동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묘사한 것이다. 오랜 세월을 견딘 은진 미력상의 위엄보다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외롭고 쓸쓸하게 느끼며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는 내용에서 동심을 찾을 수 있다.

일상적인 소재로 쓴 창가로는 ‘바둑이’(제1년제2호)가 있다. 개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다. 특히 아동들은 개에게 정성을 쏟으며 매우 애뜻한 정을 교감하며 지내는 관계를 노래하고 있다.

우리집바둑이는 어엿브지요  
아침마다학교에 가는때되면  
문밖계대령헛다 압장나서서  
정등등동구까지 쫓어나와요<sup>211)</sup>

내용은 바둑이가 자신(화자)를 잘 따르고 귀엽다는 단순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친화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모습은 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동의 생활이다. 아동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묘사해냄으로 해서 일상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작은 것에도 정서적 교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류의 창가로는 ‘우리 오누’(제4호)가 있는데 이것도 오누이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일상적인 내용을 소재로 쓴 창가이다.

계절과 연관된 창가로는 ‘첫봄’(제7호)이란 작품이 있다. 봄이 오는 모습과 봄을 맞는 기쁨을 소재로 하고 있다. 창가는 거의 7·5조로 되어 있는데 1절의 1,2행에는 3·3·5(6·5)조의 변형을 보이다가 그 다음 행부터는 7·5조를 고수하고 있다.

봄빛이 오도다 그늘진골에

211) 『붉은 저고리』(제1년제2호), 1913.1.15, 1쪽.

싸힌눈 녹이고 언쌍풀어서  
 치위밧헤업드린 약한무리를  
 살너닐이키랴고 그오시도다<sup>212)</sup>

봄이 시작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런 마음의 정취를 매우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서정적인 내용의 창가로는 ‘눈구경’(제1년제3호)와 ‘나비놀이’(제1년제9호)가 있다. ‘눈구경’은 눈 온 뒤 온통 새하얀 풍경을 보며 아동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다른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나비놀이’(제1년제9호)는 봄이 되어 나비를 보며 쓴 서정적 창가이다.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아동들의 심리묘사와 교훈적인 훈화가 함께 들어간 작품도 있다. ‘봄새 흔흔 허물’(제1년제8호)이란 창가는 봄이 온 것을 누구보다 아동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한가지씩금으로 즈믄알줄고  
 산것을씨집으로 말라버리니  
 나무엔모집이오 임자에덜님  
 다시생각하시어 그리마시오

동무야 동무야 내말듯거라  
 눈인듯떨떨나는 저힌나비를  
 이리저리 쏘치며 잡으려흠도  
 사랑흔눈뜻에서 나아오이나

네가나비몸이오 나비가너로  
 향내맛고고흔꽃 차자들째에  
 길을막고못살게 굴면엇더라

212) 『붉은 저고리』(제1년제7호), 1913.4.1, 1쪽.

이생각좁혀서 그리마려라<sup>213)</sup>

봄이 와서 꽃과 나비를 보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봄에 핀 꽃을 꺾고 나비를 쫓아가서 잡는 행동을 대비시켜서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키우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계절과 연관 지어 아동 생활의 지도를 하려는 계몽적인 창가이다.

『아이들보이』에는 「길가는 일군」이란 한 편의 창가가 발표되었다. 매우 선동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이다.

갑시다갑시다	갈디로갑시다
가고서안쉬면	갈디로가리다
한거름한거름	더된듯햐도
이거름거름에	다다름잇도다

흡시다흡시다	홀일을흡시다
햐고서안쉬면	홀일을햐리다
한고비한고비	갑갑홀지라도
이고비고비에	되는것잇도다

가는이발알에	먼길이업스며
햐는이손알에	못홀일업느니
어려운길가는	우리들일군아
가기만흡시다	햐기만흡시다 <sup>214)</sup>

아동들에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정신으로 자립할 것과 어려운 상황에

213) 『붉은 저고리』 (제1년제8호), 1913.4.15, 1쪽.

214) 「길가는 일군」, 『아이들보이』 (제3호), 1913.11.5, 20쪽.

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근면한 자세로 앞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동을 ‘우리들일군아’로 지명하는 것은 『소년』에서 소년들을 불러 모아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일군으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한 전략이다. 더 악랄해지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자세를 담고 있는데, 아동용 창가에서도 은밀하게 민족의식을 심어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형식은 6·6조로 되어 있어 좀 파격적이다. 최남선이 창가의 율조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7·5조는 일본의 고전시대부터 있어온 음수율이며 근대에 와서 일본에서 신체시와 창가의 주음수율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창가 동요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절·대구·음수율을 요건으로 갖춘 노래는 서양음악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15)</sup> 일본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7·5조가 한국 창가는 물론 앞으로 동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이들 창가는 공통적으로 7·5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조금씩 이탈하는 면이 보이나 그것은 일부이고 대부분 7·5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재와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초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했던 창가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안을 계몽적인 시각에서 주로 창작되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창가는 물론 교훈성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아동의 심리와 심미안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창가는 창을 위한 율문이므로 노래부르는데서만 제 역할이 드러난다.<sup>216)</sup> 또 일반적으로 창가는 선동적이고 대의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데, 동요는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창가는 독자에게 교훈적인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동요는 독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그러나 『붉은 저고리』에 게재된 창가의 내용을 보면 동심을 바탕으로 한

---

215) 신현득, 앞의 논문, 62쪽.

216) 신현득, 위의 논문, 64쪽.

서정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들도 많았다. 아동의 일상을 노래하는 것이나 동심을 일깨우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면으로 보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창가도 동요 장르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 교과서에 있는 것을 아동신문에 재수록함으로 해서 아동 독자들에게 폭 넓게 유포하려는 의도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아동을 위한 창가는 창작동요로 가기 전의 과도기적인 역할을 특특히 해내고 있었다.

### 3. 아동비평 장르 인식

자주와 진보의 두 방향에서 보수와 개화의 의지로 이 시기의 최남선을 비롯한 다른 작가들은 당대 시대정신을 구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남선은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아동 매체라는 통로를 개설하고 독자와 소통을 시도했다. 그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잡지를 매달 완독했고 근대화와 민족계몽에 필요한 기사들을 선별하여 게재하였다. 잡지에 관련된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제대로 된 집필자가 없던 상황에서 최남선 단독으로 감당하다보니 잡지와 신문을 편성하고 기획하는데 있어 편향된 시각도 갖게 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글쓰기란 역사에 대한 연대성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바르트가 글쓰기의 구성요소로서 예로 든 것은 어조, 말하는 투, 목적, 도덕관, 언어의 자유로움 등인데, 이는 언어가 사회라고 하는 수신자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변모하며 글쓰기가 사회와의 관계이자 기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sup>217)</sup> 이것은 역시 근대 초기에 다양한 글쓰기와 언어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대의 비평은 특히 그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 속에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칼럼을 통해 개선하고 계몽하려는 의

217) 서정철, 「롤랑 바르트의 글쓰기와 언어학」, 『불어불문학연구』, 한국불어불문학회, 1990, 345-362쪽.

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남선은 공통적으로 1910년대 아동 매체에 계몽적인 칼럼을 게재하였다. 물론 대부분 그와 춘원의 글이다. 당대는 전문화 된 비평문학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당대가 가진 그대로의 비평 모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르에 대한 인식이나 형성의 문제에 있어 조금씩 간극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어떤 장르이건 초기의 모습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 장르에 대한 미동(微動)도 후대 장르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당대 비평문학을 형성하게 한 칼럼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칼럼을 통해서 비평 장르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910년대는 비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적 비평이 시작되는 초창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비평은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 유학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대적 문학관을 형성하고 비평의 기초이론을 수립하는 초보적인 비평의 형태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소년』에 비평이 집중되어 나타나 있다. 『소년』의 기사 영역은 주지하다시피 종교·사상·정치·경제·산업·역사·천문·지리·문학·미술·음악·기술·풍물·인물·시사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잡지로서 다양한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동문학과 관련된 비평은 두 편에 불과하다.

번역문학인 「이솝의 이약」(제1년제1권)란 우화의 서문과 발문에 평을 붙이고 있는 형태이다. 특히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배흘일’와 ‘가르팀’이란 발문을 붙여서 집필자의 주관적인 사건까지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이약은 滿語家로古今에 그 ㅅ이업난 이솝의 述한것이라 世界上에 이와 갖히 愛讀者를 만히 가딘冊은 聖書맛게는 ㅅ업다하난바-니 乙未年頃에 우리 學部에서 編行한 「尋常小學」에도 이 글을 引用한곳이 만커니와 世界各國小學

校育書에 此書의 惠澤을 입디 아니한자-업난바-라 新文館編輯局에서 基一部를 翻譯하야 「再男伊工夫冊」 中一卷으로 不遠에 發行도 하거니와 此에는 每卷四五節式 抄譯하고 淸혜 有名한內外交育家の 부티노니 淸난사람은 그 妙한 構想도 보려니와 神通한 萬意도 玩味하야 엿고 쉬운말 가운데 집고 어려운 理致가 잇슴을 淸다 處身行事に 有助하도록하기를 바라노라.

<배홀일>너모 씨를 부리면 덤덤더 할수업시 된다.

<가르침>생각나난대로하야 그대로 되난일은 別노 업소. 目前의 苦痛을 견대 디못하고 이리더리 씨를 내이난중 더욱 똥티못한데로 淸디난일이 往往 잇나니 如千不平이잇더라도 할수잇난대로 忍耐하난것이 淸소. 「디나면 淸한 淸티디못 함과 갓다」 는 세음으로 迫不得已한境遇의에는 너모 무삼일을 淸티디안난것이 淸소.<sup>218)</sup>

이 서문은 좀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다. 이솝에 대한 소개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서라는 라는 점과 글의 교훈까지 친절하게 수록하고 있다. 또 세 편의 우화마다 ‘배홀일’과 ‘가르침’이란 발문을 붙였다. 나름대로 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간단한 평을 실고 있는 정도이다.

장르적 전문화 이전 시기의 산물로서 이론비평<sup>219)</sup>과 실천비평<sup>220)</sup>이 혼합된 서발비평(序跋批評)과 장르적 전문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의 실천비평과 이론비평으로 나눌 수 있다.

서발비평이란 서문 또는 발문 형식의 단편적인 문학비평 형태를 지칭한다.<sup>221)</sup> 아동 매체에 게재된 비평에서 서문과 발문을 붙인 서발비평이 대부

218) 「주인할미와 하인」, 『소년』 (제1년제1권). 1908.11.1, 24-27쪽.

219)이론비평(理論批評)-어떤 보편적 원칙이나 이론으로 문학의 본질, 목적, 기능, 방법 따위의 문제를 다루는 비평. 이론을 전개하고 그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작가나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다.

220)실천비평(實踐批評)-구체적인 작가나 작품을 주 대상으로 하는 비평. 비평가가 실제 작품에 대하여 어떤 이해와 평가를 보이느냐에 비평의 주안점이 놓인다.

221)김복순, 「근대문학비평의 여명기」, 『한국현대문학사』, 앞의 책, 59쪽.

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르나 성격에 관계없이 단편적이고 주관적으로 발표된 역사 전기문학, 신소설, 시작품들에는 서문과 발문형식의 비평문들이 상당수 드러난다. 이것은 아마추어리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비평의 장르적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유형의 비평이다. 대부분 집필자가 작품이나 기사에 다소 주관적인 자세로 내평을 덧붙인 경우가 많았다.

우화에 대한 비평도 서발비평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긴 했으나 다른 서문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가인(홍명희)이 번역한 「쿠루이로르비유담」(제3년제2권) 역시 서문에 이 글에 대한 소개를 덧붙였다. 우화의 서문과 발문에서는 주로 윤리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도 이솝우화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서문과 발문을 덧붙이고 있다. 서문에는 주로 집필의도와 글에 대한 소개, 집필동기, 집필경위를 쓰고 있고, 발문도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체로 집필 목적과 독자에게 교훈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매체에 발표된 서발비평을 보면 발문보다는 서문이 훨씬 양이 많았다. 아직 비평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긴 하지만 서문과 발문을 지나치게 남발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감상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문 내용을 통해서 독자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서문과 발문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므로 해서 오히려 글을 조악한 수준에 떨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집필자의 계몽에 대한 의지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붉은 저고리』에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은 창가를 소개하는 글에서이다. 이것은 아동신문의 권두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창가는 『보통학

교창가집』에서 발췌한 것을 수록하고 있는데 창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첫부분에 서문형식으로 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서발비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바둑이」(제1년제2호), 「눈구경」(제1년제3호), 「우리오누」(제1년제4호), 「첫봄」(제1년제7호), 「봄새 혼 혼 허물」(제1년제8호) 정도이다.

눈도 다 녹고 쌓도 다 풀니고 벗도 싸뜻히고 바람도 혼 혼 하야 오래 겨울에 사토 잡혔던 이 세계가 지금은 다시 봄의 품에 와 안겼습니다 찬 어름에 지지 눌넛던 쌓이 그 다시 혼숨을 내 쉴 때에 나무는 가지가지 활개를 치고풀은 입새입새 고개를 돌며 여기저기 잔 새암들은 쓰르틀 쫄쫄 속은거리면서 굵고 잔고기를 다리고 배틀배틀 흘읍니다 하늘에는 종달새가 팔팔 날으고 싸에서는 개아미가 앙금 앙금 기게되면 아무묵 니블 속을 잠시 떨어지지 못흐던 한아버지 한어머니도 그 풀숨에 싸서 기르다십히 혼 손즈를 치켜 안고 그리 무서워흐던 문밖계를 나와 봄 숨을 쉬고 봄숨을 마시기에 얼이 업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오죽 나고 살며 웃고 질김의 차차외다 깃거울사 봄의 오심이 이 노래 한아 불러봅시다.<sup>222)</sup>

「첫봄」이란 창가이다. 서문형식으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첫봄’이란 노래를 불러보자는 의도이다. 사실상 글에 대한 소개라고 해도 비평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보이는 서발비평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평에서는 서문이나 발문 등의 비평까지도 극히 자제하고 되도록 쉽게 편성하고 있다. 아직 아동 매체에서는 비평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작품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평론이나 비평이 부재하고 아마추어적인 모습조차 아주 미비하였다.

더 적극성을 갖춘 전문적인 칼럼으로 『붉은저고리』에 한샘(최남선)이

222) 「첫봄」, 『붉은저고리』(제1년제7호), 1913.4.1, 1쪽.

쓴 「깨우쳐 드릴 말씀」이 소개되어 있다. 제1년제1호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무척 계몽적인 성격을 띤다. 이 신문에서 유일하게 비평의 형식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 맘 지키기, 버릇, 믿음, 마음 바로 지키기, 남의 잘못, 어리석음에 대한 경계, 거짓과 참’ 등의 주제로 쓴 글이다.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어린 유아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칼럼은 대상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되도록 쉽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칼럼 속에는 당대가 요구하는 아동상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버릇, 믿음, 마음 바로 지키기, 거짓과 참’에 관련된 주제는 어느 시대에나 요구하는 보편적인 아동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계’는 시대적인 관점에 부합된 것이다. 근대가 요구하는 인간형이 되려면 어리석음은 곧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현실감이 없다는 것이고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지식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일제 강점기와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야말로 그 시대의 아동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고 부여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칼럼을 통해서 근대적 아동상까지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들보이』에도 칼럼의 양이 매우 적다. 『붉은 저고리』와 같은 이유에서다. 「애씀」(제1년제1호)이란 칼럼에서는 “애쓰지 아니 하고는 아모도 아모 일을 하지 못하며 일우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그사람의 애씀을 보면 그 일이 일움을 짐작할것시오 그 일의 일움을 보면 그 사람의 애씀을 알것 이외다.”라고 하고 있다.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 계몽적인 칼럼이라 할 수 있다. 제5호부터 잡지 중간에 ‘아이들신문’<sup>223)</sup>이 첨가된다. 그 중 ‘말씀’이란 칼럼이 있는데 주로 권두언의 성격을 지닌다. 그 호에서 정해진

223) 제5호부터 ‘아이들 신문’이란 코너가 중간에 삽입된다. 구성은 ‘말씀’, ‘세계구경’, ‘턴보’, ‘소문’, ‘특별’, ‘이야기’, ‘광고’로 되어 있다.

주제에 따라 계몽적인 칼럼을 쓰고 있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윤리적 덕목이나 계절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 매우 적다.

『새별』에는 한샘(최남선)이 쓴 「굽은다리 젖호로서」(제15호, 제16호)와 부록 〈읽어리〉에 포함된 ‘습관’에 관련된 칼럼이 있다. 칼럼의 내용이 무척 보편적이고 평범하다. 마음의 자세나 세계를 보는 시각과 아동 독자들의 일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에 관련된 글이다.

사람은幼少年時로붙어善한習慣에자라나야하나니 대개少年적에習慣이된것은終身토록 存續하야變하지아니함일새니라(중략) 몰드. 코. 림우드가 그 사랑하는 少年을 誠論하야 가로대 「그대가아즉二十五歲되기前에 終身の品行을 建立하야하리라」하니라(중략) 그러므로사람의말에 「善한習慣을만들양으로힘과맘을쓰는習慣이眞實로가장賢明한習慣일지니라」하노라<sup>224)</sup>

습관은 평생을 가지 때문에 선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물의 예도 들고 선현의 말도 인용하였다. 서발비평처럼 글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집필자가 소개와 짧은 평은 실은 것이 아니라 글 전체를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글의 논지에 맞는 전문적인 어떤 이론을 도입하지는 못했으나 짧은 서발비평에 비하면 점차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남선을 비롯한 집필자는 아동 매체에 공통적으로 무척 계몽적인 칼럼을 소개하고 있다. 이 칼럼 속에서 비평 장르의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전문화된 비평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나름대로의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고 있었다. 아직 전문화된 비평이 부재하던 시기였고, 아직 아마추어적인 비평의 모습이 그 시대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비평이라기보다 글 처음과 말미에 서문과 발문 형식으로 주로 작

224) 『새별』(제15호), 1914.12.15, 4-6쪽.

품소개나 집필동기, 집필경위 등을 정리해 쓴 것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호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독자를 계몽하려는 의지가 비평에서도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보이』, 『새별』에 계몽적 칼럼이 그나마 아동비평과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계몽적 칼럼에 집필자가 설정한 원칙과 자세로 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론비평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상 너무 초보적인 형태라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아동비평도 1920년대에 접어들어야 제대로 형태와 내용을 갖춘 글들이 발견된다. 아직 아마추어적인 주관적 비평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제대로 비평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초기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초기 아동비평 장르도 서서히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 V. 1910년대 아동 매체와 아동문학의 의미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일제가 강점하기 시작한 시기는 서구적 충격 속에 다양한 담론들이 경쟁하듯 쏟아져 들어왔다. 때로는 새롭고, 때로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당면과제는 민족의 독립과 계몽이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동이었지만, 특히 자라나는 세대인 아동에게 집중되었다. 이렇게 아동에 집중된 현상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당대의 현실인 역사적 상황과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아동은 근대에 출현한 개념이다.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필요했고 새롭게 자리한 아동을 선정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동은 무엇이든 흡입할 수 있는 무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런 이유로 서구의 신지식과 문물을 수용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소유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부상하고 인식된 아동을 대상으로 민족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불가피했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매체가 필요했다. ‘학교는 성인의 세계와 미성년의 세계를 분리시켜 미성년의 범위를 구획할 뿐 아니라, 이를 단계별로 관리 가능한 시·공간 단위로 만들어 내는 데 가장 위력적인 기능을 발휘해 왔다.’<sup>225)</sup> 또 ‘매체란 행위를 조건지우고 형식화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억의 터’<sup>226)</sup>이기 때문이다. 아동 매체는 아동문학을 비롯한 기사나 글, 다양한 코너를 반복적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한다. 1910년대 아동 매체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근대 초기의 아동문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 성

225)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136-143쪽 참조.

226) 지승중 외, 『사회사 연구이론의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176쪽.

장을 지향하는 계몽주의와 서구사상인 기독교, 강박적인 유교사관의 토양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 그것은 지배와 억압, 소유와 욕망, 동경과 탈피가 혼합된 결정체였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아동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문학에 있어 그 대상이 ‘아동’으로 확정된 점이다. 대상의 확정  
은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이재철<sup>227)</sup>은 이와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독립신문』과 『소년』을 필두로 잇달아 나온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지 등은 순수한 아동잡지<sup>228)</sup>라는 것이다. 당대에 발간된 잡지와 신문을 ‘순수한 아동잡지’라고 하는 대목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발간된 매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문학에서 아동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지만, 『소년』까지만 해도 그 대상층이 넓어서 전폭적으로 아동잡지라고 내세우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현재의 아동 독자층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최초의 아동신문인 『붉은 저고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신문은 창간호에 ‘아희들 보이기 위햐야 내는것’이라고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아희’란 특정 대상을 규정해서 발간한 아동 매체는 근대 최초의 것이다. 또 신문의 내용을 ‘즈미 잇고 교훈 되는 이약이’, ‘힝실 배홈에 유쵸흔 말슴’, ‘의사 늘고 소견 터질 작란감’, ‘동서양 유명흔 사람의 힝적’, ‘맛 잇고 뜻 잇는 시와 노래’, ‘본보기 될만흔 그림과 글’로 압축하고 있다. 편집자가 앞으로 수록된 내용을 밝힌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아동’을 대상으로 확정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을 확정지었다는 것은 아동문학이 진정으로 출

227) 아동문학 연구자들의 다수가 이재철의 선행 연구를 따르고 있고, 한국 아동문학 이론을 나름대로 정리한 공적이 있다. 때문에 그가 연구한 이 시기 아동문학의 성격과 의미를 살피고 본 연구자가 바라보는 1910년대 아동문학의 의미를 추출해 낼 것이다.

이 시기를 태동초창기(胎動草創期:1908-1923)라고 명명하면서 당대의 성격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는 이 시기 신문학운동은 순문학운동이었다기보다 개화계몽적인 국민운동이요, 국권신장을 위한 민족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아동문학 그 자체가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태동·성장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사회 운동 속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면서 서서히 발아·개화하였다고 한다.

228)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96(1983 초판), 53쪽.

현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아동문학이 아동을 위한 진정한 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아동의 확정문제는 아동 매체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대상의 불확정성 때문에 혼란을 겪던 것과는 달리 아동문학 전반에 걸친 편집이나 집필, 구성에 전격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쉬운 글로 쓰고’란 방식은 아동신문 구성과 편집의 전체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계몽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계몽성이란 것이 전대 잡지처럼 민족계몽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아동 교육에 근거한 계몽성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대상이 분명한 만큼 그 대상에 적절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이유에서이다.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 독자에게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 필수적인 사항은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신문의 내용과 편집은 무겁고 무절제한 계몽의 옷을 벗고 아동 독자에 적합한 흥미성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유아나 아동층을 겨냥했기 때문에 독자가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이야기 중심의 동화나 우화가 대폭 확대되었다. 전폭적으로 계몽성에 매달렸던 칼럼이나 논설<sup>229)</sup>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오락적이고 쾌락적인 놀이란<sup>230)</sup>이 대폭 신설되었다. 이러한 신문의 편집만 보더라도 전대의 잡지와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최초의 아동문학은 『붉은 저고리』에서부터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보이』와 『새별』도 『붉은 저고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지를 구성하고 있다. 『붉은 저고리』 이후부터의 아동잡지들은 대상을 분명히 ‘아동’으로 설정하였고 모든 편집방식도 아동중심으로 바뀌었다. 또 확정된 대상을 위해서 아동중심의 문학이 소개되었다는 점과 아동중심의

229) 「엮좁는 말슴」이나 「깨우쳐 들일 말슴」 정도가 계몽적인 칼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동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의나 덕목에 집중하고 있다.

230) 「다음 엮지」, 「한끝그림」, 「그림즈 그림」, 「뽕글뽕글」, 「우슴거리」, 「의스보기」 등의 놀이코너가 개설되었다. 특히 아동신문에서 놀이코너에 천착하고 있다는 것은 대상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편집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 보면 이러한 특징을 상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신문 값이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점으로 보아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코너들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아동 매체와 아동문학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르에 대한 인식이 아동문학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앞에서 이미 장르인식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초기 아동문학에 있어 장르가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동문학을 조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 매체에 구성되어 있는 장르는 확실히 현대의 문학 분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산문(동화, 각종 분야의 이야기, 고전작품)의 경우 상당 부분 확실한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매체 속에 배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통해 장르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됨을 간과할 수 없다.

이재철은 장르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개화가사와 창가가 아직도 고가사의 옛투를 꽤 답습했으나 신체시(정형동시)와 변조(창가동요)를 발생시켜 동시·동요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신소설과 춘원의 초기 소년소설은 진정한 아동소설과 동화를 낳을 수 있는 움직임이 수 없는 소지를 마련해<sup>231)</sup> 주었다고 주장한다. 동시와 동요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나 신소설과 춘원이 아동소설과 동화를 낳을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다소 지엽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에서 들여온 우화나 변안동화, 한국의 고전문학 등을 통해 창작동화와 전래동화, 아동소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을 전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많은 문제의 소지를 갖게 한다.

우화는 당시 현재의 동화처럼 세계인들에게 고급 교육자료로 평가받고 있었고 독자들이 즐겨서 읽는 독서물이었다. 우화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과 한계를 가지지만 적당한 읽을거리가 없었던 시대에는 아주 값진 독서물

---

231) 이재철, 앞의 책, 53쪽 참조.

이었다. 독자들은 이 속에서 삶의 보편적인 진리나 교훈적인 지혜를 찾았다. 아주 짧게 구성되고 전하는 메시지가 강렬해서 독자들에게 효과적이었다. 우화는 동화가 아니다. 다만 당시 동화처럼 독자들이 선호했고 동화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도 부정할 수 없다. 아주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우화를 통해서 동화장르에 대한 인식과 장르 형성의 가능성이 점점 열리기 시작한다.

그림형제와 안데르센, 그 밖의 서구 작가들의 작품인 동화를 번안해서 읽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다. 번안동화는 서양의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전래동화인데, 우리의 전래동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독자들은 고전작품에 대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번안동화를 정서적으로 편하게 수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 서구적인 주제와 가치관에서 주는 새로움으로 인해 독자들은 더 빠져들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전래동화와 앞으로 창작될 창작동화 장르 인식과 가능성을 보게 된다.

동화요는 아직 장르가 확정되지 않은 때를 잘 대변해주는 시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고전소설이나 설화 등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4·4조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7·5조로 동요와 동시의 혼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기 다른 장르가 혼재되어 오히려 원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로는 대단히 실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에게 무려함과 식상함을 주는 고전작품을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보여주므로 해서 새롭고 참신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전래동화와 동시 장르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동요 장르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창가는 일반적으로 창을 붙여서 노래로 부를 때 더 장르적 특성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창가는 매우 선동적이고 계몽적인 내용이 많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창가에서는 계몽적이긴 하지만 서정적이고 아동들의 일상적인 것도 함께 나타난다. 창가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동요로 발전해

나가는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칼럼은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훈적인 내용이거나 보편적인 덕목을 강조한다. 특히 칼럼을 통해서 당대의 아동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상 현재의 아동비평에 비하면 만평과 같은 수준이나, 초기 아동을 위한 칼럼을 통해서 아동비평 장르의 인식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제일 늦게 발전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과도기에서 보여주는 특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동문학의 장르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확실한 장르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장르가 확실히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만날 수 있는 유사 장르가 출현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이 어떤 일정한 장르가 되기 위해 치루는 통과 의례와 같은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에 이러한 동향이 각 장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장르 생성에 훨씬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셋째, 아동 매체 속에 수록된 동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진정한 문학적 즐거움을 찾아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매체의 특성 상 다른 코너에서도 독자들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동잡지나 신문이 문학작품만으로 편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 매체에서 문학적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단연 ‘동화’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회의 주도적 이데올로기는 “사실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 낸다.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그들 삶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것을 뛰어넘기가 몹시 어렵다.”<sup>232)</sup> 이것은 당대의 사회적 전반에 깔린 이데올로기와 분위기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이다. 아동 역시 당대의 성인들과 함께 존재했고 그 암울한 시대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근대 초기부터 논의에 상정된

---

232) 페리 노들먼, 김서정 옮김,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 시공주니어, 2003, 140쪽.

‘아동의 발견’은 근대의 필요성에 의해 구성된 것이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동을 공존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한 것은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나 분위기 때문이었다.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완전한 사회인으로 성숙되기 위해 성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가르쳐야만 하는 존재로 간주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아동을 항상 계몽의 대상이며 수단으로 삼게 했다. 초기 아동 매체의 모습은 아동을 계몽의 기획 속에서 더욱 정교하고 간명하게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적으로 계몽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몽을 미적으로 얼마나 잘 형상화 하였는지 그 수준과 정도의 문제이지 계몽성 그 자체가 문제는 될 수 없다. 아동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철저히 계몽하려고 한 점, 아동 독자 선택의 여지없이 획일적으로 성인들의 논리 속에 몰아넣었다는 점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아동문학에서 계몽성이란 단순한 외적 특성이 아니다. 아동문학에서 계몽성은 본질적인 표지이지 결코 문학 외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적인 계몽성과 아동 자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비문학적인 계몽성을 대립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계몽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아동들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계와 마주치고,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가야 하며, 세계와 마주치는 가운데 더욱 섬세하게 감정을 형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성인이 아동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아동의 건강한 생물학적 성장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sup>233)</sup> 계몽성을 아동과 따로 떼어놓고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지나치게 아동을 또 다른 타자로 인식하고 계몽만 일삼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33) 김상욱,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89쪽.

아동을 보는 관점이 계몽적인 것에 온통 머물러 있을 때 아동이 스스로 매체 속의 작품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아동 매체에 이러한 동화를 소개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아동문학의 기여도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아동 독자들의 읽을거리가 실화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만을 접하고 있을 때 당시 서구의 변안동화는 아동물의 최첨단이었다. 서구동화를 번역과 변안과정을 거친 변안동화는 독자들에게 문학적으로 큰 즐거움을 주었다.

우선 이야기 문학의 모태인 동화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소재로 한 인간 심리의 원형을 다루고 있다. 이러 측면에서 보면 동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는 몸짓언어에서 이미지언어, 음성언어, 문자언어로 발전해 오면서 어느 문학 양식보다 이런 다양한 언어 매체가 혼효되어 전해져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34)</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동화가 출현하게 된다.

아동문학의 특질을 이루는 판타지, 물활론(物活論:animism), 자연물의 유의식론(有意識論:animatism) 등은 단순한 동화의 창작기법이 아니라 아동문학의 본질을 구현하는 일종의 세계 인식의 방법이다. 아동은 심리적으로 애니머티즘과 애니미즘 세계에서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현실 생활에서 이를 수 없는 현상까지 환상적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것을 현실보다 더 가깝게 느끼기도 한다. 아동이 속한 현실세계는 기본적으로 성인에 의한 것이며 그 속에서 아동이 현실세계와 겪는 충돌과 갈등을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칙이 통용되고 자신들이 소외 받지 않는 것을 구축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한다. 따라서 동화에서 다루어지는 환상은 현실과 상관성을 가지며 현실의 문학적인 미화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아동문학 텍스트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세계인식 방법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원형적 심상인 동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

---

234) 황정현·우미라, 앞의 책, 51쪽.

다.<sup>235)</sup> 아동은 동심을 기본으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화와 인생을 경험한다.

당시 독자들은 그림형제나 그 밖의 서구 작가들의 동화 속에서 문학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반복과 상징적인 기법, 환상적인 배경, 섬세한 인물묘사, 다채로운 사건, 역동성을 드러낸 감각어 등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동화도 설화를 재구성한 전래동화이지만 우리 민족의 사고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 내재하므로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감동은 다르게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문학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또 문학작품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가 '개별적인 체험을 재생시킬 뿐 아니라 알지 못했던 일, 가보지 못했던 세계까지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인식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sup>236)</sup>이다. 이것 또한 동화뿐만 아니라 전체 문학작품이 주는 즐거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의 동화이든 독자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낄 때 가장 즐거운 독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인 보상이나 처벌보다는 내적 필요에 의해서 놀라움과 호기심에 의해 동기가 생길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내적 자발성은 동화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동 독자들은 끊임없이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특징은 아동 고유의 것이며 이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sup>237)</sup> 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중심과 주변으로 구획하고, 주변의 중심화 혹은 중심의 주변화란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sup>238)</sup> 아동문학에서 아동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고 그런 아동문학의 분위기 속

---

235) 황정현·우미라, 앞의 책, 52쪽.

236) 신현재·권혁준·곽춘욱, 앞의 책, 394쪽.

237) 황정현·우미라, 위의 책, 139쪽 참조.

238) 김상욱, 앞의 책, 88쪽.

에서 아동은 동화를 통해 스스로 내적 자발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맥락에서 변안동화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사고와는 전혀 새로운 내용과 가치관을 선보임으로 해서 독자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우리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안되기는 했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든지, 자본주의에 입각한 재산분배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관한 문제, 세상과 대면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서의 지혜 등은 독자들에게 매우 새로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근대화의 유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독자들에게는 놀라움과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물론 변안동화가 미적으로 완결성의 문제에서 탁월한 작품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 편집자가 군데군데 끼어들기를 시도한 폐허도 있다. 그러나 변안동화가 내포하고 있는 내·외적인 특징과 가치를 통해 독자들은 차차 문학적 믿음을 가지고 문학과 밀착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독자들은 동화가 주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맛보게 될 것이다. 전대까지 계몽으로만 일관하던 태도를 지양하고 아동 독자의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흥미성, 문학적 쾌락성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동문학에서 대상인 아동을 진정으로 배려한 동화문학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독자들이 문학적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아동을 위한 작품에서 순국문체를 실천하였다. 아동문학에서 문체는 매우 중요하다. 문체는 아동 독자를 빨리 아동 매체로 집중시켜서 아동 매체에서 계몽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말과 글이 다른 언문불일치를 경험하게 되지만 지배층을 상징하는 한문표기를 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국에 남녀로소와 상하귀천’에 관계없는 평등 의식과 계몽만이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부국강명 의식이 확산되면서 빠르게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다. 근대화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문체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또 근대적 지식과 문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문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재철은 한주국종시대(漢主國從時代)를 지나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나 순국문전용체로 옮겨오지 못하게 했고 한문숙어 중심의 표현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sup>239)</sup>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당대 전체 아동 매체에서 본 시각이 아니라 『소년』을 중심으로 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붉은 저고리』 이후에는 순국문체를 실천하려고 했고, 실제 많은 장르와 기사에서 순국문체를 수용하고 있었다. 계몽하려는 주체측(아동 매체의 편집인과 집필자)과 계몽 받는 객체측(독자)은 상당한 간극을 보인다. 물론 문체의 시작도 국문과 한문을 혼용하는 국한문체였다. 주체측은 순국문체 표기를 권장하려고 표기문체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객체측은 아주 서서히 수용하였다. 아동 매체의 작품과 기사, 놀이코너까지 순국문체를 사용하였지만 아동 독자의 투고란을 보면 아직도 국한문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광수는 국한문체를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이익을 세 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즉 한문현토체보다 이해하기 쉬워서 널리 읽힐 것이며 그 결과 국문에 익숙해져서 국문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점, 집필자도 저작을 하기가 쉬워지고 복잡한 사상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다는 점, 국가의 차원에서도 국문의 세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계몽의 선두주자로서 문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국한문체의 효용성이 이 정도라면 순국문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어느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유교적 잔재

---

239) 이재철, 앞의 책, 53쪽.

가 남아있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든지 접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과 평등한 민주의식을 양양할 수 있고, 보다 빠른 근대화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 또 아동 독자들의 이해를 높여서 보다 빨리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체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의식을 변화시키게 된다.

『소년』을 비롯한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보이』, 『새별』에서 순국문체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보이』, 『새별』에 나타난 문체는 아동문학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온다. 본격적인 아동문학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국한문체를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년』 보다는 훨씬 순국문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 서술형 종결형 어미에 ‘-다’체나 ‘-습니다’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전까지의 ‘-소’나 ‘-오’였던 것에 비하면 현대적인 종결어미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사와 지문을 정확히 분리한 점, 행바꾸기, 직접인용부호(『』), 마침표(.), 쉼표(,), 띄어쓰기와 단락나누기 등도 문체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변화된 점이다.

문체의 혁신적인 변화는 아동 독자들에게 더 고무적인 일이다. 아동은 소년이나 청년층보다 지적수준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쉬운 말과 글로 쓴 작품과 기사를 필요로 한다. 한 예로 변안동화나 역사 번역물과 같은 경우 독자들은 외국문학을 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에서 떨어질 수 있다. 집필자가 이러한 부분을 배려해서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문장과 순국문체를 사용한다면 수용하는 독자로서 그만큼 편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 독자에 대한 배려와 아동문학의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동 매체에서 보여준 문체의 변화로 인해 아동문학을 독자들이 더 빨리, 더 쉽게 이해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매체 속에 배치되어 있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동문학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아동 매체는 문학적인 면과 비문학적인 면이 함께 편집되어 있다. 이 중 문학적인 면에서 볼 때, 당대의 아동문학은 네 가지로 의미를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아동문학의 대상을 아동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늘 주변인으로 존재하던 아동을 불러내고 그들을 위한 독자적인 문학을 갖게 된 것이다. 둘째, 초기 한국 아동문학 장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당대는 현재와 같이 장르에 대한 완벽한 장르 구분이 어려웠다. 초기 아동문학은 여러 장르가 혼재되어 있거나 유사한 장르가 정확한 개념 없이 마구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초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고 점차 여러 장르가 분화되거나 더 진보된 장르로 거듭나게 되었다. 셋째, 동화를 통해 문학적인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사실상 모든 문학은 문학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동화는 아동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이다. 매체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도 동화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아동 독자들은 이야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근대적 의미의 동화는 아동 독자들을 문학으로 몰입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동화를 통해서 삶의 다양한 체험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들은 수용의 측면에서 문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문학에 순국문체를 실현하였다는 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순국문체를 실행한 것만 해도 아동문학사에 중대한 사건인데, 모든 잡지와 신문에 순국문체를 시도하였고 독자들이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초기 아동문학의 시작은 미약한 것이었으나 짧은 시간 내에 아동문학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이 논문은 1910년대 아동 매체 속에 나타난 아동문학의 의미를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근대와 함께 태어난 ‘아동’과 ‘아동문학’은 근대 초기 어떻게 태동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거창한 이론보다는 다른 연구자들이 한꺼번에 다루지 않은 당대의 아동 매체에 천착하여 소박하게나마 아동문학의 모습을 살펴보고 분석하며 그 의미를 찾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근대 초기에 발행된 종합잡지인 『소년』과 최초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신문인 『붉은 저고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잡지인 『아이들보이』, 『새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 시기에 간행된 아동매체의 특징을 보면 첫째, 아동(소년)의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여기서 대변자란 철저히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다. 즉 아동의 발달단계나 아동의 특성, 아동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적합하게 문학과 기사, 그 밖의 코너를 운영하여 아동의 교육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근대화의 촉진제로서 아동(소년)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급속히 근대화가 유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론매체인 신문이나 잡지의 힘이 막강했다. 일반 민중들보다 먼저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온 신진 지식층에 의해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아동을 각성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 새로운 신지식과 신문명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계층을 아동으로 선정하고 그 아동으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여겼다. 외국의 문학과 신문화, 신지식을 소개하므로 해서 우리 민족이 처해있는 국제 사회적 위치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다양한 각도에서 시

도되었다. 아동 매체를 통해 아동이 갖추어야 할 근대의식과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셋째, 한일합병으로 무너진 국권을 회복하고 재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은 당대의 가장 큰 화두였다. 단결된 민족의식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하도록 했고, 조국애를 고취해서 국권을 회복하는데 정진하였다. 그 결과 아동 매체가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와 목적의식에 의해 편집, 구성되기도 했다. 현재의 잣대로 보면 좀 더 다양한 방향과 의식을 가지고 매체를 기획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이다. 시작 단계이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편협한 시각을 가졌던 것도 부인할 없다. 이러한 점들을 무조건 문제점으로 인식하기보다 당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 상황과 초기 아동 매체의 특징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1910년대 사회와 아동 매체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는 근대사회의 진입과 근대성 고양, 민족의 자각과 민족주의, 근대교육의 등장과 아동인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근대는 식민지담론과 맞물려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떻게 근대성을 고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혔고 일제로부터 독립하려는 데서 민족에 대해 자각하는 과정을 거쳐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근대교육은 근대와 함께 새롭게 부각된 아동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국신민화를 위한 엄격한 규율과 통제에 의해 아동을 훈련하고 교육한 점도 부인할 수 없지만 오히려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더 확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아동문학의 배경으로는 아동운동과 아동문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아동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인식하는 것에서 아동운동이 시작되었다. 아동을 존중하는 의식과 교화하려는 의식을 가

지고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직 문단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상당수 나타나지만 초기 아동문단은 최남선과 이광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최남선은 근대 초기 아동 매체, 아동문학, 아동문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잡지나 신문의 편집, 기획, 인쇄, 집필, 번역까지 전 과정에 손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신진 지식층으로서 가지고 있던 근대지식과 근대적 사고와 가치를 아동문단을 통해 발현하였다. 이광수는 최남선과 더불어 조금씩 아동문학에 참여하다가 『새별』 지에 와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의 문단활동은 20,30년대에 갈수록 더 두각이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은 아동 매체를 출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아동 매체의 구성 원리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 매체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순국문체를 실천하고 보급했다는 것이다. 당대는 무엇이든 초기 형태라서 완벽한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나 민중과 아동들에게 더 근접한 순국문체를 실천하고 보급하려고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순국문체는 아동 독자를 배려하는 것으로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 아동 매체의 구성은 다양한 문학 장르와 화보와 삽화, 놀이코너로 되어 있다. 아동 매체에는 문학 장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코너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소년』 이후에 발행되는 아동잡지와 아동신문은 아동 독자를 배려한 문학 장르나 놀이란으로 구성된 점이 무척 전문적이라고까지 평가 할 수 있다.

수많은 방식 중에 이러한 아동 매체 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그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조명하였다. 공통적으로 아동 매체에서는 민족주의, 과학주의, 세계주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들 매체를 통해 고취, 선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문학작품과 외국 번역물, 기사, 화보 등을 통해 당대가 요구하는 이념들을 일관성 있게 계몽하

였다.

IV장에서는 1910년대 아동문학과 장르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솝우화와 번안동화를 통해서도 동화 장르의 인식을, 동화요와 창가를 통해서도 동요 장르의 인식을, 칼럼을 통해서도 아동문학 비평 장르의 인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직 분화되지 않은 유사 장르에서 미래의 장르를 유추할 수도 있고 발전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V장에서는 1910년대 아동 매체와 아동문학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당대는 정치·사회·경제·역사·교육 등 어느 분야든 혼돈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 매체가 출현하여 아동문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동문학사에 기록될만한 중요한 사건이다. 초기 아동 매체가 계몽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나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의 무단정치로 인한 아동 매체의 검열과 압박이 심해지긴 했으나 아동을 독자로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의 눈을 피해 시대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매체 속에 배치할 수 있었다. 일제의 억압과 착취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와 신문이 발간된 것은 낙담할 일이 아니다. 집필자와 편집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문학과 기사를 게재하고,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동 매체의 탄생은 곧 아동문학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기 모습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아동을 위한 문학과 기사, 놀이코너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대 아동문학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아동문학의 대상으로 확정지은 점이다. 이것으로 인해 아동 매체가 일대 개혁을 이루었다. 모든 것인 아동 중심의 편집과 구성으로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 아동문학이 발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장르의식의 생성이 아동문학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다. 우화나 번안동화, 창가, 동화요, 칼럼 등의 초기 장르를 통해 미래에 확

정될 장르의 가능성을 간과하게 되었고 이것은 아동문학이 다시 발전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셋째, 아동 매체 속에 수록된 동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주었다. 지금까지 계몽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위한 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동 독자는 익숙한 내용이든 서구의 사고와 가치를 다룬 내용이든 이야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 동화를 통해 스스로 진정한 문학의 즐거움을 깨달아 가게 되었다. 넷째, 아동 매체에 순국문체 사용을 실천하고 보급하였다. 이 순국문체는 국한문체보다 아동을 훨씬 배려한 전달방식이다. 순국문체의 사용으로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독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자도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 등을 더 쉽게 피력할 수 있다. 아동을 위한 문학 장르와 기사, 재미있는 코너에 이어 전달방식까지 아동을 배려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1910년대 발간된 아동 매체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속에 편집되어 있는 초기 아동문학의 모습을 통해 아동문학적 의미를 조명하는 것이었다. 당대의 아동문학은 완결된 형태를 취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축적된 문학적 경험과 근대 아동문학의 새로운 의미들을 불러냈다. 또 인지해야 할 사실은 최남선이란 인물이다. 한 개인이 아동 매체, 즉 한국 아동문학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의 친일문제가 있더라도 아동문학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할 일이다. 그는 혼자 근대 초기 종합잡지를 발간하고 후속으로 아동신문과 아동잡지를 집필에서부터 편집까지 책임졌다. 집필자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창작에서부터 번역·번안까지 손을 뻗어서 당대의 화두였던 민족주의 실천과 근대화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까지 아동문학연구에 있어 근대 초기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대 연구모임을 통해 활기를 띠고 있다. 일반문학에서도 근대 초기에 대한 연구가 근래에 더 많아지고 있

는 추세이다. 그만큼 연구자들이 많다는 것은 근대 문학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 문학을 비춰볼 수 있는 원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앞에서 밝혔듯이 당대의 아동 매체(신문·잡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당대의 강력한 규율과 통제를 단행했던 교과서까지 살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해 교과서를 포함해서 조명하는 것이 연구를 더 진척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박하게나마 1910년대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의를 기점으로 더 확대·심화된 추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

최남선, 『소년』, 신문관, 1908.11.-1911.5.(총 22권)

최남선, 『붉은 저고리』, 신문관, 1913.1.-1913.6.(제1, 2, 3, 4, 5, 6, 7, 8, 9, 10, 11호)

최남선, 『아이들보이』, 신문관, 1913.9.-1914.8.(제2, 3, 5, 7, 8, 9, 10, 11, 12호)

최남선, 『새별』, 신문관, 1914-1915.(제15, 16호)

### 2.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5.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강봉규, 『교육학개론』, 종각출판사, 1990.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고연기, 『잡지편집의 이론과 실제』, 보성사, 1984.

구인환, 『이광수소설연구』, 삼영사, 1983.

구인환 외, 『아동문학』, 한국방송통신대학, 197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7, 탐구당문화사, 2001.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김명석, 『한국소설과 근대적 일상의 경험』, 새미, 2002.

- 김상옥,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7.
- 김정환, 『교육의 본질과 과제』, 경지사, 1973.
- 김정환, 『교육의 철학과 과제』, 박영사, 1974.
-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학과학사, 2003.
-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傳)』, 소명출판, 2004.
- 김현숙 외, 『식민지 근대의 내면과 매체표상』, 깊은샘, 2006.
- 김현주, 『한국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 김태준, 『비교문학산고』,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1979.
- 단재신채호전집간행회, 『단재 신채호 전집』 별책, 형설출판사, 1977.
- 루소, 참교육가이드 엮음, 『에밀』, 산수야, 2004.
-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근대·근대성·근대문화』, 월인, 2005.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 박상재, 『아동문학창작론』, 학연사, 1999.
- 박성래, 『근현대 한국사회의 과학』, 창작과비평사, 1998.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박춘식,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87.
- 브루노 베텔하임, 김순옥·주옥 역, 『옛이야기의 매력』 1권, 시공주니어, 2004.
- 석용원, 『아동문학원론』, 학연사, 1999.
- 신동욱,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81.
- 신헌재,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박이정, 1993.
- 신헌재 외, 『아동문학과 교육』, 박이정, 2007.

씨을교육연구회 편, 『일제 황민화교육과 초등학교』, 한울, 1995.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엮음, 『역사신문』, 사계절, 2006.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한국문학의 근대와 근대성』, 소명출판, 2006.

오천석,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 국제문화공회, 1946.

오춘근, 『한국출판사대요』, 청림출판사, 1987.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1·2·3권, 지식산업사, 2003.

유길준, 『유길준전서』 1권, 일조각, 1971.

유길준, 허경진 역, 『서유견문』, 한양출판, 1995.

유창근, 『현대아동문학의 이해』, 동문사, 1997.

윤명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2000.

윤홍로, 『한국근대소설연구-이광수』, 일조각, 1980.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2002.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

이광수, 『이광수전집』 1권, 삼중당, 1960.

이광수, 서영채 편집, 『무정』, 글누림, 2007.

이만규, 『조선교육사』, 을유문화사, 1949.

이민수·윤남영·이원 역, 『한국의 근대사상』, 삼성출판사, 1990.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이솝, 한국어린이문화연구소 엮음, 『이솝우화 123가지』, 영림카디널, 2006.

이연숙,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2006.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96(초판1983).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장남준, 『독일낭만주의 연구』, 나남, 1989.

전영균, 『한국출판론』, 대광문화사, 1989.

정보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2.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노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정선혜, 『한국 아동문학을 위한 탐색』, 청동거울, 2000.

정선혜, 『아동문학으로 날아보기』, 정인출판사, 2008.

정재철, 『일제의 대한제국 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터, 1989.

조연현·신동욱,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81.

조용만, 『육당 최남선』, 정음사, 1975.

지승종 외, 『사회사 연구이론의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개론』 하권, 세영사, 1976.

최명표, 『아동문학의 옛길과 새길 사이에서』, 청동거울, 2007.

최운식, 『한국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민속원, 2002.

최한웅, 『용헌잡기』, 동명사, 1986.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한계부 외, 『문학개론』, 민지사, 1996.

한국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민족주의』, 국학자료원, 2000.

한영옥, 『한국 현대시의 장(場)』, 푸른사상, 2004.

홍일식, 『한국개화기의 문화사상연구』, 설화당, 1991.

황정현·우미라,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2007.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페리 노들먼, 김서정 역,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1권, 시공주니어, 2003.

今村仁司, 이수정 옮김,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9.

Marie-Louise von Franz, 홍성화 역, 『동화심리학』, 교육과학사, 1986.

丸山眞男, 김석근 옮김,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1995.

### 3. 학위논문

- 권복연, 「근대아동문학 형성과정 연구:1910-1920년대 초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남선, 「일제의 대한 식민지교육정책-무단통치기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김노연, 「최남선의 사회교육 사상과 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김명진, 「조선교육령을 통해 본 일제 식민지교육정책」,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용희, 「한국 창작동화의 형성과정과 구성원리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재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 김정숙, 「출판인 최남선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김효진, 「소학생지 연구-동화 및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충남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2.
- 박숙경, 「한국 근대 창작동화 형성 과정 연구」,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신현득, 「한국 동시사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이정석, 「‘어린이’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양상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78.
- 임원재, 「육당의 ‘소년’연구」, 명지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정승복, 「육당 최남선의 역사인식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정재철, 「일본 식민지주의 교육에 관한 사회사상사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1.
- 조명렬, 「한국 아동문학의 특성」,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최봉희, 「개화기 잡지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홍성우, 「최남선 ‘소년’지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황혜순, 「‘소년세계’지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4. 일반논문 및 평론

- 「대한매일신보」, 1909.1.14, 논설.
- 「대한매일신보」, 1909.6.29, 논설.
- 「독립신문」, 1896. 12.3, 논설.
- 「독립신문」, 1899.4.4, 논설.
- 「황성신문」, 1898.9.7, 논설.

- 강진호, 「근대교육의 정착과 피식민지 주체」, 『상허학보』 16집, 2006.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육당 최남선 전집』 13권. 현암사, 1973.
- 김봉희, 「한국 개화기 기독교학교 교과서의 서지학적 연구」, 『도서관학』 23호, 1992.
- 김정철, 「교육적 관점에서 본 그림형제의 동화」, 『독일어문학』 15집, 2001.
- 김찬기, 「근대 계몽기 전 양식의 근대적 성격」, 『상허학보』 10호, 2003.
- 김현숙, 「근대매체를 통해 본 ‘가정’과 ‘아동’인식의 변화와 내면형성」, 『상허학보』 16집, 2006.
- 노영택, 「일제시기의 문맹을 추이」, 『국사관논총』 제15집, 1994.
- 박영효, 「근대 한국 명연설집」, 『신동아』, 1966.1월호 부록.
- 박혜숙, 「서양동화의 유입과 1920년대 한국동화의 형성」, 『어문연구』, 2005.
- 박정재, 「한국잡지발달사」, 『한국잡지총감』, 한국잡지협회, 1973.
- 서정철, 「톨랑 바르트의 글쓰기의 언어학」, 『불어불문학연구』, 한국불어불문학회, 1990.
- 윤석중, 「한국아동문학소사」, 『아동문학의 지도와 감상』, 대한교육연합회, 1962.
- 윤여탁, 「한국의 근대화과 국어교육」, 『국어교육』 117호, 2005.
- 이광수, 「자녀중심론」, 『청춘』 15호, 신문관, 1914.9.
- 이광수, 「육당 최남선」, 『조선문단』, 1925.
- 이광수, 「조선가정의 개혁」, 『이광수전집』 1권, 삼중당, 1963.
- 이광수, 「자녀중심론」, 『이광수전집』 17권. 삼중당, 1963.
- 이원수, 「아동문학의 결산」, 『월간문학』, 1968.

- 이재철, 「아동문학의 형성」, 『한국문학 입문』, 지식산업사, 1988.
- 이종수, 「조선잡지발달사」, 『신동아』 5월·6월호, 1934.
- 조용만, 「우리나라 신문학의 초창기에 있어서 일본 및 서구문학의 영향」, 『아세아연구』 46호, 1972.
- 조용만, 「30년대의 문화계」, 『중앙일보』, 1984.11.24.
- 조은숙, 「1910년대 아동신문 ‘붉은 저고리’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03.
- 조지훈, 「동화의 위치」, 『아동문학』 2호, 1962.
- 최남선, 「동화와 문화-안데르센을 곱함」, 『동아일보』, 1925.12.
- 최남선, 「권학문: 학문의 근본정신」, 『최남선전집 10』, 현암사, 1972.
- 최지훈, 「한국 아동문학 연구의 발자취」,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 한기형, 「1910년대 단편소설과 낭만선」, 『민족문학사연구』 12호, 1998.
- 현상석, 「교육현장의 일제 잔재들」, 『일제 황민화교육과 초등학교』, 한울, 1995.
- 한영옥, 「‘이웃’과 ‘너’를 향한 사랑의 간절성」, 『새로 쓰는 한국시인론』, 백년글사랑, 2002.
- 한영옥, 「허영자 시 연구」, 『허영자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3.

# ABSTRACT

## A Study on Children's Literature in the 1910s -Bringing Children's Media into Focus

Jeong, Hye W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1910s was the period when publication, illumination movement, association, and meeting etc. were prohibited coercively as the period when the military government of Japanese imperialism started. It was historically very gloomy period when racial pain stained with oppression and squeezing started for our race. In addition, in the period when Japanese imperialism started to occupy by force in the 1910s since the latter half part of the 19th century, diverse discussions poured competitively in Western shock and they started to spread over all the country as all new or strange. Our urgent questions of the colonial period were independence and illumination. To achieve these, rising intelligentsia started racial movement continuously through speech media, and children's literature existed at the historical spot.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early part of modern time by examining children's media in the 1910s minutely.

It illuminated as to with which form 'children' and 'children's literature' which were born with modern time came to quicken in the early part of modern time, what was early children's literature seeking, with which form they exist, and which meaning children's literature in children's media quickened in the 1910s has.

This researcher examined centering around [SONYEON] to be composite magazine published in the early part of modern time, [BULGEUN JEOGORI] to be children's newspaper on children for the first, and [AIDEUL BOI] and [SAEBYEOL] to be children's magazine on children. Most studies are handling children's media minorly in the course to examine the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Especially, study was being made centering around [SONYEON] and [EORINI] magazine in the 1920s. [SONYEON] is handling by including other fields as composite magazine. Of course, it is important data in children's literature through their literary features and works. But, strictly speaking, it can be said that indeed [BULGEUN JEOGORI] is the first children's literature on children. [AIDEUL BOI] and [SAEBYEOL] are being planned with similar level.

In spite of suggesting this important point, [BULGEUN JEOGORI] and [AIDEUL BOI] have not been studied particularly up to now. As for the reason, it is considered that it i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data, as they appeared a century ago. However,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truth by examining children's media in the 1910s that we may see the form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early part of modern times minutely.

Children's media in the 1910s failed to be free from nationalism or independence movement. As they were great propositions that the matter of race depends on, they made children as the subject of illumination positively. Of course, patriotic illumination movement in that period was executed on whole people in national dimension, but it was strongly concentrated on children to be growing generation especially.

Phenomenon concentrated on children like this was not accidental. It was inevitable phenomenon made in the historical situation to be the actuality of the present age and in great proposition to be the construction of modern people nation.

The researcher analyzed the background which children's media appeared in two aspects. First children's media has much connected with social and cultural features in Korean modern times. In other words they are closely connected with modernity, illuminism, nationalism and the appearance of modern education. Children's literary world in Korea was first made by Choi, Nam Sun, and Lee, Kwang Soo joined later on.

The resercher considered constructive principles and features of children's media in that period by analyzing the fundamentals of media. They, represented in various literature genres, consisted of pictorials, illustrations and game column, etc. Their primary functions were on

enlightening people and arousing national consciousness, scientific civilization and cosmopolitanism. Also children's media made children's literatur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genre; Aesop's Fables and adapted western fairy tales formed as a genre, 'children's story' and columns and desultory criticism formed as a genre, 'criticism'.

The early children's media had both enlightening features and factors which interested children. Japanese imperialism oppressed freedom of expression, but it helped to make pending issues of reconstructing national rights collapsed by Japanese imperialism melted in children's media that the readers of children's media were children. The Period situation was to the extreme, and it was variously poor situation. But it is not discourageable that magazine and newspaper on children were published even in such situation and it is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In fact it was not easy to infuse patriotism into the heart of people because of oppressive measures of Japanese imperialism, but juvenile media could survived all oppressions because it was for children.

Appearance of children's media was on colonial situation, but it, in the result, hastened birth of children's literature. The needs of the times and directivity of the new ring intelligentsia were realized in juvenile media. Above all, it is meaningful that children were made as the readers of children's media without turning away readers, 'children', quickened with modern times.

We can see how children's literature formed and what the early features were in studying children's media which appeared in the early

part of modern times. Children's media included diverse articles, writings and various columns let alone children's literature. In addition readers, editors and writers had mutual understandings through children's media. There were many changes in children's media in the 1910s. The 1910s were critical period that Korean children's literature started to form and we can observe the early types of children's literature in it. Though it seems to be a undifferentiated genre or it assumed transient aspects, it reflects signs of the times and adds historic significances to the whole stream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